

형산강 경관구[승지,곡,경] 지정 연구

2016. 02.

제 출 문

경상북도 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형산강 경관구[승지,곡,경] 지정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6. 02

경북정책연구원

원장 임 배 근

- 연구책임자 : 신 상 구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 임 배 근 (동국대학교 글로벌경제통상학부 교수)
강 태 호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 주 일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학부 교수)
자문 위원 : 김 춘 식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
김 준 흥 (포항대학교 제철산업과 교수)
서 병 철 (한동대학교 링크사업단 교수)
이 준 택 (경상매일신문사 부사장)
류 영 재 (포항예술총연합회 회장)
박 종 희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김 상 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초빙교수)
황 정 환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송 득 곤 (향토문화연구원 연구원)
권 영 만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목 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1-1. 연구의 배경	7
1-2. 연구의 목적	7
1-3. 연구 범위	8
2. 환경분석	8
2-1. 현황분석	8
1) 입지적 여건	8
2) 역사성	9
3) 역사·문화자원	11
4) 자연환경	13
2-2.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14
3. 경관구의 개념 및 사례조사 분석	21
3-1. 경관구의 개념	21
3-2. 팔경의 전통과 현황	21
3-3. 구곡의 전통과 현황	29
3-4. 관광활성화를 위한 구곡의 관광지 지정 및 활용사례	31
4. 형산강 권역의 팔경선정을 위한 기본구상	43
4-1. 형산강 권역별 특징 분석	43
4-2. 경관구 후보지역 선정	45

5. 형산강 경관구 선정	49
5-1. 설문조사 구상 및 실행방법	49
5-2. 설문지 구성	51
5-3. 설문조사 결과	61
5-4. 자문위원회 의견	63
5-5. 형산강팔경 선정	65
6. 기존 관광자원과 팔경 연계방안	67
6-1. 각 경관별 방안	67
6-2. 기존 자원과의 연계 필요성	115
6-3. 경관구 선정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	115
7. 경관구[형산강팔경] 관리 및 정비 방안	118
7-1. 경관구 유형별 구분	118
7-2. 경관구 주변부 관리 및 정비 방안	121
[참고문헌]	130

형산강 경관구[승지,곡,경] 지정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문화와 관광의 흐름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여행이 감성에 기반을 둔 체험여행으로 전환하고 있음
- 더불어 ‘문화 공간의 얼굴찾기’를 통한 장소마케팅이 중시되는 시대이므로 감성에 바탕을 둔 장소콘텐츠로 문화공간을 기획하고 이미지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포항·경주의 두 도시의 상생을 위한 논의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지금 형산강에 대한 가치 재발견 및 새로운 구상을 위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경관구[승지, 경, 곡]문화는 조선시대에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므로, 형산강의 구비마다의 경관에 따른 이야기 등 문화자원의 특화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강의 연결고리를 통해 포항과 경주가 형산강의 자연 생태, 역사문화, 수변 하천환경을 염두에 둔 연쇄적 관광화의 롤 모델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1-2. 연구의 목적

- 경관구 지정을 통한 형산강 주요 공간 정비
- 형산강의 문화사적 의미와 문화자원의 분석을 통해 형산강 공간의 장소성 강화
-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형산강을 재인식하고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관광을 위한 명소화
- 포항-경주의 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의 성공모델을 도출하여 두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창출
- 감성과 공감에 기초한 두 도시 공통의 스토리 창출
- 구곡, 경관 조성의 문화적 전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근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화 모색

1-3.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 포항·경주시 일원(형산강 권역)

2) 시간적 범위 : 2016

3)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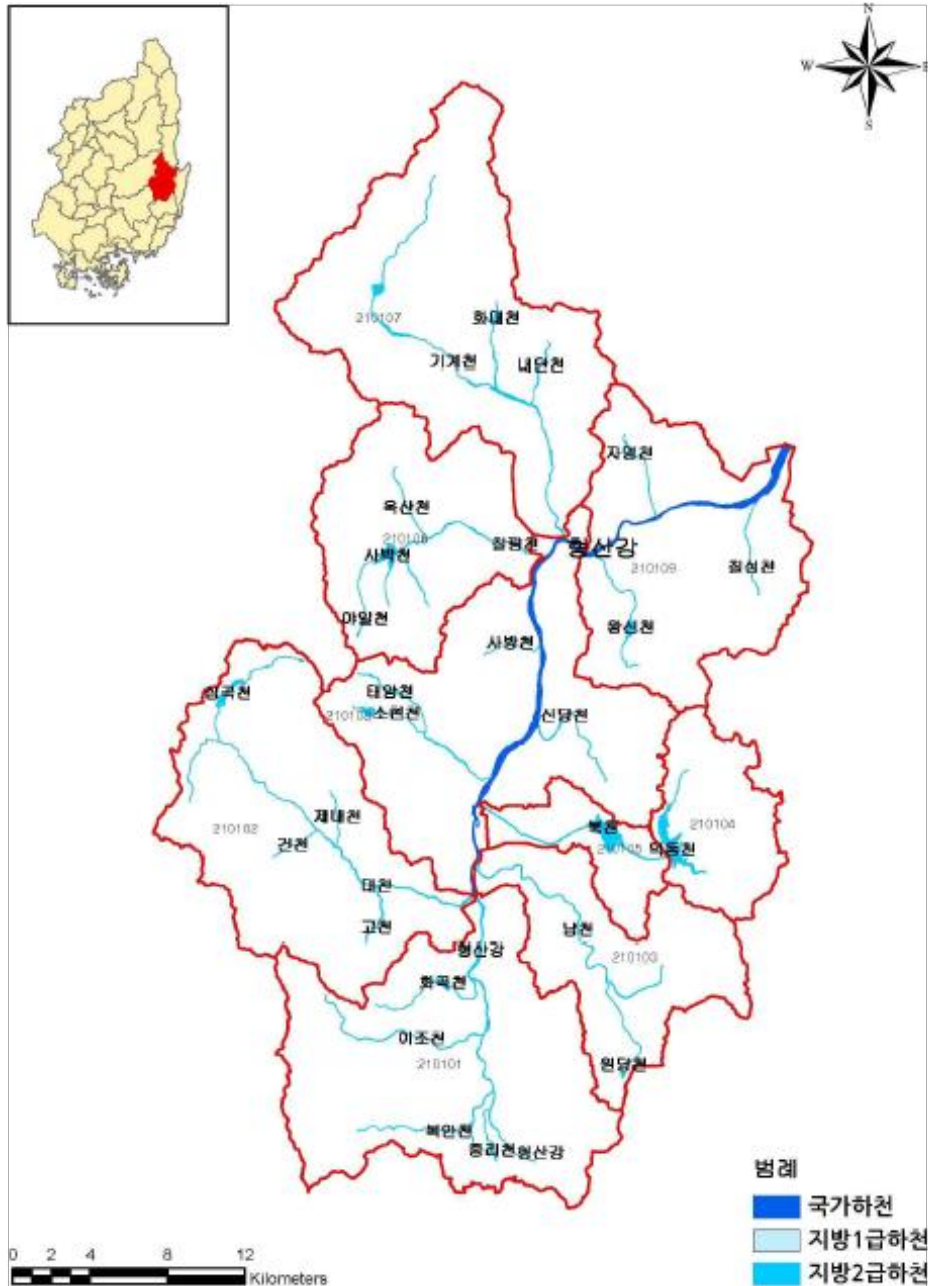
- 형산강 권역을 따라 산재한 문화자원을 역사성, 인문환경, 자연환경, 관광자원으로 분류·분석하고, 형산강과 관련한 법규 검토
- 전통적인 승지, 경, 곡의 개념을 정립하고, 경(景:팔경,십경,십이경)과 구곡(九曲)과 관련한 지역고유문화자원을 검토하며,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검토
- 형산강의 권역별로 나누고, 형산강본류를 중심으로 팔경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주지역의 남천과 북천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포함시켜서 '형산강팔경' 선정
- 기존 관광자원과 '형산강팔경'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코스를 발굴 개발하고 이를 관광의 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 '형산강팔경'에 적정한 주변 환경 정비 방안 제시

2. 환경분석

2-1. 현황분석

1) 입지적 여건

- 형산강 유역은 총 유역면적이 1,166.80km², 유로연장이 63.9km이다. 대천과 남천 및 북천 등 4개 지류가 형산강 중류부에서 합류하고 있고, 총 유역면적은 531.9km²로서 합류유역의 면적비는 45%이다. 이외 노곡천, 이조천, 화곡천, 충효천, 북천, 소현천, 신당천, 사방천, 칠평천, 기계천, 왕신천, 자명천 등이 있음
- 경주시가지 하천은 서천과 반월성의 배(背)측에서 흐르는 남천이 합류하여 서쪽으로 흐르고, 또 토함산 기슭에서 발원하는 북천과 합류함. 포항시는 유역이 짧고 연일, 대송, 흥해, 기계 등의 평야가 있음. 구룡포, 양포, 대보 등의 천연적 어항이 있으며, 구 형산강 하구에는 대형선박이 자유로이 드나들며 하역할 수 있는 안벽시설이 정비되어 있음



<형산강 분류와 지천>

2) 역사성

① 형산강 수계의 유래

- 신라시대와 관련한 문헌에서는 서천은 황천(荒川), 남천은 문천(蚊川), 모천(牟川), 사천(沙川), 북천은 알천(闕川) 등으로 불리었음. 오늘날 북천의 동천(東川)은 경주읍성이 완성된 고려 현종 이후 강물이 읍성의 동쪽에서 흐르다하여 생긴 이름
- 형산강이라는 하천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조선시대까지도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대동여지도에서 지금의 형산강을 형강(兄江)으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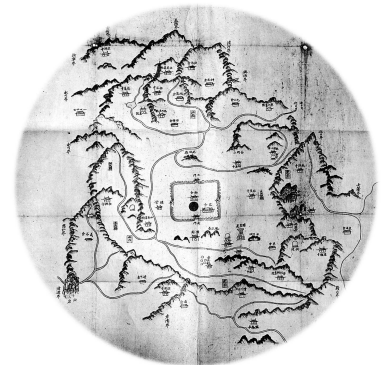
명하고 있음

- “형산강이란 이름은 신라시대부터 이름 지어진 형산(兄山)사이를 흐른다” 하여 명명된 것으로 여겨짐

② 고지도에 나타난 형산강 수계

- 형산강은 신라시대에는 굴연(掘淵) 또는 굴연천(掘淵川)이라 불렀으며, 1861년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에는 형강(兄江)이라 하였음

- 1486년 동국여지승람 경주부 편에는 “형산포(兄山浦)는 안강현 동쪽 24리에 있다. 굴연의 하류이며 어량(魚梁)이 있다. 경주부의 동천, 사등이천, 서천 등의 물은 모두 형산포로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음



<경주읍성지도>

-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慶州府) 편에는

- 형산포(兄山浦) : 안강현(安康縣)의 동쪽 24리에 있다. 어량(魚梁)이 있으며 굴연(掘淵)의 하류.
- 동천(東川) : 북천(北川)이라고도 하고, 알천(闕川)이라고도 한다. 부의 동쪽 5리에 있다. 추령(楸嶺)에서 발원(發源)하여 굴연(掘淵)으로 흘러들어감
- 서천(西川) : 부의 서쪽 4리에 있다. 발원지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인박산(咽薄山)에서 발원하고, 하나는 묵장산(墨匠山)에서 발원하며, 하나는 지화곡산(只火谷山)에서 발원함. 합류(合流)되어 형산포(兄山浦)로 흘러들어감.
- 온지연(溫之淵) : 안강현(安康縣)의 동쪽 24리에 있음. 용당(龍堂)이 있는데, 날이 가물 때에 비를 빌면 감응이 있음.
- 굴연천(掘淵川) : 부의 북쪽 20리에 있음. 어량이 있으며 서천(西川)의 하류(下流)
- 사등이천(史等伊川) : 황천(荒天)이라고도 함. 부의 동쪽 24리에 있으며, 토함산(吐含山)에서 발원하여 서천으로 흘러서 들어감
- 문천(蚊川) : 부의 남쪽 5리에 있다. 사등이천(史等伊川)의 하류

③ 「구한말. 일제시대의 지도」와 형산강

- 구한말「1:5만 지형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을 위해 1890년에 일본참모본부의 육지측량부에 의해 만들어짐
- 이 지도에는 안강을 지나 영일만으로 들어가는 형산강의 모습이 상세하게 잘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고지도와 달리 강폭과 유료가 매우 상세하다.

- 이 지도에는 형산강의 이름이 서상강(西相江)으로 되어 있고, 하구의 삼각주에는 강도(江島), 독도(獨島), 죽도(竹島), 상도(上島), 하도(下島) 등 다섯 섬의 지명이 표기되어 있음

3) 역사·문화자원

- 신라시대 신라왕경 주변에 홍수 방지용으로 친수 환경림을 조성.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조선시대의 경주관련 문헌자료 참고)
 - 천경림은 흥륜사가 창건된 지역으로 오릉서편의 남북으로 서천변에 있던 숲이며, 입도림 역시 대구와 영천 방향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입구인 호현동에 일대에 있던 숲으로 서천변의 상류지역인 대천변에 해당
 - 문잉림은 알천 주변인 구황동 일원에 있으면서, 인도의 아육왕이 보낸 황금과 철 등으로 황룡사 금당 내의 장육존상을 만든 곳이며, 신유림은 알천과 남천이 합수(合水)하던 낭산 남쪽에 위치하며 사천왕사와 망덕사가 들어선 곳
 - 논호림은 호원사 있었던 서천변으로 궁성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비보수(裨補藪)는 경주부의 선중(城中)에 있는데 부윤(府尹)의 아사(衙舍) 북쪽에 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북천변의 남쪽에 있으며 경주읍성의 북쪽을 보호하던 숲임
 - 남정수(南亭藪)는 문천의 북쪽과 문천의 남쪽으로 나뉘어져 두 곳에 있었는데, 북쪽인 상류지역의 것은 1669년경에는 없어지고 남쪽인 오릉 주변에 남아 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남천과 서천이 합수하던 삼천기 일원에 있던 숲으로 신라시대의 천경림으로 추정
 - 오리수(五里藪)는 북천인 동천변에 있었는데 그 길이가 五리나 되는 까닭에 붙여진 이름. 북천의 남변에 위치하며 길이가 분황사로부터 명활산에 이르렀으며, 천림촌의 숲과 위치상 일치되고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라 멸망 후 사라졌다가 고려 현종 당시 알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된 숲
 - 한지수(閑地藪)는 경주부 동쪽 8리에 있으며, 한지원에 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구황동 일대에 있는 숲으로 추정. 경주부와 거리로 미루어 알천의 물을 막던 오리수와 인접한 곳이며 기능과 역할도 동일하였을 것임. 또한 직접적인 연결은 어려우나 대체적인 위치가 구황동이며 황룡사 동편임을 감안할 때 신라시대의 문잉림이 한지수 일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임정수(林井藪)는 백율사의 서쪽에 있던 숲으로 신라시대 논호림의 일부였을 것임

- 고양수(高陽藪)는 경주부 북쪽 4리에 있는 숲으로 신라시대의 논호수(論虎藪)인데 조선시대에 와서 고양수(高陽藪)로 이름이 바뀜. 1669년 이전에는 임정수(林井藪)와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숲을 베어버리고 개간을 하여 둘로 나뉘어졌으며 오늘날에는 사라지고 없음
- 시림(始林)은 안압지와 월성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변이며, 왕가수(王家藪)는 서천과 기린천변에 위치
- 신라 왕경 및 왕릉 관련 유적지로는 남천 북쪽에 오능과 내물왕릉, 천마총, 계림, 반월성, 안압지, 석빙고, 첨성대 등이 있는데, 이들 유적들이 모두 남천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과 왕릉 및 왕경관련 유적지로서 역사문화학습의 주제로 도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풍부함
- 교량지로 서천을 동서로 가로질렀던 금교와 귀교, 남천에 있었던 신원교, 유교, 일정교, 월정교, 누교, 대교, 효불효교, 첨성대 일원을 지나 계림을 가로질러 남천으로 유입되는 발천 상의 교량 등 교량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
- 사찰 및 불교관련 유적으로는 흥륜사지, 영흥사지, 영묘사지, 신원사지, 담암사지, 인용사지, 천관사지, 천주사지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유교관련 유적으로는 조선시대 최씨 집성촌이었던 교촌과 교촌 북쪽의 향교, 교촌 서쪽의 사마소, 삼효각 등이 있음. 풍부한 역사문화자원들은 서천 및 남천, 첨성대 일원을 역사문화학습공간으로 주제화 하는데 매우 유리함
- 형산강 관련 문화 행사에는 형산강사랑 포항시민 걷기대회를 비롯해서 부조장터 축제, 형산강 살리기 강변마라톤 대회 등이 개최됨
- 형산강 수계의 문화유적 현황

북천				
명활산성	탈해왕릉	백률사 대웅전	동천동 마애보살상	황룡사지
천군리사지	표암	백률사 선각탑	굴불사지석불상	구항동 지석묘
천군리삼층석탑	헌덕왕릉	사방불탑신석	분황사석탑	전랑지

서천				
석장동 암각화	서악리 삼층석탑	진흥왕릉	헌안왕릉	김유신묘
태종무열왕릉비	무열왕릉	진지.문성왕릉	김인문묘	법흥왕릉
서악리 마애석불	효현동 지석묘	선도산성		

문천[남천]				
오름	양산재	동부사적지대	효불효교	낭산
나정	황남리고분군	월성(반월성)	첨성대	사천왕사지
창림사지(귀부)	미추왕릉	남산일원	박물관	통일전
남간사지(석정)	탑동 김현용 고가옥	월정교지	흥륜사지	불국사
본류 및 칠평천, 기계천, 냉천 등				
갑산사지	양동마을	옥산서원	독락당	동강서원

4) 자연환경

① 지형 지세

- 형산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에서 발원하여 동해안으로 유하하는 하천으로 경주, 안강, 포항등의 충적평야를 형성
- 남부지역인 외동에는 울산만으로 흘러가는 태화강의 지류인 동천강이 흐르고 있고, 단석계의 서편 산악지역인 서면에는 낙동강의 지류인 동창천이 운문댐으로 흐름
- 포항시는 경주시청(구) 지점부터 북동방향으로 직선거리 약 30km지점에 중심지가 위치하고, 태백산맥의 남주로서 산악기복이 심함
- 울산만으로 이어지는 태화강과 그 지류 동천에 의해 형성된 저지대가, 영일만으로 이어지는 형산강 일대가 연결되어 형산강지구대를 형성

② 수계

- 동해안으로 흐르는 제1의 국가하천인 형산강은 유역면적이 1,133km², 하천연장 63.35km에 달함
- 형산강 수계는 울주군 두서면에서 발원하여 경주시 및 포항시를 지나 영일만으로 흐르는 강으로 경주시, 포항시를 비롯하여 전 유역에서 생활용수와 농·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수자원
- 본류에 유입되는 지천은 안강읍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기계천, 포항시 남쪽에서 유입되는 칠성천 등 경주와 포항 도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크고 작은 15여개의 지류가 합류

- 형산강유역의 서쪽에서 발원한 형산강 상류는 유하하면서 중류부의 좌안에서 대천, 우안에서 남천 및 북천이 합류하고, 하류부의 좌안에서 기계천과 기계천이 합류하며, 하구역에 칠성천이 우안에서 합류하여 동해안으로 유입
- 형산강 구하도인 칠성천(포항시 남구 효자동 부근)은 제방축조로 인해 단절된 상태이며, 매립으로 유로가 거의 사라진 상태
- 형산강은 하상의 구배가 매우 급하기 때문에 강우시에 단시간에 우수가 급격하게 유출되어 홍수유발이 빈번함
- 본류 주변에 발달된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천을 가로지르는 수중보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

③ 식생

- 하천변의 식생은 하천흐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간별로 상·중·하류 그리고 하구 및 해안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남
- 대부분 평지성 하천으로 흑삼릉, 개여귀, 사위질빵, 쑥, 돌피, 망초 등이 분포
- 유수량이 적거나 자갈과 잔석으로 구성된 지역에서는 달뿌리풀, 환상덩굴, 갈대 등이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하천 위치별 출현종 현황
 - 하천 상류역 : 개망초, 엉겅퀴, 물억새, 참새귀리, 왕버들 등
 - 하천 중류역 : 쇠뜨기, 박주가리, 갯버들, 팽이사초, 애기수영 등
 - 하천 하류역 : 물억새, 참새귀리, 김의털, 참꽃마리, 수영, 부들 등
 - 하구 및 해안역 : 해송, 쯤보리사초, 갯메꽃 등

④ 경관

- 상류부 : 산지사면에서 발원한 계류형 하천으로 하상재료로 굵은 자갈이 넓게 분포
- 중류부 : 형산강 본류를 중심으로 주변에 범람원이 발달하였으며, 퇴적작용으로 사주부와 하천의 폭이 다양하게 발달
- 하류부 : 시가지와 인접하여 전형적인 도시하천의 경관을 보이며 영일만으로 유입되는 하구역을 형성

2-2.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①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0~2020)

- 청정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해안권을 환동해권의

국제적인 관광지대로 육성

- 경주권 역사·문화 관광거점 구축
- 휴양·레포츠벨트 구축과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 가족체험 휴양벨트 조성 및 동해 마리나 연계 루트 구축
 - 문화중심의 창조지역 및 창조산업 육성
 -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화
- 동해안이 보유한 생태환경 자원에 대한 보존과 환경 친화적인 활용을 통해 생태
 - 동해안 블루투어로드 조성
 - 하천~문화 연계 에코트레일 조성

③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2009~2018)

- 경주의 정주 공간축과 유교문화축을 기준으로 도시, 마을의 유교건축을 테마로 함
- 문화도시를 꿈꾸는 곳이라는 특성으로 대상지는 포항-경주-울산-부산
 - 공업도시 이미지와 경주문화도시
 - 핵폐기물 유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극복
 - 지역산업과 연계한 관광, 창조도시 전략

④ 포항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 동해안블루라이트벨트 프로젝트 : 등대를 테마로 활용하여 문화·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 명소화 하는 방안의 수립·제시로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 동해안 블루라이트벨트 구축센터 설립
 - 동해안 블루라이트벨트 기반(등대 콘텐츠 명소화) 구축
 - 동해안 블루라이트벨트 시범마을 육성
- 형산강 프로젝트 : 동해안을 둘러싼 형산강이 보유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 조성 도모하고 경상북도에서는 동해안의 중심강인 형산강을 새로운 전략프로젝트 지역으로 개발하고 포항, 경주를 연결하는 지역간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
 - 형산강 환경생태관찰원 조성
 - 형산강 환경생태탐방벨트 조성



<형산강 에코트레일 구상 기본 개념도>

⑤ 형산강 에코(컬처)트레일 기본구상(2009)

- 1테마: 해맞이길
 - 위치 : 환호해맞이공원에서 동빈내항까지
 - 컨셉 : 마침은 다시 시작을 잉태
 - 총 3.7km : 보도55분, 자전거15분
 - 해맞이공원에서 동빈내항을 잇는 길은 일출 조망이 가능한 구간
- 2테마: 항구길
 - 위치 : 동빈내항에서 유강대교까지
 - 컨셉 : 창조, 사람과 예술 그리고 문화. 아트웨이 경관로
 - 총 7.4km : 보도1시간50분, 자전거 30분
 - 동빈내항에서 연일대교를 연결하여 동해로부터 내륙으로 들어온 내항의 특징 부각
- 3테마: 섬안길
 - 위치 : 해맞이공원-포항 도심지역-유강대교
 - 컨셉 : 복원, 무지개길, 희망으로 그린(Green) 하자
 - 총길이 : 13.2km : 보도3시간20분, 자전거 50분
 - 해맞이공원에서 포항도심을 지나 형산강 하구에 이르러 5개의 섬을 앞에 두고 보던 길

- 4테마: 상생물길둘레길
 - 위치 : 유강대교에서 국당교까지
 - 컨셉: 조화 · 쾌적, 인간 생태, 그리고 장터
 - 총길이 : 1.4km : 보도20분, 자전거5분(20억 규모)
 - 보부상들이 들짐을 지고 장사하러 다니던 길로서 조선조 3대 장터

- 5테마 : 새빛길
 - 위치 : 아랫부조에서 임곡리, 남천과 생태습지
 - 컨셉 : 비상한 한 축, 빛이 다시 밝은 길을 따라서
 - 총길이 : 31.7km : 보도 7시간 13분, 자전거 1시간 48분
 - 세오녀가 빛을 밝히던 길로 빛과 연관된 길

- 6테마 : 우재길
 - 위치 : 제산에서 양동마을
 - 컨셉 : 소통, 세상을 향해라
 - 총길이 : 4.8km : 보도1시간20분, 자전거20분
 - 형제산이 형산과 제산으로 갈라지면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깃든 곳

- 7테마 : 원효길
 - 위치 : 운제산에서 보문으로의 산악길
 - 컨셉 : 산악길
 - 총길이 : 21.7km : 보도7시간50분, 자전거2시간40분
 - 산의 능선을 따라 난 길로 원효대사와 해공대사가 왕래하던 길

- 8테마 : 어귀길
 - 위치 : 형산강에서 양동마을
 - 컨셉 : 전통과 소통
 - 총길이 : 5km : 보도1시간40분 자전거 30분
 - 형산강에서 양동마을에 이르는 길은 양동마을로 들어가는 어귀에 해당

- 9테마 : 회재길
 - 위치 : 양동마을부터 옥산리, 옥산서원, 독락당
 - 컨셉 : 성찰
 - 총길이 : 5.5km : 보도2시간20분 자전거60분
 - 형산강에서 독락당(세심마을)에 이르는 길은 회재 이언적이 다닌 길

- 10테마 : 구비길
 - 위치 : 인동대교 - 현곡면 나원리
 - 컨셉 : 생태 물류와 생태의 연결통로. 사통팔달. 육통
 - 총길이 : 15km : 보도3시간50분 자전거 1시간
 - 안강 생태물류와 소통길로서 옛부터 사통팔달이라고 소문이 난 길

- 11테마 : 하늘길
 - 위치 : 현곡면 가정리-금장리
 - 컨셉 : 금장대와 무녀도. 가정리, 구미산, 동학과 수운 최제우 등을 연결시켜 민족고유의 정신 이해
 - 총길이 : 6.6km : 도보1시간40분 자전거30분
 - 수운 최제우의 인내천 사상과 국태민안의 정신이 유구히 이어져 오는 길

- 12테마 : 여명길
 - 위치 : 황성동-천군동
 - 컨셉 : 알천, 동천, 북천, 분황사
 - 총길이 : 18.4km : 도보4시간40분 자전거1시간20분
 - 알천에서 시작되어 동천과 북천을 거쳐 서천에 이르는 길은 신라의 시작이라는 역사가 담겨있으며, 왜구로부터 신라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과 여망이 담겨 있는 곳

○ 13테마 : 금모래길

- 위치 : 남천, 불국사

- 컨셉 : 신라의 광명사상과 문무왕

- 총길이 : 15.5km : 도보3시간50분 자전거 1시간10분

- 신라인의 광명사상을 담고 흐르는 남천길로서 불국사로 통하는 이 길에는 선덕여왕과 문무왕, 신문왕, 월명사, 치술령 그리고 조선후기의 기생 흥도의 이야기

○ 14테마 : 곡수길

- 위치 : 포석정

- 컨셉 : 신라의 영화와 패망을 상징하는 길

- 총길이 : 13.2km : 도보3시간10분, 자전거50분(66억 규모)

- 신라의 영화와 패망을 상징하는 포석정과 신라 역대 왕들의 무덤이 있는 길로서 남산을 자전거로 종주를 할 수 있는 자전거길을 만날 수 있는 길



<형산강 컬처트레일 위치도>

3. 경관구의 개념 및 사례조사 분석

3-1. 경관구의 개념

- 경관구와 관련해서는 승지(勝地)와 경(景), 곡(曲)이 있음. 승지(勝地)는 자연 경관과 거주 환경이 뛰어난 장소를 가리키며, 조선 중·후기에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피폐해지자 개인의 안위를 보전하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피난지[(십승지지(十勝之地))]로 인식하면서 생겨난 개념
- 십승지지는 정감록에서 도참서의 키워드로 등장한 이래, 조선시대 민간인들의 지리 인식에 큰 영향력을 끼쳐 외침으로 인한 전란과 정치적 환란을 피하는 보신의 장소로 사용했으므로 형산강 경관구 지정에는 적합한 개념이 아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景)과 곡(曲)을 중심으로 경관구의 중심개념으로 잡고자 함

3-2. 팔경의 전통과 현황

1) 팔경(八景)의 전통

- 팔경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여덟 곳의 경관구를 지칭하는데, 대개 팔경, 십경, 십이경, 이십육경 등이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치가 좋은 경승지 중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을 명승지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어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특징적 이미지를 경관의 명칭으로 정함
- 특히 지역이 넓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경관의 연속성이 있는 지역을 8개소로 묶어 팔경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중국의 <소상팔경(瀟湘八景)>에서 영향을 받은 것임
- <소상팔경>은 중국의 호남성 동정호 남안 부근의 소수(瀟水)와 상수(湘水)가 합류하는 여덟 지점에서 계절과 기상과 경물이 배합되어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를 말한 것으로 원포귀범(遠浦歸帆), 평사낙안(平沙落雁), 동정추월(洞庭秋月), 소상야우(瀟湘夜雨), 산시청람(山市晴藍), 강천모설(江天暮雪), 연사만종(煙寺晚鍾), 어촌석조(漁村夕照)임
- <소상팔경>은 경관을 바라보는 관점, 곧 경관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팔경의 출

발점이 되며 고려 때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음

2) 팔경(八景)의 조성 현황

◇ 고려말 조선초의 경관

松都八景	開城前八景	開城後八景	漢陽八景	庇仁八景
紫洞尋僧	紫洞尋僧	紫洞尋僧	南渡行人	煙浦歸帆
靑郊送客	靑郊送客	靑郊送客	畿甸山河	松坪秋月
北山煙雨	南浦煙藪	北山煙雨	北郊牧馬	觀寺暮鍾
西江風雲	西江月艇	西江風雲	西江漕泊	芑營戍鼓
白嶽晴雲	穀嶺春晴	白岳晴雲	都城宮苑	徹茫大海
黃郊晚照	龍山秋晚	黃橋晚照	列署星拱	隱映小島
長湍石壁	龍野尋春	長湍石壁	東門教場	重重蜃樓
朴淵瀑布	熊川楔飲	朴淵瀑布	諸坊瀑布	點點螻髻

◇ 타지역 대표 경관

公州十景	密陽十景	達城十景 [大丘十詠]	朝鮮十景	瀛洲十景
西寺尋僧	牛嶺閑雲	琴湖泛舟	鴨綠汽笛	城山日出
東樓送客	馬山飛雨	笠巖釣魚	鏡浦月華	紗峯落照
熊津明月	?浦漁燈	龜岬春雲	天池神光	瀛邱春花
鷄嶽閑雲	龍壁春花	鶴樓明月	延平漁火	正房夏瀑
三江漲綠	栗島秋煙	南沼荷花	大同春興	橘林秋色
月城秋興	瑩峰初旭	北壁香林	長髻日出	鹿潭晚雪
錦江春遊	羅峴積雪	桐華尋僧	金剛秋色	靈室奇巖
五峴積翠	凝川釣艇	檣院送客	邊山落照	山房窟寺
金池菡?	西郊修禊	公嶺積雪	재령觀稼	山浦釣魚
石甕舊浦	南浦送客	砧山落照	濟州望海	古藪牧馬

- 여러 경(景) 중에서 최남선의 노래인 (<조선십경가>)에서 장기 일출을 조선십경 중 하나로 선정해 놓았음
- 최근 많은 도시에서 전통적 경관을 현대적인 의미와 가치로 재해석하여 경관구를 새로이 조성하고 있음. 예컨대, 제주도는 전통적인 <영주십경>에 현대적 경관인 용연야범(龍淵夜帆)과 서진노성(西鎭老星)을 추가하여 <영주십이경>으로 확대 조성함

-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1933년에 대구일보사 주최로 경북팔경을 정하였는데, 경북 팔경은 영남팔경, 경북팔승이라고 불리운다. 대구일보사에서 정한 경북팔경은 문경의 진남교반과 문경새재, 청송의 주왕산과 구미의 금오산, 봉화의 청량산과 포항의 보경사 청하골 12폭포, 영주의 희방폭포와 의성의 빙계계곡임

대구십영(大丘十詠) 사가 서거정
 : <대구십영>은 <대구십경(大丘十景)>, <달성십영(達城十詠)>, <달성십경(達城十景)>이라고도 함
 금호범주(琴湖泛舟, 금호강의 뱃놀이), 입암조어(笠巖釣魚, 입암에서의 낚시)
 귀수춘운(龜岬春雲, 거북산의 봄구름), 학루명월(鶴樓明月, 금학루의 밝은 달)
 남소하화(南沼荷花, 남소의 연꽃), 북벽향림(北壁香林, 북벽의 향림)
 동화심승(桐華尋僧, 동화사의 중을 찾음), 노원송객(櫓院送客, 노원에서의 송별)
 공영적설(公嶺積雪, 팔공산에 쌓인 눈), 침산낙조(砧山落照, 침산의 저녁 노을)

- 이외 전국의 각 지역에서 지역의 대표적 경관을 지정하여 팔경, 십경으로 조성하고 관광 상품화하고 있음

◇ 경주·포항지역 소재 경관

- 경주·포항지역에도 많은 경(景)이 조성되고 노래 불리워졌음.
- 경주에는 신라 때 전해오는 삼기팔괴(三奇八怪)를 비롯해서 서거정과 어세겸이 노래한 <동도십이영(東都十二詠)>이 있으며, <동도십이영>을 차운하여 많은 선비들이 노래하였고, <동도십이영> 외에 <동경팔경>, <동도팔경> 등도 많이 있음
- 이외에도 특정 지역 곧, 유금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금곡팔경>, 안강 옥산세심마을의 자계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자계십사경>, <자계십육영>, <임거십오영> 등과 양동마을의 수운정에서 바라본 풍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수운정원팔경>도 있음
- 포항에도 <유정팔경>, <입암이십팔경>, <영일십경> 등이 있음

東都十二詠(서거정,어세겸)		東都十二詠(이진구)		鷄林十二詠(임화세)	
鷄林靈異	靈妙舊刹	鷄林靈異	靈妙舊刹	鷄林靈異	芬皇廢寺
龍山奇勝	五陵悲弔	龍山奇勝	五陵悲弔	龍山奇勝	靈妙舊刹
鮑亭感懷	南亭清賞	鮑亭感懷	南亭清賞	鮑亭感懷	五陵悲弔
蚊川聘望	聞玉笛聲	蚊川聘望	聞玉笛聲	蚊川聘望	南亭清賞
半月古城	過庾信墓	半月古城	過庾信墓	半月古城	聞玉笛聲
芬皇廢寺	瞻星老臺	芬皇廢寺	瞻星古臺	瞻星老臺	過角干墓

東京八景 (강필효)	東都八景 (류의건)	次孔巖八景 (이우상)	琴谷八景 (이능렬)	浦港八景
星臺飢鴉	月城春日	階前植松	大江鏡面	兄江暮雨
鳳臺寒鐘	鷄林秋色	堂後疎竹	茂林鳥聲	竹林清風
汶水倒沙	鰲山晚烟	百日紅花	鷹峰蚤暉	新浦垂釣
鰲山暮煙	蚊水晴川	十里長川	鷄嶺遠嵐	西堤春水
白栗筍松	桃岑落照	近村朝烟	寶坪漲霞	渴山返照
鋪石流觴	鳳臺暮鍾	遠岵暮烽	兄嶽慎烽	龍澤火龍
鴈池浮草	金剛老松	平郊羊群	松畔農謳	遠浦歸帆
千秋玉笛	五陵踈雨	大路魚商	蓮浦牧笛	平沙落雁

紫溪十四景(노수신)		龍潭二十六詠(최옥)			
紫玉山	洗心臺	龜岑喜雨	仙臺活水	吟峰月夕	前川花柳
獨樂堂	蓮塘	獅嶺晴藍	丹巖白雲	蒼臺花朝	蘆峰牧笛
溪亭	釣磯	虹峴朝暎	老巖飛流	風臺爽籟	休臺清陰
觀魚臺	瀑布	鹿柴返照	古巖蒼苔	月灘波聲	花潭紅流
詠歸臺	龍湫	豹林宿霧	石瀨清淺	眞橋渡頭	驪湖漁歌
濯纓臺	玉山書院	蘭谷幽香	龍潭水石	心淵靜波	
澄心臺	紫溪谷口	桃園紅霞	釣臺寒雪	西原農談	

東京十六詠(이순상)		林居十五詠(이언적)		紫溪十六詠(박계현)	
蘿正白馬	黃昌劔	早春	無爲	獨樂堂	養眞菴
珍浦鳴鵲	半月城	暮春	觀物	紫溪谷口	觀魚臺
始林金雞	瞻星臺	初夏	溪亭	紫玉山	詠歸臺
六部村長	玉寶琴	秋聲	獨樂	舞鶴山	濯纓臺
萬波息笛	奉德鍾	初冬	觀心	淨惠寺	澄心臺
金尺	書出池	悶旱	存養	道德山	洗心臺
玉笛	鮑石亭	喜雨	秋葵	華蓋山	獅子岩
處容巷		感物		紫溪	龍湫

迎日十景(유명천)				
1景 寅賓堂	3景 日月池	5景 大松亭	7景 礪石窟	9景 注津
2景 烏川書院	4景 五魚寺	6景 大嶼臺	8景 鋪子市	10景 竹島

華山八詠 (이태수)	五宜亭八詠韻 (이진구)	柳亭八詠 (이의온)	孔巖亭八景 (이호상)	八詠 (이태수)
桃源紅流	蓮麓春花	蓮麓春花	階前植松	梅谷杏花
聖洞龍湫	鶴峰秋月	龍巖遊魚	堂後疎竹	龍山竹林
九曲瀑布	靈溪農歌	長堤牧笛	百日紅花	蓮寺曉鐘
望亭釣臺	長提牧笛	竹洞炊煙	十里長川	松亭夜月
釜淵游魚	龍巖遊魚	鶴峰秋月	遠岵暮烽	隱湫酒壚
西澗仙窟	蔭岑望海	法寺尋僧	近村朝烟	勝谷樵歌
七星壇藥泉	法寺尋僧	雙溪農歌	平郊羊群	東城暮煙
魯岑吐月	竹洞炊煙	蔭岑望海	大路魚商	南澗飛流

東都十景 (이두원)	書堂十景 (손운구)	山居十詠 (이현락)	次蔣君琴湖十景 韻(남용만)	東京雜詠 (李弘离)
瞻星老臺	春柳光風	東嶺初月	琴浦歸帆	瓢岩
月城春草	夏嶺奇雲	南村晚炊	魚岵霽月	聖母祠
鰲山晚煙	雪澗蒼松	西嶽晴嵐	九曲江潮	六部遺墟
鷄林疎雨	瑚峰朝日	北麓蒼松	廣灘漁火	蛇陵
金莊落雁	栲峴夕照	暮春農歌	一行沙雁	月城
仙桃流鶯	翠風暮鍾	斜陽牧笛	德城樵歌	脫解祠
鮑石曜月	東郊水田	早秋林蟬	土橋牧篋	金尺
汶水清潭	南山樵篋	比鄰松燈	廊山疎竹	鵲院
篋寺暮鍾	西蒼石丈	禪房漏鍾	獨洞寒松	鳳樓山
鳳臺夜月	北川魚火	市門歸人	龍村暮煙	鮑石亭

水雲亭遠八景 (손성악)	東都八景 (유치능)	漸谷八景 (이중구)	次益齋瀟湘八景 詩韻(남용만)	玉川八景 (이의활)
虎口朝霞	金鰲晚霞	四面松濤	遠浦歸帆	漱玉軒
獐陵墓煙	兄山吐月	一區竹風	平沙落雁	晚松亭
廣濟魚火	汶川積沙	前溪瀑水	洞庭秋月	馬山潭
蘆旨春鴻	鷓嶺暮雲	西峰望石	瀟湘夜雨	臥龍巖
雪川秋月	仙桃反照	谷口朝烟	山市晴藍	半日巖
玉山疎雨	月城暮烟	海上晝務	江天暮雪	九峰山
金谷臘雪	曼湖朝日	山外砧聲	烟寺暮鍾	楸灘
三雪佛燈		夕陽樵歌	漁村落照	島巖

立巖二十八景(권주옥)				
卓立岩	吐月峯	耕雲野	九仞峯	尙巖臺
起豫岩	象斗石	停雲嶺	浴鶴潭	響玉橋
避世臺	踏苔橋	含輝嶺	小魯岑	合流臺
招隱洞	洗耳潭	産芝嶺	勿幕井	隔塵嶺
鏡心臺	畫裡臺	採藥洞	尋眞洞	
數魚淵	戒懼臺	釣月灘	惹烟林	

-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지역에서는 중국의 소상팔경이 전하기 이전에 아름답고 괴이한 경관을 팔괴[삼기팔괴]로 정하여 기린 전통이 있으며, 조선조에 와서 8경 외에 10경, 12경, 16경, 26경 등을 다양하게 조성하고 시를 창작하였음
- ‘경(景)’을 통해서 언급되어진 경관 장소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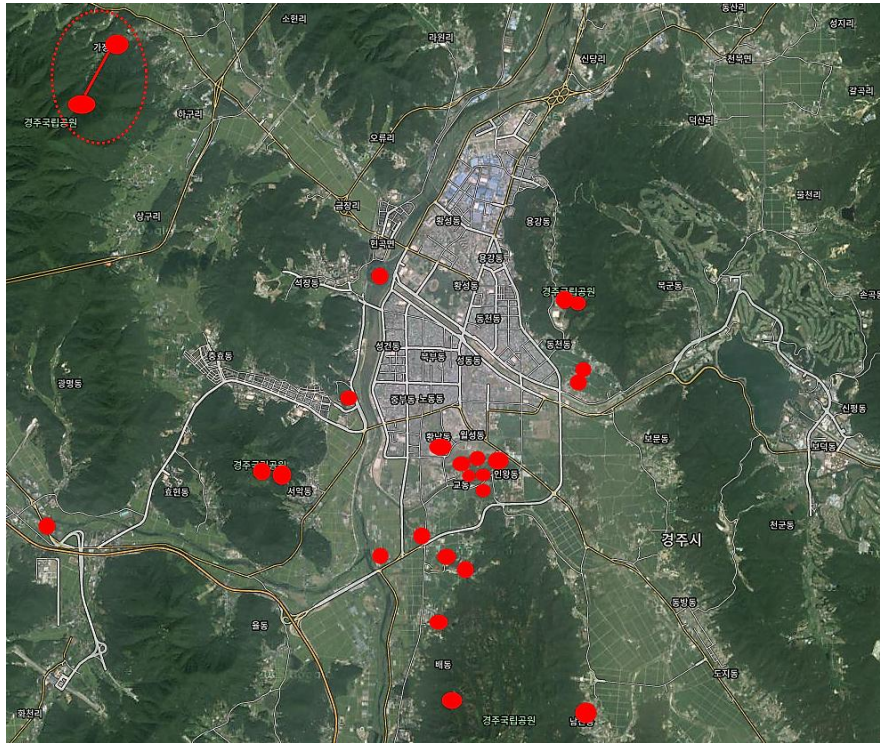
경주 전지역				
월성	금오산	김유신묘	표암	서출지
계림	포석정	선도산	백률사	처용항
문천	오릉	성모사	탈해사	봉덕종
분황사	나정	봉황대	소금강산	형산
첨성대	남정[남정]	금장대		금척
안압지	영묘사			

특정지역	
옥산 세심마을 자계천 일대	현곡면 구미산 용담정 일대
강동 유금리 일대	양동마을 수운정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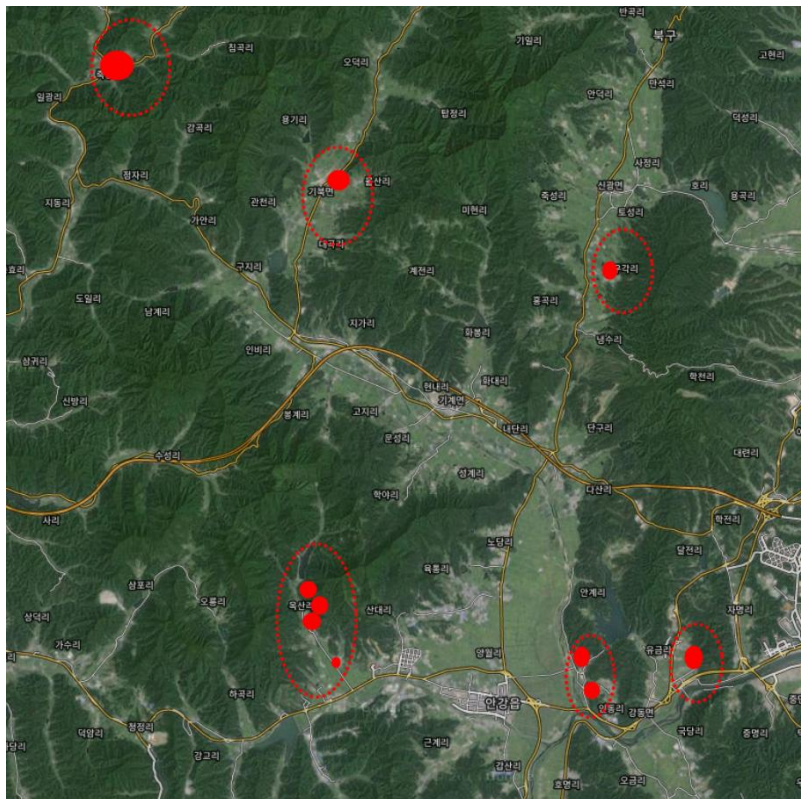
포항 전지역	
포항전역(팔경)	죽장면 입암서원 일대
신광 우각리 오의정	기북면 덕동마을 숲
영일십경(寅賓堂, 烏川書院, 日月池, 五魚寺, 大松亭, 大嶼臺, 礪石窟, 鋪子市, 注津, 竹島)	

☞ 경주의 삼기팔괴(三奇八怪, 세 가지 진기한 보물과 여덟 가지 괴상한 풍경)는 금척(金尺), 옥적(玉笛), 화주(火珠)(이상 삼기)와 남산부석(南山浮石), 문천도사(蚊川倒沙), 계림황엽(鷄林黃葉), 압지부평(鴨池浮萍), 백률송순(栢栗松筍), 금장낙안(金丈落雁), 불국영지(佛國影池), 나원백탑(羅原白塔), 서산모연(西山慕煙), 금오만하(金鰲晚

霞)(이상 팔기)임



<경주지역 팔경[경관] 장소>



<포항·안강지역 팔경[경관] 장소>

☞ 양동마을과 부조장터가 있는 형산강 중류지역의 경우 유금리를 중심으로 금곡팔경

이 조성되었음

남산부석 : 남산 국사골의 버선바위
문천도사 : 문천[남천]의 부드러운 모래
계림황엽 : 월성 계림의 붉은 색을 띠는 나뭇잎
압지부평 : 안압지의 부평초 바람에 밀려다니는 모양
백률송순 : 백률사의 순이 나는 소나무
금장낙안 : 금장대에서 쉬고 가는 기러기
불국영지 : 불국사의 전경이 비치는 영지
나원백담 : 현곡면 나원리에 있는 나원리 오층석탑의 흰 빛깔
서산모연 : 서산 골, 선도산의 석양이 비친 노을
금오만하 : 금오산의 저녁놀에 반사되어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이상 팔괴)

- ☞ **금곡팔경(琴谷八景)**은 “대강경면(大江鏡面): 형산강의 맑고 고요한 물결 / 무림조성(茂林鳥聲): 무성한 숲에서 울리는 새소리 / 응봉조취(鷹峰蚤暉): 매봉의 아침햇살 / 치령원람(鷄嶺遠嵐): 치령에 이는 그윽한 푸른 안개 / 빈평창하(賓坪漲霞): 강가 언덕 너머로 지는 타는 저녁놀 / 형악신봉(兄嶽慎烽): 형산의 봉화 / 송반농구(松畔農謳): 밭두렁에서 부르는 농사를 기리는 노래 / 연포목적(蓮浦牧笛): 포구의 목동의 피리소리”임
- ☞ 포항에는 형강모우(兄江暮雨): 형산강의 저녁나절의 비가 내리는 모습 / 죽림청풍(竹林淸風): 죽림산의 맑고 부드러운 바람 / 신포수조(新浦垂釣): 신포에서 즐기는 낚시 / 서제춘수(西堤春水): 서쪽 저수지에서 흐르는 봄날의 물 / 갈산반조(渴山返照): 갈산(水道山)의 해질무렵에 반사되는 모습 / 용택화룡(龍澤火龍): 용택(龍澤-항구동의 북서지역)의 낙조 / 원포귀범(遠浦歸帆): 먼바다에서 돌아오는 돛단배의 모습 / 평사낙안(平沙落雁): 모래펄에 내려앉은 기러기의 모습을 **포항팔경(浦港八景)**으로 지정함
- ☞ 그리고 조선시대 퇴경 유명천이 영일지역을 다니면서 <영일십경(迎日十景)>을 노래함. <영일십경>의 장소는 1경 寅賓堂, 2경 烏川書院, 3경 日月池, 4경 五魚寺, 5경 大松亭, 6경 大嶼臺, 7경 礪石窟, 8경 鋪子市, 9경 注津, 10경 竹島임
- ☞ 최근 포항에서는 현대적 경관가치를 고려하여 “호미곶의 장엄한 일출 / 내연산 계곡 12폭포 비경 / 운제산 오어사의 사계 / 포스코 야경 / 덕동문화마을의 아름다운 숲 / 죽장 하옥계곡의 사계 / 사계절 운치 있는 경상북도 수목원 / 호미곶-임곡간 해안 절경 / 장기읍성 일월맞이 / 환호해맞이 공원 주변 경관 / 사방 기념공원 주변 풍경 / 중앙상가 실개천 야경”을 ‘<포항십이경>’으로 선정하였음
- ☞ 하지만, 십이경 선정 이후 공간정비나 스토리텔링,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화의 모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3. 구곡의 전통과 현황

1) 구곡(九曲)의 개념과 전통

- 유가적 사상을 근간으로 한 사대부들의 산수유관을 위한 유람지로 경치가 수려한 곳을 선정하여 경관구를 명명하고 명소로 지정함
- 구곡문화는 주자의 「무이구곡」의 영향을 받아 조선시대 선비사회에 유행하기 시작
- 사대부들이 중심이 되어 산수가 수려한 장소를 선정하여 구곡원림을 설정하고 공자와 주자를 본받아 산수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등 학문의 발전과 성취를 위해 일생에 한번쯤 행해야 하는 문화행위로 인식
- 사대부들이 학문과 사상적 이념으로 삼았던 성리가 구현되는 장소이자 선학(先學)의 자취가 배어 있는 곳이라는 장소적 의미 및 수려한 경승과 더불어 유가적 학문의 실천사상이 강하게 배어있다는 장소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대부들의 유람명소로 부각
- 구곡은 사대부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학문과 인격을 완성해가는 격물치지의 출발점이 되는 공간으로 이상적 자연 공간인 동시에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음

“때로 책을 읽다 권태롭고 뜻이 막혀 옷을 입고 지팡이 잡고 나가면 안개와 구름이 드리우다 개고 새가 울고 꽃이 지며 바위는 고요하고 못은 맑으며 높은 곳에 올라....” (대산 이상정 <고산잡영 병기> 중에서)



<高山七谷 중 4곡 高山精舍>

- 선비의 구곡원림 조성은 유교의 완상적, 자연적 산수관이 정착이 되는 중요한 계기임
- 구곡에는 1곡부터 9곡까지 구곡을 조성하는 조영자의 세계관, 세계인식, 학문적·철학적 맥락이 이어짐

2) 경상북도의 구곡원림 현황

시군	원림명
안동시	도산구곡(陶山九曲), 퇴계구곡(退溪九曲), 하회구곡(河回九曲), 임하구곡(臨河九曲), 와계구곡(臥溪九曲), 백담구곡(百潭九曲), 남계구곡(南溪九曲), 고산칠곡(高山九曲)
봉화군	오계구곡(梧溪九曲), 대명산구곡(大明山九曲), 법계구곡(法溪九曲), 춘양구곡(春陽九曲), 광진구곡(光津九曲)
상주시	연악구곡(淵嶽九曲)
영천시	횡계구곡(橫溪九曲), 성고구곡(城臯九曲)
포항시	덕계(연)구곡(德溪(淵)九曲)
경주시	옥산구곡(玉山九曲), 양동구곡(良洞九曲)
칠곡군	명연구곡(鳴淵九曲)
성주군	무흘구곡(武屹九曲), 포천구곡(布川九曲)
영주시	죽계구곡(竹溪九曲), 소백구곡(小白九曲), 초암구곡(草庵九曲), 운포구곡(雲浦九曲), 무도구곡(茂島九曲), 동계구곡(東溪九曲), 초계구곡(草溪九曲)
영양군	일월산구곡(日月山九曲)
예천군	수락대구곡(水落臺九曲), 은산구곡(殷山九曲)
문경군	선유구곡(仙遊九曲), 선유칠곡(仙遊九曲), 쌍룡구곡(雙龍九曲), 화지구곡(花枝九曲), 청대구곡(靑臺九曲), 석문정구곡(石門亭九曲), 산양구곡(山陽九曲)
고령군	낙강구곡(洛江九曲), 도진구곡(桃津九曲)
청도군	운문구곡(雲門九曲), 오대구곡(梧臺九曲)

-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구곡원림 조성 사례는 시군별로 상당한 수였음을 알 수 있음
- 경주와 포항에도 구곡이 조성되었고, 양동의 양동구곡과 옥산구곡, 포항의 덕계구곡이 있음






3-4. 관광활성화를 위한 구곡의 관광지 지정 및 활용사례

1) 국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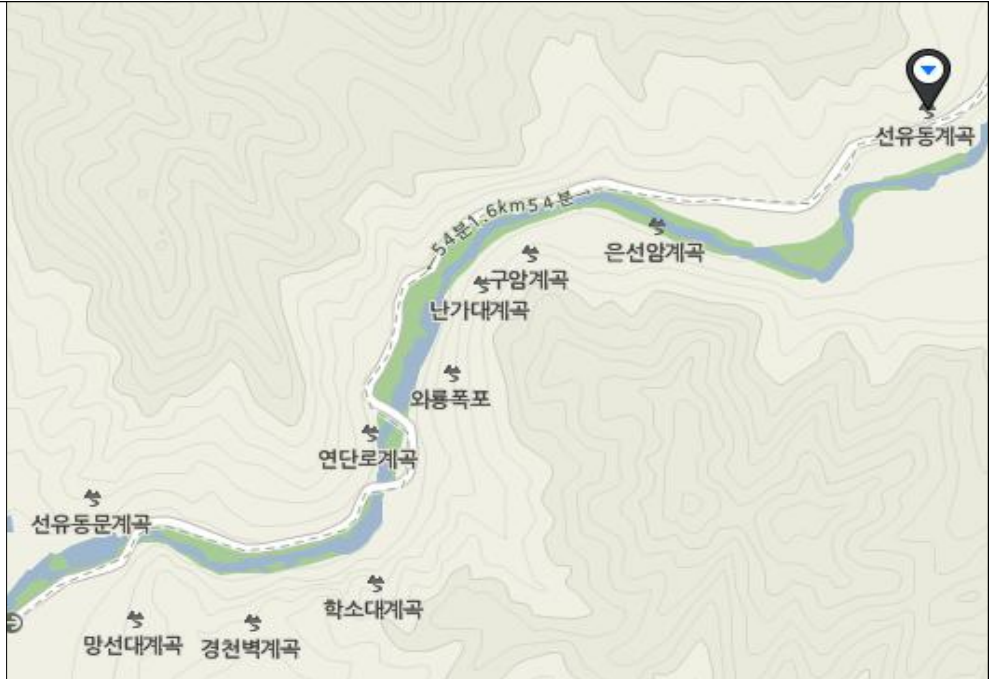
◇ 선유구곡(仙遊九曲)

- 조성 시기 : 1752년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천면(약 2km)

구곡 명	구곡 사진	구곡 설명
<p>一曲. 선유동문 (仙遊洞門)</p>		<p>신선이 내려와 놀던 곳이라 하여 선유동문이라 부른다.</p>
<p>二曲. 경천벽(擎天壁)</p>		<p>층층이 쌓인 절벽이 가파르게 솟아 있어 마치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것 같다 하여 경천벽이라고 부른다.</p>
<p>三曲. 학소암(鶴巢岩)</p>		<p>학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하여 학소암이라 부른다.</p>
<p>四曲. 연단로(練丹爐)</p>		<p>신선들이 이곳에서 금단을 만들어 먹고 장수하였다고 하여 연단로라 한다.</p>

<p>五曲. 와룡폭 (臥龍瀑)</p>		<p>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마치 와룡이 물을 내뿜는 듯, 벼락치는 소리같다 하여 와룡폭포라 부른다.</p>
<p>六曲. 난가대(欄柯臺)</p>		<p>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다가 바위 위에서 신선들이 바둑두며 노니는 것을 구경하는 동안 도끼자루가 썩어 없어졌다하여 난가대라 부른다.</p>
<p>七曲. 기국암(碁局岩)</p>		<p>바위 위에서 신선들이 바둑을 두고 있어 나무꾼이 구경하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5대손이 살고 있더라는 전설이 있다.</p>
<p>八曲. 구암(龜岩)</p>		<p>바위의 생김이 마치 큰 거북이가 머리를 들어 숨을 쉬는 듯 하여 구암이라 부른다.</p>
<p>九曲. 은선암(隱仙岩)</p>		<p>통소를 불며 달을 희롱하던 신선이 이곳에 머물렀다 하여 은선암이라 부른다.</p>

선유구곡
(仙遊九曲)





◇ 무흘구곡(武屹九曲)

- 시기 : 1604년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과 김천시 증산면

구곡 명	구곡 사진	구곡 설명
<p>一曲. 회연서원 (檜淵書院)</p>		<p>1690년(숙종 16)에 ‘회연(檜淵)’이라 사액을 받아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왔다.</p>
<p>二曲. 한강대(寒岡臺)</p>		<p>한강대는 대가천 말은 물이 연못이 된 곳으로 정구 선생께서 들린 절벽이다.</p>

<p>三曲. 무학정(無鶴亭)</p>		<p>바위의 형상이 배와 같아 선암 혹은 주암이라고도 한다. 그바위 봉우리에 축대가 있어 이를 무학정이라 부른다.</p>
<p>四曲. 입암(立岩)</p>		<p>입암으로 굽이쳐 흐르는 물 옆에 우뚝 솟은 바위가 있는데 이를 입암이라고 한다.</p>
<p>五曲. 사인암(舍人岩)</p>		<p>舍人벼슬을 한 중이 살았다하여 사인암 또는 이곳에 온 사람마다 영원한 인연을 맺고자 한다해서 舍身岩 이라고도 한다.</p>
<p>六曲. 옥류동(玉流洞)</p>		<p>수도산 불령산 계속에서 내려오는 물이 흰 암반위를 흐를 때 옥이 어 흐르는 것 같다고 하여 옥류동이라 한다.</p>
<p>七曲. 만월담(滿月潭)</p>		<p>수도암과 청암사 가는 길로 접어들어 이정표가 보이면 수도암쪽으로 좌회전하여 장평마을을 100m 정도 벗어나면 우측 계곡 쪽에 여섯 그루의 소나무가 보인다.</p>
<p>八曲. 와룡암(臥龍巖)</p>		<p>바위 형상의 용이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와룡암이라 한다.</p>





<p>九曲. 용추(龍湫)</p>		<p>이 소(沼)에 용이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용소 폭포라고 한다.</p>
<p>무흘구곡 (武屹九曲)</p>		

◇ 죽계구곡(竹溪九曲)

- 조성 시기 : 1282-1348년
-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약 2.3km)

구곡 명	구곡 사진	구곡 설명
<p>一曲. 금당반석 (金堂盤石)</p>		<p>화강암 너럭바위도 일품이지만 그 위로 흐르는 맑은 물길은 마치 거울같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준다.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부석사를 구상했듯이 새로운 계획은 금당반석 맑은 물에서 자신의 구상을 살펴보아야 한다.</p>

<p>二曲. 청운대 (靑雲臺)</p>		<p>양진암은 퇴계선생이 한 때 기거했던 곳이다.</p>
<p>三曲. 척수대(滌愁臺)</p>		<p>양진암에서 죽동으로 퇴계선생이 잠시 이동하여 기거했던 곳이다.</p>
<p>四曲. 용추(龍湫)</p>		<p>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것 같다하여 '용추'라고 한다지만 그건 보기에 따라 달리 느낄 수도 있으리라.</p>
<p>五曲. 청련동애 (靑蓮東崖)</p>		<p>청련동애, 청련암 동쪽의 벼랑이라고 하면 될 것 같다.</p>
<p>六曲. 목욕담(沐浴潭)</p>		<p>선비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목욕을 했다면 옷을 훌훌 벗고 옴 몸을 담그기엔 다소 부족해 보인다.</p>

<p>七曲. 탁영담(濯纓潭)</p>		<p>초나라의 굴원이 지은 ‘어부사’의 구절에서 인용했다는 이름이다.</p>
<p>八曲. 관란대 (金堂盤石)</p>		<p>하류에 있는 너럭바위다.</p>
<p>九曲. 이화동(梨花洞)</p>		<p>옆 언덕에는 판자집 같은 물탱크 보관소가 있으니, 아름다움은 예일이 되고 만 듯하다</p>
<p>죽계구곡 (竹溪九曲)</p>		

2) 국외사례

중국 무이구곡
 - 조성 시기 : 남송
 - 위치 : 중국 복건성[福建省] 무이산[武夷山]

① 역사적 배경

- 중국 복건성(福建省)에 있는 무이산(武夷山)의 아홉 굽이 계곡을 가리키며, 성리학을 일으킨 주희(朱熹)가 수학하던 곳이어서 조선 유학자에게 정신의 고향과 같은 장소.
- 남송(南宋) 때 성리학의 대가 주희(朱熹)는 1183년 무이구곡의 제5곡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무이정사잡영(武夷精舍雜詠)>과 <무이구곡도가(武夷九曲圖歌)> 작성
- <무이구곡도가>는 첫 수를 제외하고는 무이구곡의 산과 물의 경치를 묘사
- 자연 묘사를 주로 하면서 도학(道學 : 주자학.성리학)을 공부하는 단계적 과정이 주요 내용

② 자연환경

- 무이산 정상에서 시작되는 능선은 서쪽과 동북-남서 방향으로 이어진 경승지
- 무이산에서 주목할 만한 계곡은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향한 능선과 남서향 능선 사이에 서쪽과 서남쪽에 위치
- 무이산은 중생대 백악기에 분출한 안산암류로 형성



1. 옥녀봉(玉女峯)



2. 천유봉(天游峰)







3. 쇠포암(晒布岩)



4. 무이구곡(武夷九曲)

3) 무이구곡 현황

구분	구곡명	구곡 주경물 사진	주변 경관요소
1곡	대왕봉(大王峰)		무이궁(武夷宮) 사자봉(獅子峰) 대왕봉(大王峰) 관음석(觀音石)
2곡	옥녀봉(玉女峰) 일선천(一線天)		수광석(水光石) 씻향담(洗香潭) 옥녀봉(玉女峰) 철판장(鐵板嶂) 경대(鏡台) 일선천(一線天)
3곡	선조대(仙釣台)		큰장봉(大藏峰) 소장봉(小藏峰) 선조대(仙釣台)
4곡	와룡담(卧龙潭).		卧龙潭(와룡담).

5곡	어차원(御茶园)		<p>어차원(御茶园) 갱의대(更衣台) 천주봉(天柱峰) 만대봉(晚对峰)</p>
6곡	향선암(响声岩)		<p>향선암(响声岩) 운악(云窝)</p>
7곡	계고암(城高岩)		<p>계고암(械高岩) 상하수굴(上下水龟)</p>
8곡	부용담(芙蓉潭)		<p>쌍유봉(双乳峰) 부용담(芙蓉潭) 상비암(象鼻岩)</p>

9곡	제운봉 (齊云峰)		인면석(人面石) 소고담(牛牯潭) 청개구리석 (青蛙石) 제운봉(齊云峰)
----	--------------	------------------------------------------------------------------------------------	----------------------------------------------------



<무이강구곡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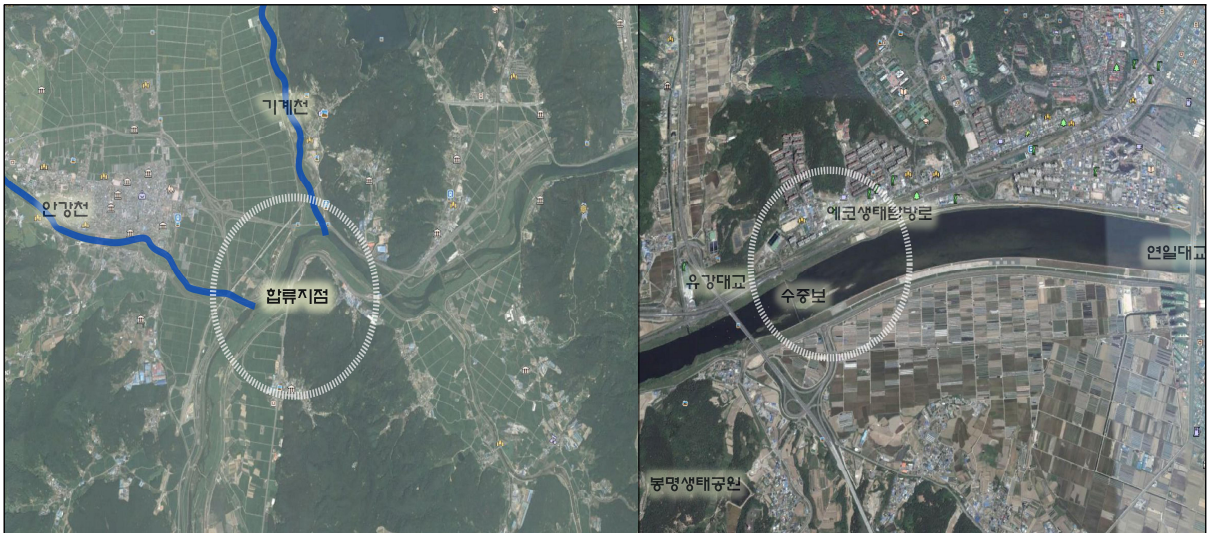
<우이산지도>

4. 형산강 권역의 경관구 기본구상

4-1. 형산강 권역별 특징 분석

1) 형산강 전체 권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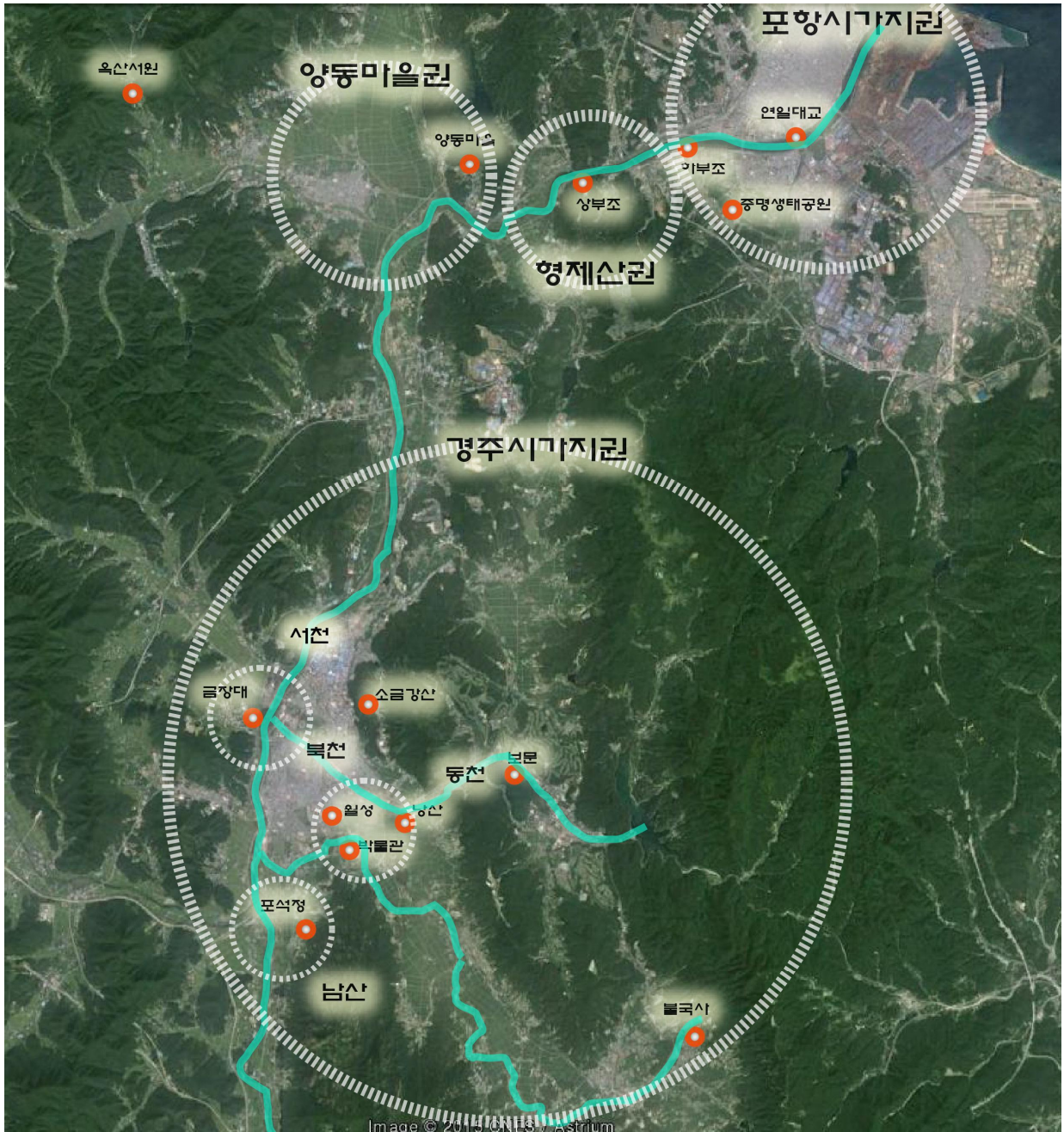
- 형산강은 구간의 전체 길이로 볼 때 약 82km이며, 이 중 경주 시가지에 속하는 구간이 약 68km, 포항 시가지에 속하는 구간이 약 8km, 그리고 경계부의 비시가지 구간이 약 6km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중 시가지 권역에 해당하는 구간은 이미 유역의 대부분이 개발된 상태이며, 비시가지 구간의 경우 별도의 개발이나 시설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역사문화생태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진행 중임
- 비시가지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쪽으로는 안강천-기계천 합류지점에서 동쪽으로는 유강대교 주변 수중보까지 구간으로 볼 수 있으며, 양동마을, 형산-제산, 중명생태공원 등이 입지하고 있음



<형산강 경계부 구간 서측(왼쪽)과 동측(오른쪽) 경계부>

2) 경관구 선정 위한 권역 구분

- 형산강 구간의 각 부분별 특성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 구간을 총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자 함
- 이미 개발된 경주와 포항 시가지에 속하는 부분을 각 시가지권역으로 구분하고 경계부 구간의 경우 다시 양동마을권과 형제산권으로 구분하였음



<경관구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형산강 권역구분>

- 이에 설정된 권역은 경주시가지권, 양동마을권, 형제산권, 포항시가지권이며 각 권역 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권역	권역 분포 및 지리적 특징	인문사회적 특징	형산 십승 관련 고려 사항
1. 경주 시가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산강 중상류의 넓은 평원지역과 소금강산 등 구릉지역 분포 - 보문호 등 조성된 호수와 남천, 동천 등 지류가 연결되어 시가지 전체를 감싸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시대 유적과 관련 시설이 이미 집중되어 있음 - 자연적인 경관보다는 역사문화 경관 자원이 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명소 보다는 형산강 권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한 선정 필요
2. 양동 마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강천, 기계천 합류지점~동강서원 - 강변부지가 넓고 기계천을 따라 평지가 북측으로 이어짐 - 동서와 지형적으로 분리된 분지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강시가지와 근접 - 양동마을, 옥산서원 등 전통유교문화자원 보유 - 강변에 일부 산업체와 소규모 마을 입지 - 시가지와 거리를 둔 독립적인 주거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경관자원 및 체험형 장소 발굴 필요
3. 형제산 산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산과 제산이 갈라진 가파른 지형을 따라 형산강이 지나감 - 산악과 수변 높지가 잘 보존되어 있음 - 철새도래 및 산악 자연환경이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의 영향력이 적고 상주인구가 없는 자연지역 - 유교역사자원인 동강서원과 생태고원 등 보유 - 일부 수자원관리시설을 제외하면 인공적 구조물이나 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 차원의 경관지 발굴 필요 - 산악지형에서 강변과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경관지점 발굴 필요
4. 포항 시가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 시가지의 경계와 중첩 - 북측은 평지, 남측은 중명산으로 양안의 지형적 차이 - 철새의 집단 도래가 가장 뚜렷한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주거지가 대규모로 개발되었으나 남측은 생태자연공원시설로 개발 - 포항시가지로부터의 도로진입이 가능한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과 자연환경이 중첩되는 체험형 경관지점 발굴 필요 - 산악 생태경관지점 발굴 필요

4-2 경관구 후보지역 선정

1) 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건

- 주요 경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자연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는 주요 거점지역들에 대한 고찰과 이를 통한 대상지 선정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 있음

- 형산강 경관구의 발굴에 있어 지역별로 치우치거나 기존의 명소 위주로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함

- 형산강 유역에서 적정 거리 이내의 대상지 선정
- 경주, 포항 시가지 각각의 특성에 다른 대상지 선정
- 형산강 구간별 성격에 따른 대상지 선정
- 현재의 상황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의 개발 가능성도 고려
- 장소의 의미와 용도가 다양하게 분포하도록 고려
- 이미 명소화된 대상지의 선정은 최소화

- 개별 도시 차원이 아닌 형산강이라는 자연환경요소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형산강 구간으로부터 되도록 보행접근거리(500~1000미터) 이내의 장소로 선정할 필요 있음
- 경주의 역사문화자원과 포항의 현대산업시설자원 등 개별 도시의 특성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정기준 정할 필요 있음
- 형산강의 각 구간별로 나타나는 여건을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필요 있으며, 인지도가 낮은 비시가지 지역의 경우 현재의 여건과 그 잠재력을 감안하여 선정할 필요 있음
- 대상지는 비단 자연 경관 뿐 아니라 전망, 생태, 문화, 인공적 체험공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와 용도를 가진 장소들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어야 함
- 과거 명소의 재확인 아닌 명소 재발굴, 새로운 도시 이미지 창출 등을 감안하여 현재 예상되는 개발 대상지 역시 고려할 필요 있음
- 이미 관광권역으로 잘 알려지고 명소화된 장소의 선정은 최소화함으로써 형산강 수변공간의 새로운 발견과 이를 통한 도시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고려

2) 후보지 선정의 기준

- 과거의 명승지가 주로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예찬하는 지역의 의미를 가졌던 것에 비해 오늘날의 명소는 인공적인 경관, 체험적 용도의 장소 등 보다 다양화된 의미를 내포함
- 형산강 구간지역은 역사적인 유산에서부터 현대적 도시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상이 분포하고 있어 비단 경관적 장점 외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포함될 필요 있음

-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관구 대상지 선정의 조건을 과거의 명소를 일컫는 표현으로 부터 가져와 다음의 3 가지로 구분하고자 함

- **인문사회적 명소 (승勝):**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가진 유적, 장소, 시설
- **경치, 풍경 명소 (경景):** 인상적인 경관을 보유한 장소이거나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 **생태자연 명소 곡(曲):** 자연환경과 생태적 여건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이에 관한 의미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입지

- 승은 인문적인 여건과 관련하여 우세한 장소를 일컫는 표현으로, 역사적 자취를 가진 유물,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특정한 용도를 가지는 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임
- 경은 경관적인 주요 지점을 뜻하는 표현으로, 자연적이고 도시적인 경관 모두를 의미하며 경관 자체 및 경관을 조망하는 주요 지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곡은 주로 형산강의 굽이치는 강변의 자연환경, 생태적 보존요소와 관련된 개념임

3) 대상지 선정

- 경관구의 최종선정에 앞서 제시한 틀에 따라 대상지(후보지)를 먼저 제시하고자 함
- 대상지는 승, 경, 곡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며, 또한 구분된 4개 권역 중 하나에 속하게 됨
- 기존의 대상지 외에도 현재 조성중이거나 계획을 가진 대상지까지 포함

표 35 대상지 선정 틀에 따른 후보지 목록

	승		경		곡	
	기존	향후	기존	향후	기존	향후
경주 시가지 권	송화산 산길 알천 김유신장군묘 월성교 벌지지 포석정	역사문화 테마타운	금장대 소금강산	소금강산전망 대	숲머리마을 서남산가는길 습지생태원 남산사랑길	생태연결숲
양동 마을권	양동마을 동강서원 유금 구강서원 흥덕암릉	형제산 스카이 스포츠 시설	갑산리 갑산사	안계저수지전 망대	양동구곡 옥산구곡	양동구곡길
형제 산권	부조장터 (상/하부조)	형산강 돌레길 형제산 산악탐방로	왕룡사	형산전망대 형산강탐조대	형산강습지	습지탐방로
포항 시가지 권	동빈운하	신부조장터	제철산업 단지야경	연일 생태전망대	중명생태공원	에코생태 탐방로

3) 최종 대상지 선정 방식

- 선정 틀에 따른 후보지 목록 중에서 여러 선정방식을 통하여 대상지 선정
- 정보부재, 선입견, 지역중심주의 등 여러 가지 왜곡요인이 있어 대상지 선정이 편중되거나 형평성을 잃을 우려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의 선정틀 영역별로 후보지 선정 개수와 비율을 미리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
- 특히 승/경/곡의 경우 한 곳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게 비교적 고르게 선정하는 방식을 고안할 필요 있음

5. 형산강 경관구 선정

5-1. 설문조사 구상 및 실행방법

- 전체 경관구의 위치, 특성, 의미 등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주요 이용자들의 선호도와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음
- 설문조사는 서면조사와 온라인설문조사, 설문 패널의 3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 문화재해설사를 비롯한 전문가, 교수들에게는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두 도시의 공무원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 패널을 통한 투표조사를 실시했음
- 서면 설문조사에는 전문가와 교수 158명이 참여했고, 온라인 설문조사와 보드를 통한 투표조사에는 580명이 참여했음
- 그리고, 경주시 5명, 포항시 5명 모두 10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토의를 거침

The screenshot shows the Pohang City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Pohang logo, a search bar, and contact information.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main banner with the text "미래가 풍요로운 포항" and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사이버설문" (Cyber Survey) and contains the following text:

형산강팔경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 > 정책기획과 · 김미경 (☎ 054-270-2154) · 작성일 2016-02-03 16:31

본 설문 기간은 2016-02-03 19:00부터 2016-02-12 18:00까지 9일간 전체 1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설문 대기상태입니다.


본 설문은 경북정책연구원 수행하고 있는 도, 포항, 경주 공동협력 미래전략과제인 '형산강 경관구 지정 연구'와 관련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받고자 합니다.

포항과 경주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양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형산강팔경' 경관구 8곳을 선정해 주세요~

조회 6 IP ○.○.○.○

첨부파일 1. 형산강팔경-tile.jpg 101.6K | 2 Download(s) 이미지보기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are buttons for "목록" (List), "설문등록" (Register Survey), "수정" (Edit), "문항관리" (Manage Items), and "삭제" (Delete).

제 목	"형산강팔경" 선정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기간 2016-02-04 ~ 2016-02-05		
방 식	무기명	결과	공개
	대 상 자 비공개		
설 문 내 용	 <p>1. 영일대누각 2. 동빈나루 3. 포항운하 (포스코야경) 4. 유강대교 5. 부조장 풍광 (조류서식지) 6. 부조장터 7. 양동마을</p> <p>8. 옥산서원 특락당 9. 금장대 10. 보문호 (너울교) 11. 월정교 (남천) 12. 서솔지 (통일전) 13. 포석정 14. 삼릉숲길</p>		
	<p>본 설문은 경북정책연구원 수행하고 있는 도, 포항, 경주 공동협력 미래전략과제인 '형산강 경관구 지정 연구'와 관련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p> <p>포항과 경주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양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형산강팔경' 경관주 8곳을 선정해 주세요~</p>		

<웹사이트를 통한 설문조사 구성>



<시청 로비공간에서의 대 시민 의견조사 판넬 >

“형산강팔경” 선정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경북정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도·포항·경주 공동협력 미래전략 과제인 ‘형산강 경관구 지정 연구’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형산강팔경’은 경주와 포항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양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됩니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하여 형산강이 지니는 역사성과, 경관의 아름다움, 관광 자원의 유무,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공간의 잠재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산강팔경’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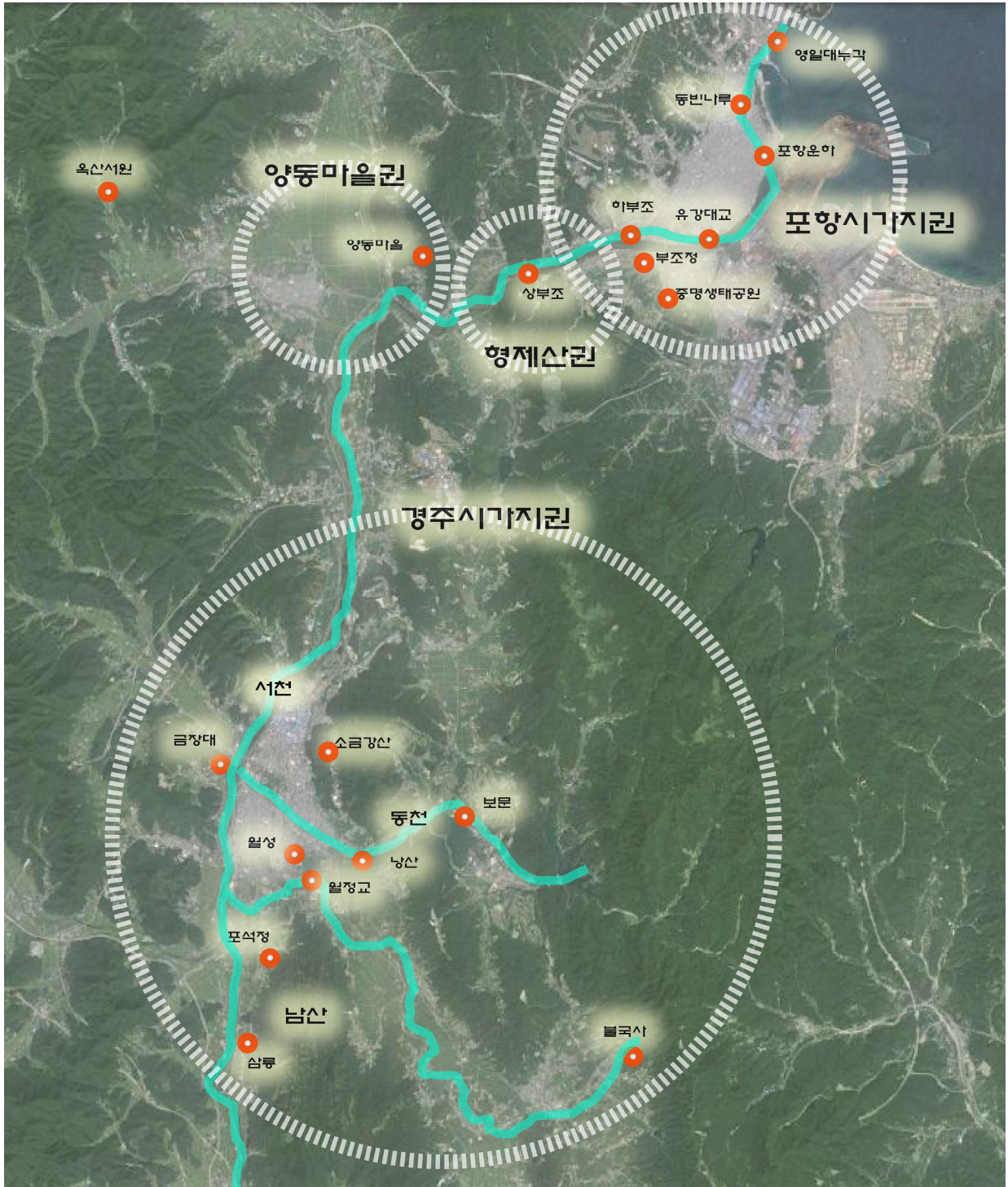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귀중한 의견은 통계작성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북정책연구원 054-743-2555

책임연구원 : 위덕대학교 교수 신상구 010-8596-1368

※ 다음은 “형산강팔경” 선정을 위해 설정한 권역으로 설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가지권

경관포인트		
		
해상누각 야경	일출	일출


경관구 1		영일대누각
주요 경관자원		해상누각, 동해 일출, 영일대누각 야경
특징	역사성	- 명사십리로 유명한 해수욕장(북부해수욕장)
	경관의 아름다움	- 일출경관이 아름다움 - 일몰 뒤 영일대 누각과 해수욕장, 그리고 포스코 야경
	관광자원	- 영일만해안과 먹거리(물회) - 바다, 불빛, 축제(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국제불빛축제, 포항국제바다연극제)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	- 영일대 누각-환호 해맞이공원까지의 바닷가 산책길 - 영일대 누각-동빈내항까지의 산책길[동해안자전거길]
	공간의 잠재력	- 영일대 누각을 중심으로 햇살과 강, 바다, 항구의 아름다움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곳

경관포인트		
		
동빈나루	동빈나루 부근 어선 정박모습	죽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다리

경관구 2		동빈나루
주요 경관자원		동빈내항, 죽도시장
특징	역사성	- 죽도시장, 항구[포항진]
	경관의 아름다움	- 해안길과 항구, 그리고 오징어 고깃배, 어시장 등 항구의 아름다움
	관광자원	- 국내최대 어시장인 죽도시장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	- 동해안자전거길[항구길] 산책길 - 송도솔숲과 해수욕장
	공간의 잠재력	- 죽도시장 관광객 증대 - 영일대누각과 동빈내항, 그리고 운하관이 아트웨이 조성계획 - 각종 야외예술, 영상, 거리공연, 노천카페들이 연속되는 포켓공원과 수변가로 어메니티 공간 조성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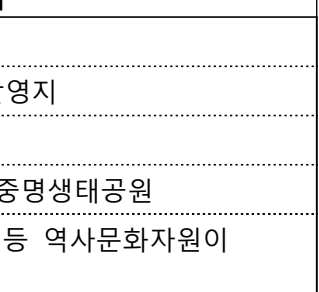
경관포인트

		
동빈운하관에서 본 시가지	동빈운하관에서 바라보는 형산강	동빈운하관에서 바라보는 송도

경관구 3		포항운하(포스코야경)	
주요 경관자원		크루즈 여행, 포스코야경	
특징	역사성	- 현대 포항시의 대표 어메니티 공간	
	경관의 아름다움	- 포스코 야경과 형산강의 물길	
	관광자원	- 포항운하 크루즈(연안 크루즈, 리버 크루즈) - 포항운하 돛자리 영화제, 포항국제불빛축제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	- 포항운하, 송도솔숲과 해수욕장 - 동빈내항, 영일대해수욕장 - 형산강	
	공간의 잠재력	- 크루즈 여행을 위한 관광객 집중 지역	

경관포인트

		
7번국도에서 바라본 수중보	7번국도에서 본 유강대교와 형산	형산강 수중보 부근의 조류


경관구 4		유강대교(조류서식지)	
주요 경관자원		조류서식지, 생태	
특징	역사성	- 부조장터, 임진왜란 및 형산강 전투 현장	
	경관의 아름다움	- 형산강 물길, 형산강에서의 저녁놀이, 조류촬영지	
	관광자원	- 천변식물과 조류서식지, 생태습지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	- 윗부조장터와 아랫부조장터, 부조장터길, 증명생태공원	
	공간의 잠재력	- 생태환경자원과 부조장터, 보부상의 활동 등 역사문화자원이 조우하는 지역	

◇ 형제산권

경관포인트		
		
부조정	형산과 제산, 그리고 형산강	월출광경


경관구 5		부조정 풍광
주요 경관자원		부조정, 형산강 조망
특징	역사성	
	경관의 아름다움	- 형산강 전 구간 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형산강을 조망할 수 있음 - 동해로 떠오르는 일출과 월출의 아름다움
	관광자원	- 조망권 - 연일생태숲, 부조장터축제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	- 부조정-옥녀봉-중명생태공원 등을 이어주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생태숲을 즐길 수 있음
	공간의 잠재력	- 형산강 전구간 중에서 경관 조망을 위한 최고의 포인트

경관포인트		
		
해질녘 형산강 풍광	형제산 안개	동강서원 전경


경관구 6		부조장터
주요 경관자원		부조장터, 포항팔경
특징	역사성	- 부조장터(윗부조장터) - 동강서원 - '양동구곡'의 출발지점(1곡:형산강) - 포항팔경, 유금팔경의 노래지
	경관의 아름다움	- 자연경관 - 형산강에서 바라보는 해질녘 풍광
	관광자원	- 동강서원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	- 양동마을, 안계저수지, 중명생태공원
공간의 잠재력	- 부조장터의 흥과 형제산의 소통성과 운제산의 생명성이 결집이 된 곳: 상생공원 조성 계획	 (부조장터 주변 개발 계획)

◇ 양동마을권

경관포인트		
		
관가정 일대 전경(가을)	관가정 일대 전경(겨울)	수졸당 부근 전경

경관구 7 주요 경관자원		양동마을 한옥, 마을길	
특징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여년 이어온 전통반가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동방오현 배출지 	
	경관의 아름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고택]의 아름다움 - 고샅길, 마을길 등 전통마을 	
	관광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감속편(국보 제 283호), 무첨당(보물 제 411호) 외 보물 3점, 그 외 중요민속자료 다수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동구곡'을 통하여 부조장터, 동강서원과 연계 - 옥산세심마을과 연계(옥산서원, 독락당) 	
	공간의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형 문화유산인 양동마을의 가치[선비정신] 증대 	
			 <p><양동구곡></p>

경관포인트		
		
옥산세심마을 입구	독락당 계정과 계곡	옥선서원 앞 용추

경관구 8 주요 경관자원		옥산서원 / 독락당 독락당, 옥산서원	
특징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산서원(영남 3대 서원) 	
	경관의 아름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산세심마을의 전경 - 독락당 계정과 계곡의 아름다움 	
	관광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락당(보물 제 413호), 화재 이연적의 수필고본(보물 제 586호), 옥산서원 - 정혜사지13층석탑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덕왕릉-양동마을'과의 연계 - 풍광이 뛰어난 하곡 수재정과의 연계 	
	공간의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동마을-옥산세심마을의 연계를 통한 선비정신 	
			

◇ 경주시가지권(서천)

경관포인트		
		
강변 정자에서 본 금장대	금장대에서 본 서천 전경	금장대에서 본 시가지전경

경관구 9		금장대
주요 경관자원		금장낙안, 예기청소
특징	역사성	- 금장낙안(신라 삼귀팔괴의 하나) -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적과 이야기가 전함 - 임진왜란 시 경주읍성 수복을 위한 전진기지
	경관의 아름다움	- 풍광의 아름다움을 지닌 명소
	관광자원	- 금장대 암각화, 금장대 누각, 임신서기석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	- 화랑마을, 석장사지, 김유신장군묘, 동학발상지 용담정 등
	공간의 잠재력	- 경관 포인트

◇ 경주시가지권(북천)

경관포인트		
		
너울교 전경	보문댐에 바라본 보문호	북천 전경

경관구 10		보문호 (너울교)
주요 경관자원		보문호반, 북천
특징	역사성	- 보문리사지, 명활산성, 천군리, 북군동 등 신라시대 군사적 요충지 - 명활산은 배씨 시조인 지타공이 하늘에서 내려온 곳임
	경관의 아름다움	- 보문호반의 아름다움
	관광자원	- 보문호반 경관과 휴양시설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	- 덕동호, 무장산, 불국사
	공간의 잠재력	- 경관 포인트 지역이며 관광객 유입지

◇ 경주시가지권(남천)

경관포인트		
		
남천(월성주변)	남천과 월성	월정교

경관구 11		월정교(월성)
주요 경관자원		월정교, 남천
특징	역사성	- 신라 공궤 터 - 문천도사(신라 삼귀팔괴 중 하나) - 문천빙망(서거정 경주12영 중 하나)
	경관의 아름다움	- 계림을 중심으로 한 야간 경관조명
	관광자원	- 월성, 계림, 경주향교 등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	- 서남산으로 가는 길[사랑길]의 출발점 - 황룡사, 분황사, 오릉 등
	공간의 잠재력	- 신라 왕경의 핵심지역으로 경주관광의 중심지

경관포인트		
		
서출지 야경	연꽃 핀 서출지와 남산	통일전에서 바라본 토함산

경관구 12		서출지/통일전
주요 경관자원		서출지, 통일전
특징	역사성	- 신라 소지왕과 까마귀의 계시
	경관의 아름다움	- 야경명소 - 연꽃 핀 서출지의 아름다움(5월의 서출지)
	관광자원	- 서출지, 이요당, 남산리 동서삼층석탑, 통일전 - 야경명소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	- 경주남산유적 둘레길 - 둘레길에서 만나는 유적: 왕릉8, 절터 16, 불상 12여기 등
	공간의 잠재력	- 동남산을 통한 남산등반과 통일전에 담긴 통일가치

◇ 경주시가지권(서천)

경관포인트		
		
포석정 내부 안내도	포석정 내부 입구	포석정 유상곡수

경관구 13		포석정
주요 경관자원		유상곡수
특징	역사성	- 신라의 영화와 패망의 아픔이 담긴 곳
	경관의 아름다움	- 유상곡수와 소나무 숲
	관광자원	- 포석정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	- '서남산가는길(월성[월정교]-삼릉)'의 중간지점 - 남산을 자전거로 종주할 수 있는 남산자전거길과 연결
	공간의 잠재력	- 월성과 삼릉의 중간지점

◇ 경주시가지권(서천)

경관포인트		
		
삼릉입구	삼릉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삼릉과 주변 소나무 숲

경관구 14		삼릉솔숲
주요 경관자원		삼릉, 노송숲
특징	역사성	-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의 능 - 매월당 김시습, 사가 서거정의 '경주십이영' 중 '금오기승'의 노래 현장
	경관의 아름다움	- 아름다운 솔숲과 삼릉계곡[냉골] 있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솔숲 촬영지
	관광자원	- 산세가 아름다우면서도 신라불상을 만날 수 있는 최고 코스 - 용장사지(김시습 금오신화 집필지)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	- 월성에서 시작한 '삼릉가는길[사랑길]'의 마지막 코스
	공간의 잠재력	- 서남산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 경관 특성을 고려하여 형산강팔경에 적합한 **경관구 8곳**을 선정해 주십시오.

권역	순서	경관구	경관구 선정 (√)	기타 의견
포항권	1	영일대누각(일출)		
	2	동빈나루		
	3	포항운하(포스코야경)		
	4	유강대교 (조류서식지)		
형산강 중류권	5	부조정(풍광)		
	6	부조장터		
	7	양동마을		
	8	옥산서원 / 독락당		
경주권	9	금장대		
	10	보문호(너울교)/북천		
	11	월정교		
	12	통일전/서출지		
	13	포석정		
	14	삼릉/솔숲		

♣ 대단히 감사합니다 ♣

5-3. 설문조사 결과

◇ 경주시 문화재해설사, 대학생, 대학교수: 123명

구분	1-영일대	2-동빈부두	3-포항운하	4-유강대교	5-부조정	6-부조장터	7-양동마을	8-옥산서원	9-금장대	10-보문호	11-월정교	12-통일전	13-포석정	14-삼릉
응답자	92	53	94	20	42	15	115	102	87	95	97	73	65	76
비율 (%)	75	43	76	16	34	12	93	83	71	77	79	59	53	62
순위	6		5				1	2	7	4	3			8

◇ 포항시 문화재해설사, 대학교수: 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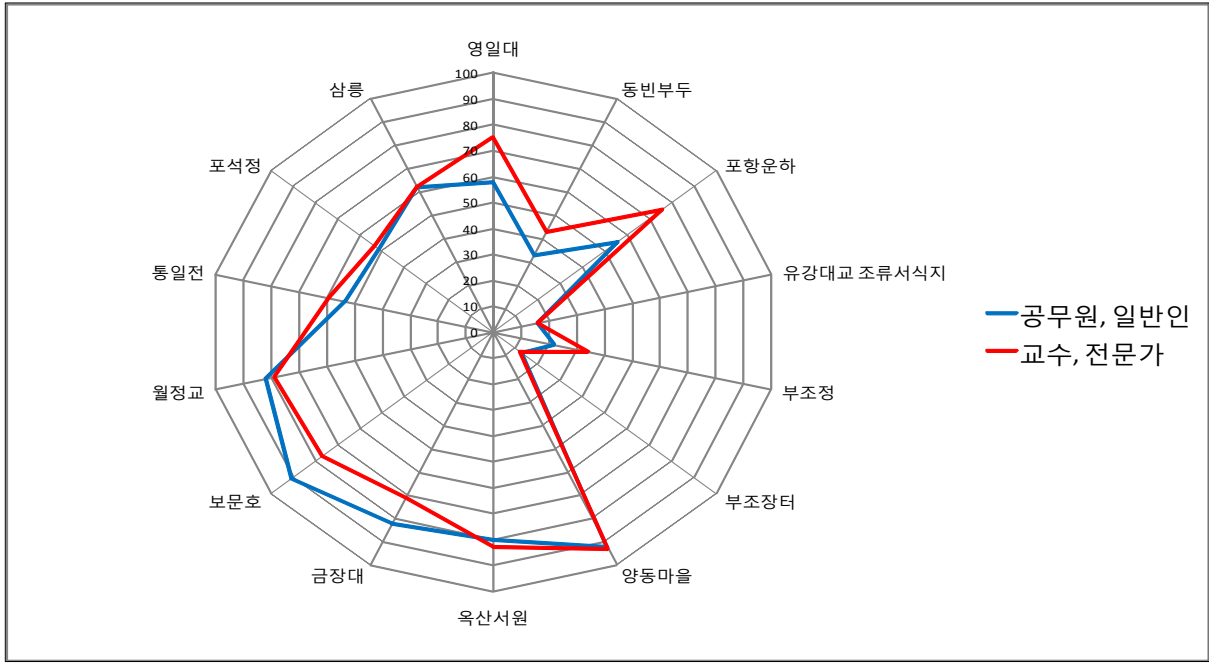
구분	1-영일대	2-동빈부두	3-포항운하	4-유강대교	5-부조정	6-부조장터	7-양동마을	8-옥산서원	9-금장대	10-보문호	11-월정교	12-통일전	13-포석정	14-삼릉
응답자	28	21	28	11	15	6	30	15	22	12	24	17	9	19
비율 (%)	85	64	85	33	45	18	90	45	67	36	73	52	27	58
순위	2	6	2				1		5		4	8		7

◇ 경주시 공무원, 일반인 : 2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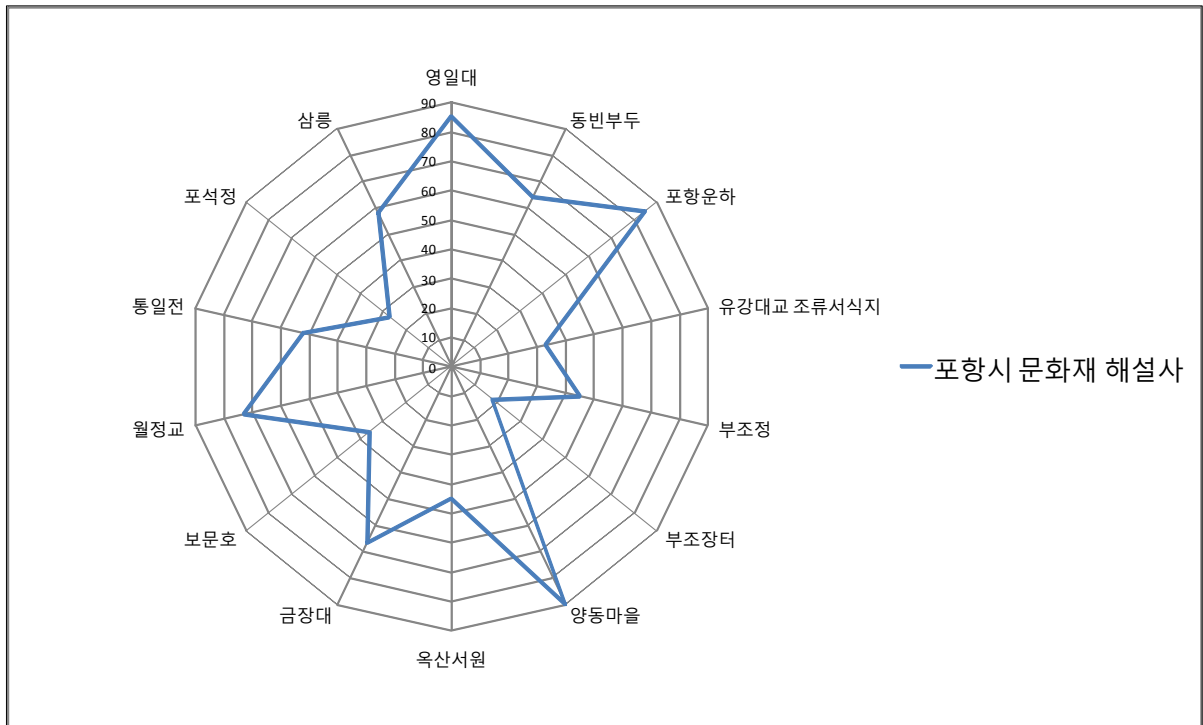
구분	1-영일대	2-동빈부두	3-포항운하	4-유강대교	5-부조정	6-부조장터	7-양동마을	8-옥산서원	9-금장대	10-보문호	11-월정교	12-통일전	13-포석정	14-삼릉
응답자	130	74	125	35	48	28	206	178	183	203	182	119	114	138
비율 (%)	58	33	56	16	22	13	92	80	82	91	82	53	51	62
순위	7		8				1	5	3	2	4			6

◇ 포항시 공무원, 일반인 : 3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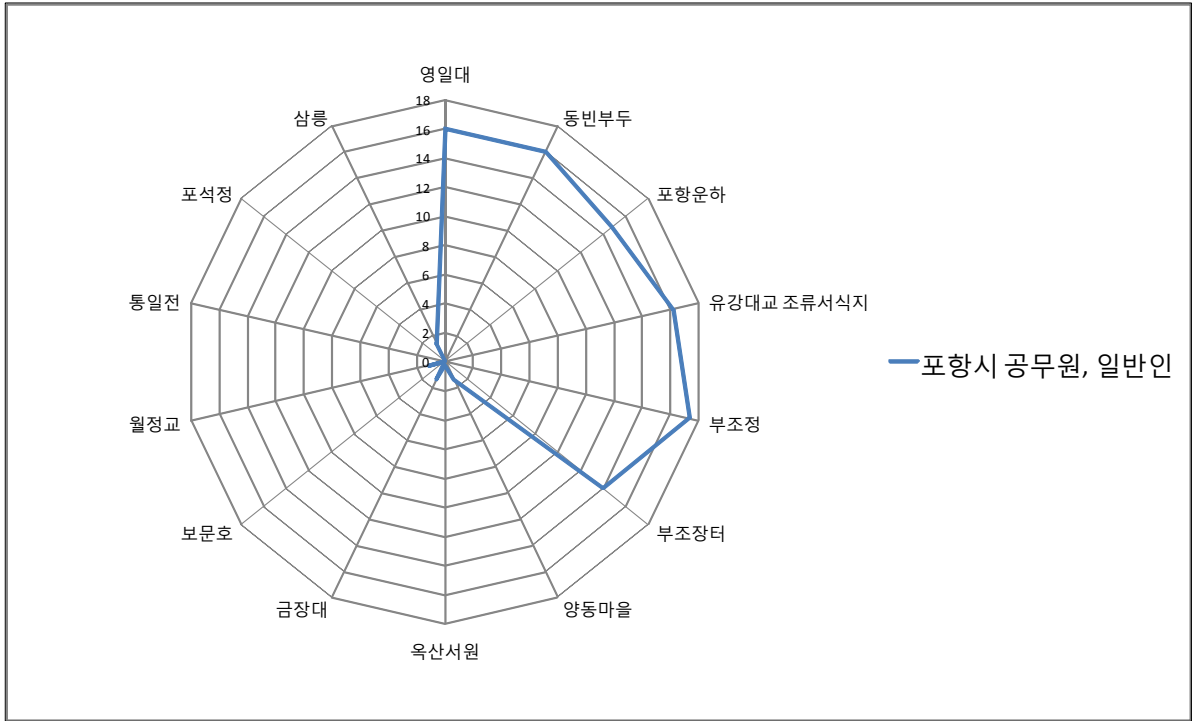
구분	1-영일대	2-동빈부두	3-포항운하	4-유강대교	5-부조정	6-부조장터	7-양동마을	8-옥산서원	9-금장대	10-보문호	11-월정교	12-통일전	13-포석정	14-삼릉
응답자	57	57	53	58	62	50	5	1	5	0	4	0	0	5
비율 (%)	16	16	15	16	17	14	1	0.3	1	0	1	0	0	1
순위	3	3	5	2	1	6	7		7					7



<경주시 설문조사 분포 비교도>



<포항시 문화해설사 대학교수 설문조사 분포도>



<포항시 공무원, 시민 판넬 투표조사 분포도>

- 설문조사는 서면조사와 온라인설문조사, 보드를 통한 투표조사를 통해서 형산강팔경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함
- 문화재해설사를 비롯한 전문가, 교수들에게는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두 도시의 공무원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설문조사, 보드투표조사를 실시했음
- 서면 설문조사에는 전문가와 교수 158명이 참여했고, 온라인 설문조사와 보드를 통한 투표조사에는 580명이 참여했음
- 그리고, 경주시 5명, 포항시 5명 모두 10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토의를 거침

5-4. 자문위원회 의견

자문위원단 - 포항지역 : 김춘식(포스텍 교수), 김준홍 (포항대학교 교수)
 서병철(한동대학교 교수), 이준택 (경상매일신문사 부사장)
 류영재(포항예술인총연합회 회장)

- 경주지역 : 박종희(동국대학교 교수), 김상구(동국대학교 교수),
 황정환(동국대학교 교수)
 송덕곤(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원 연구위원),
 권영만(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회의 진행>

-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가 포항과 경주지역별 편차가 크나 전문가와 문화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비교적 유의성이 있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오늘 자문회의의 의견이 매우 중요함
- 형산강 경관구 지정에 있어 8경 선정은 두 도시의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 하므로 10경 선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경관구 지정에 너무 범위를 넓게 잡으면 복잡해지고 현대인은 단순한 것을 선호 하므로 8경을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일대를 형산강8경에 포함 시키는 것은 형산강과 거리가 멀고 연관성이 약하므로 제외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일대를 형산강8경 후보지에 포함시킨 것은 북부 해수욕장이 과거 형산강 하구 물길과 연결되어 있는 역사성을 고려하여 포함 시킨 것으로 타당성 있으며, 최근에 포항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설문 조사와 전문가 자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포항지역의 영일대와 포항 운하, 부조정 중간지역으로 양동마을, 경주지역의 금장대, 너울교, 월정교, 삼릉솔숲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5. 형산강팔경 선정

1) 선정을 위한 설문 및 자문의견 종합

- 설문조사는 서면조사와 온라인설문조사, 설문 판넬을 통한 투표조사에 있어 편차가 크게 나타남
- 특히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있어 포항과 경주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 전문가와 문화재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양도시 모두 비교적 유의성이 있는 결과가 나왔음
- 설문조사 결과를 단순 통계 처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형산강 경관구 지정에 있어 너무 범위를 넓게 잡으면 복잡해지고 경관구 지정에 특징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8경을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형산강팔경의 시작은 형산강 하구 옛물길의 역사성을 고려하고 최근에 포항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영일대가 바람직함
- 설문 조사와 전문가 자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포항지역의 영일대와 포항 운하, 부조정, 중간지역으로 양동마을, 경주지역의 금장대, 너울교, 월정교, 삼릉솔숲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경관구 최종 선정 결과

- 이상과 같이 두 번의 설문조사, 한 번의 자문위원단 회의, 두 도시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형산강팔경을 선정함
- 최종적으로 ‘포항시가지권’ 2개소, ‘형산강중류권’ 2개소, ‘경주시가지권’ 4개소가 선정되어 총 8개의 경관구가 선정됨
- 각 권역별로 나타낸 전체 후보지역, 1차 선정지역, 2차 최종 선정지역은 다음과 같음

권역	순서	전체 후보지역	1차 선정지역	2차 최종 선정지역	형산강팔경 명칭
포항 시가지권	1	영일대	√	√	迎臺屹立
	2	동빈나루	√		
	3	포항운하	√	√	彩船流水
	4	섬안큰다리			
	5	유강대교 (철새도래지)	√		
형산강 중류권 (부조장터/ 양동마을)	6	부조정	√	√	兄江無邊
	7	부조장터	√		
	8	양동마을	√	√	星羅古宅
	9	옥산서원 / 독락당	√		
경주 시가지권	10	갑산사지			
	11	백담			
	12	금장대	√	√	金藏淸曠
	13	너울교[보문호]	√	√	普門虹橋
	14	월정교	√	√	蚊川樓橋
	15	경북산림환경연구원 (동남산, 낭산)			
	16	서출지/통일전	√		
	17	포석정	√		
	18	삼릉솔숲	√	√	三陵枉松

○ 〈형산강팔경〉 최종 사자명칭(四字名稱)

형산강팔경			
1경	迎臺屹立(영일대)	5경	金藏淸曠(금장대)
2경	彩船流水(포항운하)	6경	普門虹橋(보문호너울교)
3경	兄江無邊(부조정)	7경	蚊川樓橋(월정교)
4경	星羅古宅(양동마을)	8경	三陵枉松(삼릉솔숲)

6. 기존 관광자원과 팔경 연계방안

6-1. 각 경관구별 방안

1) 1경 迎臺屹立 영일대에 우뚝 솟은 누각

● 영일대

- 포항바다 해상누각에서의 해맞이와 달맞이의 느껴움, 그리고 도시와 공단의 야경이 만들어주는 낭만을 느끼기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임
- 피서철의 해수욕객이 랜드마크로 인식할 수 있는 위치이며 또한 각종 축제문화를 체험하기에 유리한 전망점의 역할을 겸하고 있음



※ 제5회 전국한시지상백일장 수상작(시제: 登迎日臺有感 영일대에 올라)

迎臺屹立是吾東 영일대가 높이 우리 동해에 우뚝 서있어
 於此登臨感歎同 이곳에 오르니 감탄하는 마음 같더라
 猶勝岳樓彫刻術 (누각은) 악양루 조각 기술보다 오히려 뛰어 나고
 還鮮麒閣畫工功 기린각 화공의 공보다 더욱 선명하도다
 簷前鏡水含明月 처마 앞 맑은 물은 밝은 달을 머금었고
 檻外青山送好風 난간 밖의 청산에는 좋은 바람 보내오네
 大海茫茫看不盡 망망대해를 다 볼 수 없어
 賞人騷客興無窮 상인소객이 흥을 다할 수 없구나(차상, 정영애)

迎日瑤臺浦項東 영일요대를 포항 동해에 지었으니
 煙霞韻致迥無同 연하운치 이보다 더 나은 누각은 없네
 還明滕閣畫工術 등양각의 화공보다 도리어 더 밝고
 猶勝蘭亭彫刻功 난정 조각의 공보다 오히려 더욱 좋네
 檻外千山增淑氣 누각 밖의 산들엔 맑은 기운 더하고
 簷前大海起和風 처마 앞의 바닷물엔 온화한 바람이 일어나네
 連天積水茫茫闊 하늘과 맞닿은 망망한 물은 넓고도 넓어
 仙界奇形詠不窮 선계의 기이한 형태를 시로써 다할 수 없구나(차하, 신복균)

- 한시번역은 작자의 해석을 연구자가 교정, 운문하였음

- 영일만의 영일대해수욕장에 세워져 있는 해상누각
- 영일대 누각(이하 영일대)은 바다 위에 세워진 누각으로 영일만의 아름다움을 바다 위에서 만끽할 수 있는 곳임
- 영일만은 백암산에서 비롯된 형산강의 물줄기가 흘러들어 바다와 만나는 마지막 지점이며, 바다로부터 내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함
- 이곳은 고려초에 ‘해맞이’, ‘해돋이’의 의미로 ‘영일’이라 이름지어질 때부터 영일만은 바다 너머로부터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해맞이의 명소였음
- 영일대의 조성으로 ‘해와 달의 도시’라는 포항의 정체성에 걸맞게 햇살가득 머금은 바다와 달빛 머무는 물결, 더불어 포스코의 야경과 도시 불빛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포항의 새로운 관광명소임

● 주변관광지

☞ 환호해맞이공원



- 환호해맞이공원은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북쪽으로 1km정도 떨어져 있음. 영일대에서 환호공원까지는 해변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음
- 공원에는 전망대를 비롯해서 물의공원, 중앙공원, 해변공원, 체육공원 등 6개의 테마공원과 포항시립미술관이 있음

[여섯가지 주제의 소공원]

- ▶ 중앙공원 - 대폭포, 잔디광장, 프로그램분수, 막구조, 바람개비동산, 팔각정자, 전시벽, 열주, 꽃시계 등
- ▶ 물의공원 - 벽천, 지도분수, 소공연장
- ▶ 해변공원 - 해안선을 바라보며 공연할 수 있게 조성된 야외공연장, 전망대, 정자, 맨발지압로, 파고라
- ▶ 전통놀이공원 - 산책로와 체력단련 시설
- ▶ 체육공원 - 시민들의 심신단련을 위해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
- ▶ 어린이공원 - 다양한 놀이시설과 광장, 우리꽃 야생화동산



<환호해맞이공원 전망대>



<환호해맞이공원과 해수욕장, 포스코야경>

● 경관구와 주변관광지와의 연계



- 영일대는 영일대해수욕장과 주변에 환호공원[환호해맞이공원], 동빈내항, 그리고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죽도시장과 산책로[자전거산책길]로 연결되어 있음
- 영일대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가 1.7km, 너비 40-70m에 달하는 해수욕장으로 최대 높이 120m까지 물을 뽑는 고사분수가 해상 250m지점에 설치되어 있어 여름 해수욕장의 또 다른 볼거리임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조형물>



<포항국제불빛축제(영일대해수욕장)>

- 또한 이곳에서는 포항물회를 비롯한 회타운과 포항국제불빛축제와 포항바다국제공연예술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과 포항해변마라톤이 개최됨



<동빈내항 주변 설치예술 모습,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bonitosdias>>

- 영일대에서 남으로 1km 정도 울릉도여객선터미널과 영일만의 내항인 동빈내항, 그리고 죽도시장이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음

● **경관구 선정에 따른 새로운 관광코스개발**

[테마코스1] 영일만 드라이브 코스

코스 : 영일대해수욕장[영일대] ⇒ 환호해맞이공원 ⇒ 포항시립미술관 ⇒ 선사시대 화석 유적지

- 도시 속에서 해변의 낭만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해변드라이브 코스
- 영일만해변 드라이브코스는 주말 포항의 명물인 ‘물회’와 신선한 ‘생선회’와 함께 시원한 바닷바람과 바다 내음을 맡으며 자전거를 이용해 영일만 해변을 달릴 수 있는 코스임.
- 이 코스는 바다를 지니고 있는 포항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도시의 삶 속에서 가뒹두었던 여유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낭만의 해변길임
- 더불어 이 코스는 환호해맞이공원의 6가지 테마와 미술관을 만날 수 있는 코스이며, 선사유적인 화석을 만날 수 있는 코스임
- 해상누각이 주는 낭만과 영일만의 아름다움, 그리고 청정한 바다 위에서 만나는 선사 유적지, 해변산책과 자전거 드라이브, 느림 속의 철학을 느껴보기에 좋은 코스로 스토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 있음

【테마코스 2】 죽도시장 탐방 프로그램

프로그램 : 포항의 먹거리를 찾아서
영일대해수욕장[영일대] ⇔ 죽도시장

- 죽도시장은 동해안 최대 어시장으로 경매광경이나 고래고기와 같은 해안의 특산물을, 그리고 포항음식을 만날 수 있는 보고임
- 이 프로그램은 영일대와 환호해맞이공원, 그리고 죽도시장, 그리고 포항운하, 송도해수욕장이 연계되어 있는 곳으로 먹거리와 볼거리가 함께 연계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죽도시장 탐방 프로그램: 포항의 먹거리를 찾아라

2) 2경 彩船流水 운하물길을 따라 흐르는 배

● 포항운하

- 배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르며 즐길 수 있는 유람선 여행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 포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경관구
- 예전 개발이전 포항의 오도(송도, 죽도, 해도, 상도, 대도)가 만들어 준 형산강의 물줄기를 복원하여 도심형운하로 만들어 동빈내항과 송도해수욕장을 유람선으로 다닐 수 있는 곳임



滄溟一派滙爲淵 푸른 바다 물결모여 영일만이 되었는데,
 十月靑魚箇裏偏 시월에 청어떼 돌아와 바다에 가득하네.
 若也丑寅風勢順 만약 동북풍 기세가 순조롭다면
 薦新冬至定無愆 동지천신 진상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퇴당집』 「오천고사」, 〈注津〉)

- 포항운하는 형산강과 동빈내항에 생명의 물길을 다시 잇는 생태환경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전체 1.3km구간에 개발한 도심속 관광레저형 운하로 수변공원, 무대, 수상카페, 분수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음



- 포항운하는 포항운하관에서 출발하여 동빈내항을 지나 송도해수욕장을 돌아오는 코스임.

● 주변관광지

- ☞ 동빈내항과 죽도시장



동빈내항에 정박중인 함포돛배의 모습 (1920년)

'浦項'이란 항호는 포항의 대흥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형산강의 하류이자 지류로서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칠성강의 중요지점을 나타내는 우리말 지명인 갯메기(갯미기:표준말은 갯목)의 한자화로 이루어졌다.

- 포항문화원 -

포항(浦項)은 형산강이 영일만에 이르러 갈라진 칠성강의 목이 되었다는 의미의 순우리말 이름인 갯메기를 한자화 한 것이다. '개'는 '물가'라는 뜻이며, '메기'는 좁은 지형을 의미하는 '목'에 대한 이 지역 말이다.

- 국토지리정보원 -



- 동빈내항엔 과거 형산강의 물길이 영일만과 만나는 지점에 주진(注津)이 있었고, 어떠한 태풍이 와도 선박에 피해가 없을 정도의 항구였음
- 동빈내항은 조선 영조 때 백성을 구휼하던 곡물창고, 경상감사 조현명의 애민정신으로 1732년 포항 창진으로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동해안 최대의 수산시장이며, 함경도까지 곡물을 전한 곳임. 포항항의 어획량은 당시 전국에서 손꼽혔으며, 특히 청어가 많이 잡혔고, 이를 조정에 진상하였음
- 동빈내항이 위치하고 있는 죽도(竹島)엔 동해안 최대 어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말마다 해산물을 먹고 사기 위한 관광객들로 붐빔
- 조선 시대의 죽도는 화살대로 사용되었던 대나무 숲이 있던 곳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지 않았던 곳임. 예전 죽도는 염전과 함께 갈대가 우거진 늪지대가 펼쳐져 있던 곳으로 퇴당의 시 양질의 화살대를 만든 죽도의 풍광의 아름다움과 외적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애썼던 흔적이 남은 곳임
- 영일현 북안으로 굽이쳐 흐르는 형산강과 대숲 우거진 죽도와 죽도 동편 해안을 끼고 소나무가 우거진 송도 등의 경치를 두고 절경으로 묘사했음
- 포항으로 유배온 남인의 거두인 퇴당 유명천은 죽도를 <영일십경(迎日十景)>으로 지정하였음
 - ※ 영일십경: 1경 寅賓堂, 2경 烏川書院, 3경 日月池, 4경 五魚寺, 5경 大松亭, 6경 大嶼臺, 7경 礪石窟, 8경 鋪子市, 9경 注津, 10경 竹島)

山海扶輿秀氣清 산과 바다기운 어우러진 빼어난 정기가
 江南竹箭稟全精 강남땅 대화살에 정미로운 기운 부여했네.
 島中幾歲勤封植 이 섬에 몇 년이나 부지런히 대나무 심었나
 包裹千章上兩營 천개 씩 화살대 싸서 두 군영에 바친다.
 (『퇴당집』 「오천고사」, 〈竹島〉)

滄溟一派滙爲淵 푸른 바다 물결모여 영일만이 되었는데,
 十月靑魚箇裏偏 시월에 청어떼 돌아와 바다에 가득하네.
 若也丑寅風勢順 만약 동북풍 기세가 순조롭다면
 薦新冬至定無愆 동지천신 진상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퇴당집』 「오천고사」, 〈注津〉)



<동빈내항 해양수산청(1967), 동빈내항의 황포돛단배 모습(1966), 출처:
<http://innerharbor.ipohang.org/>>

● **경관구와 주변관광지와의 연계**

- 포항운하관을 중심으로 북으로 동빈내항을 따라 죽도시장, 동빈나루, 영일대해수욕장이 있으며, 남서로 형산강 강변길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져 있으며, 형산강체육공원과 포항야구장 등이 있음



- 포항운하관 주변인 형산강 둔지에서 해마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리며, 포항운하축제가 개최됨. 포항운하축제에는 별난방티(이색창작배)대회를 비롯해서 물방티(방티타고달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외에도 근로자가요제, 울릉도독도 포크락페스티벌, 문화대상,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등도 포항운하를 중심으로 개최됨



형산강변 국제불빛축제



동빈나루 직물



동빈부두 야경

- 이외 동빈내항엔 포항함이 안보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고, 산책로 조성으로 동빈내항과 죽도시장, 포항운하를 연결하고 있고, 산책길에 조각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실개천을 만들어 놓았음

- 경관구 선정에 따른 새로운 관광코스개발

[테마코스 1] 영일만[호미반도] 연안 크루즈 여행

코스 : 포항운하 ⇒ 동빈내항 ⇒ 호미곶 ⇒ 석병 ⇒ 삼정 ⇒ 구룡포항



<여지도(18세기 제작), 팔도지도(1778년 제작)>

- <여지도>와 <팔도지도>를 통해서 볼 때 영일만항에서 출발하는 바닷길이 있었으므로, 영일만과 송도해수욕장을 운행하고 있는 포항크루즈를 호미반도를 관광할 수 있는 영일만[호미반도]연안크루즈로 확장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동빈내항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는 포항크루즈가 외지인들의 관심을 박도 있는 관광

상품이므로 코스를 확장하면서 좀 더 다양한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영일만을 중심으로 구룡포항까지는 과거에도 운행이 되던 바닷길이므로, 바닷길 복원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 있는 육지길의 교통란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음.

【테마코스 2】 죽도어시장 테마길

테마 프로그램 : 어시장 경매 및 포항음식 탐방(고래고기 등)

※ 영일대와 연계하는 테마코스

- ‘도심 속에서 숨은 유적 찾기 자전거 코스’와 같은 자전거를 통해 포항운하-동빈내항-영일대-환호해맞이공원-선사유적[화석] 등지를 연결하는 연계형 드라이브
- 죽도시장 탐방[들여다보기] 프로그램 운영
: 죽도시장의 어시장 경매 광경에서부터 죽도시장 먹자골목 탐방 등을 프로그램화

【테마코스 3】 동빈내항 구곡 조성

동빈구곡 : 1곡 칠성천, 2곡 아트로드, 3곡 죽도시장, 4곡 포항함, 5곡 동빈대교, 6곡 동빈나루, 7곡 여객터미널부근, 8곡 송림숲, 9곡 송도해수욕장



- 포항의 5도와 관련한 이야기와 함께 운하의 개발과정과 동빈내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화하여 동빈내항의 굵이굵이에 장소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동빈구곡 : 1곡 칠성천, 2곡 아트로드, 3곡 죽도시장, 4곡 포항함, 5곡 동빈대교, 6곡 동빈나루, 7곡 여객터미널부근, 8곡 송림숲, 9곡 송도해수욕장

3) 3경 兄江無邊 부조정에서 바라보는 형산강의 가없음

● 부조정

- 부조정은 형산강 전 구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형산강의 물줄기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며, 형산강 전역에서 사람과 물산, 자연이 이어지던 소통의 공간임

魚蝦雜選漲腥塵 물고기 새우 등 어물 뒤섞여 비린내 진동하고
 買舶商車溱四隣 상선과 장사꾼 수레 사방에서 몰려드네.
 忽見市傍珠錯落 문득 시장 주변 진주조개 나뿜구는 걸 보니
 夜來應有過鮫人 밤사이 응당 수많은 어부들이 다녀갔음을 알겠네.
 (『퇴당집』 「오천고사」, 8경 〈鋪子市〉)



- 부조정은 형산강의 전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경관구로서 동해로 떠오르는 일출과 월출의 아름다움과 드넓게 펼쳐진 형산강하구와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조망 포인트임
- 이곳은 형제산과 운제산을 이어주는 곳이며, 부조정-옥녀봉-중명생태공원을 이어주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연일생태숲을 즐길 수 있는 곳임
- 부조정이 있는 이곳은 조선시대에 부조장터가 있던 곳임. 부조장터는 퇴당 유명천의 시에 ‘포자시’라고 하여 〈영일십경(迎日十景)〉 중 하나로 선정하였음

※ 영일십경: 1경 寅賓堂, 2경 烏川書院, 3경 日月池, 4경 五魚寺, 5경 大松亭, 6경 大嶼臺, 7경 礪石窟, 8경 鋪子市, 9경 注津, 10경 竹島

- ◆ 포자시는 포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포항창이 만들어진 뒤부터 더욱 각광을 받았음.

동해안과 영일만에서 산출된 다양한 물고기와 건어물, 그리고 형산강 유역의 기름진 전답에서 생산된 오곡과 인근 과수원과 산야에서 나오는 과일들과 백성들의 일상용품이 넘쳐나는 시장이었음.

- ◆ 형산강을 통해 올라온 상선과 육로를 통해 집결한 달구지와 남부여대한 행상과 물건을 구입하려는 수많은 사람들, 저자가 설 때마다 운집하는 풍각쟁이와 건달, 그리고 술파는 유녀 등으로 혼잡을 이룬 부조장터의 모습을 퇴당은 시로 노래하고 있음

● 주변유적지

☞ 양동마을

- 대상지와 직선거리 4km에 위치한 유서 깊은 조선시대 양반마을
- 조선시대 많은 선비들이 형산강에서 양동마을을 지나며 <양동구곡>을 비롯한 많은 시를 남김
- 양동구곡에 당시 나루와 장터 관련 기록이 전함
-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알려져 일평균 2,000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외적 인지도와 경쟁력을 지닌 관광명소이다.



☞ 동강서원

- 우재 손중돈을 배향한 서원으로 대상지와 직선 600m에 있음
- 2010년 양동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정비가 잘되어 있으나 양동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점과 인근 옥산서원에 비해 지명도가 떨어져 독립적인 관광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양동마을을 찾은 관광객 중 극히 일부만 가끔 찾는 곳으로 독립적인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부조장터 공간의 복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왕룡사

- 형산 정상부(267m)에 있는 절.
- 신라마지막임금인 경순왕과 관련한 설화가 전하는 곳.
- 사찰[유적지]로서의 역할보다는 형산강을 한 눈에 내다 볼 수 있는 뛰어난 조망으로 사랑을 받는 곳으로 전국의 사진애호가들이 찾는 유명한 출사지
- 형산의 산중턱에 있는 활공장은 항공스포츠와 산악 자전거 동호인들 즐겨 찾는 곳



☞ 안계댐

- 대상지에서 직선거리 3km에 위치, 기계천의 지류인 안락천의 발원지
- 유역 면적 67km², 홍수위 44.97m, 만수위 43.9m, 저수위 31m이고, 저수 총량 1,770만m³이며 유효량 1,300만m³으로 포항공업단지의 공업용수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를 공급
- 사시사철 넓은 수변의 풍광이 아름답고 수변길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철새들의 도래지로 유명하여 많은 탐조객들과 라이딩동호회원들이 즐겨 찾는 명소임
- 안계댐의 물은 안락천을 통해 양동마을을 지나 기계천으로 합류하고, 유금천을 통해 유금리를 지나 동강서원 앞 형산강으로 합류하기에 양동마을과 부조장터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 **중명생태공원**

- 포항시 연일읍 중명리 계곡 98.9ha에 2012년 12월 완공한 도심 휴식처로 주말 평균 1,000여명의 관람객 방문
- 갈대원, 야생화 관찰원, 향기원, 약용식물원, 소생물관찰원 등 생태학습 체험시설과 정상 전망대 등이 조성되어 있음
- 공원 주변 산책길[둘레길,산악길]이 잘 조성되어 있음
- 중명생태공원으로 가는 길목인 형산강 강변로 주변에는 사시사철 다양한 철새들을 탐조할 수 있어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새로운 관광명소임



- 경관구 선정에 따른 새로운 관광코스개발

[테마코스 1] 연일대교-양동마을 구간 형산강 둘레길

주요 유적 및 산책로 : 부조장터길 ⇒ 형산강상생물길 둘레길 ⇒ 동강서원



<연일대교-양동마을 구간 형산강 상생물길둘레길, 출처:
포항경주공동상생역사문화자원사업방안, 2015.>



<형산강 생태탐방로 계획>

[테마코스 2] 원효화쟁길



- 포항과 경주를 이어주는 산악길. 원효와 혜공, 그리고 대안 스님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함
- 형산강의 물길을 따라 두 도시의 네트워크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물길에 이은 산악길을 조성
- 부조장터를 내려다 보는 부조정에서 출발하여 중명생태공원 -> 운제산 -> 오어사 -> 무장봉 -> 덕동호 둘레길을 가는 코스임

- 이 산악길은 원효 스님이 오어사에 있던 혜공대사와 대안스님에게 불법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다니던 길로 원효의 화쟁사상이 정립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길임
- 덕동호 둘레길은 풍광의 아름다움과 함께 덕동호에 묻힌 고선사지와 관련한 이야기인 원효와 사복의 인간삶의 의미에 대한 문답이 서린 길이기도 함
- 또한 무장봉, 무장사지는 삼국통일 후 문무왕이 이곳에 병기를 묻으며 전쟁의 부질없음을 실천으로 보여준 곳이기도 함
- 이곳은 삼국통일 이후 혼란하던 신라를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던 신문왕의 고민이 담긴 신문왕 행차길인 왕의길과 연결할 수 있기도 함

【테마코스 3】 구곡선비길

코스 : [형산강 부조장터(윗부조)], 동강서원 ⇒ 양동마을 ⇒ 구강서원 ⇒ 옥산마을 옥산서원 ⇒ 독락당

- 이 코스는 윗부조장터 지역이며, 동강서원이 있는 곳에서 양동구곡이 시작되므로 동강서원에서 양동마을까지의 ‘양동구곡’길을 조성하고 양동마을에서 옥산서원까지의 옥산구곡길을 조성하면서 선비구곡길을 조성하여 양동마을과 옥산세심마을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이 코스는 회재 이언적 선생이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기던 곳이며, 학문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녔던 곳이기도 함
- ※ 양동마을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임

4) 4경 星羅古宅 하늘의 별처럼 늘어서 있는 양동고택의 풍경

● 양동마을

- 조선조 유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은 양동마을과 옥산서원을, 그리고 독락당을 방문해 시를 남기기도 했고, 그 후학인 서애 유성룡 선생은 양동마을과 옥산서원을 방문하면서 신선이 사시던 마을이라 하기도 하였음
- 동악 이안눌 선생을 비롯해 수많은 선비들의 방문이 이어졌음. 이는 양동마을이 지니는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함



天地東頭降嶽靈 하늘땅 동쪽머리에 산악의 신령스러움이 내려와
 集成金玉始終淸 금과 옥이 모두 모였으니 처음도 마침도 푸르도다.
 孔之闕里顏子巷 공자가 사시던 마을이요, 안자가 사시던 거리여서
 賢祖賢孫世有聲 훌륭한 조상에 어진 후손이 대를 이어 이름 드높구나.
 (조우의의 <양동구곡> 중 <서시>)

-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동쪽마을이고 전형적인 양반마을로 안동의 하회마을과함께 마을전체가 1984년에 국가 지정 문화재(중요 민속 자료 제189호)로 지정되었고, 2011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 양동마을은 뒤로 설창산(雪蒼山)의 종주봉(宗主峰)을 등지고, 앞으로는 성주봉(聖主峰)을 바라보면서 물(勿)자 형의 지세에 따라 물봉(勿峰), 내곡(內谷), 거림(居林), 하촌(下村)으로 마을이 이루어져 있으며, 남쪽으로는 형산강(兄山江)이, 서쪽에는 죽장(竹長)·기계(杞溪) 방면에서 흘러오는 안락천(安樂川)이 흐름
- 양동마을은 600여 년 동안 손(孫)·이(李) 양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대를 이어 가며 살아옴
- 양민공(襄敏公) 손소(孫昭)와 경절공(景節公) 우재(愚齋) 손중돈(孫仲暉), 그리고 문원공(文元公)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선생을 비롯해 많은 선비 유학자들이 배출됨
- 마을에는 문과 24명, 생진과 74명, 무과 10명이 배출되었고, 국가지정문화재에는 국보 1점과 보물 4점을 비롯하여 중요민속자료 12점이 있고,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2점과 기념물 1점, 민속자료 1점, 문화재자료 1점이 있으며, 그밖에 향토문화재 2점이 있음
- 양동마을은 퇴계 이황 선생을 비롯해 서애 유성룡 선생, 동악 이안눌 선생 등 수많은

은 선비들이 방문했으며 많은 시를 남김

※ 양동구곡(良洞九曲) : 1곡 형산강(兄山江), 2곡 봉림대(鳳林臺), 3곡 정전도(井田渡), 4곡 행수정(杏樹亭), 5곡 무첨당(無忝堂), 6곡 설천정(雪川亭), 7곡 수운정(水雲亭), 8곡 사호도(沙湖渡), 9곡 설창현(雪蒼峴)

● 주변유적지

☞ 흥덕왕릉

- 신라 42대 왕인 흥덕왕의 무덤으로 사적 30호로 지정되어 있음
- 흥덕왕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두고 장보고를 대사로 삼아 해상권을 장악하였고, 당나라에서 차를 들여와 재배하도록 하였음
- 삼국유사 와력편에 “능은 안강 북쪽 비화 양에 있는데, 왕비 장화부인과 함께 매장했다”고 하였는데, 흥덕왕의 장화부인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한 설화가 전함
- 흥덕왕릉은 밑둘레 65m, 직경22.7m, 높이 6.4m가 되며, 능의 둘레에는 호석에 십이지신상을 새겼고, 그 주위로 돌 난간을 둘렀음. 네 모서리에 돌사자가 있고, 앞쪽에는 무인석과 문인석을 세웠음
- 흥덕왕릉은 능의 주변에 자라는 도래솔이 매우 아름다운 능이기도 함. 흥덕왕의 왕비에 대한 사랑과 함께릉의 규모나 아름다움으로 인해 많은 사진작가들이 찾는 곳이기도 함

☞ 구강서원

- 구강서원은 고려 후기 학자인 익재 이제현을 모신 곳으로 숙종 12년에 세워졌다 조선 고종 8년(1871)에 철거되었으며, 이후 광무 8년(1904)에 중건하였다가 1961년에 수리를 함
- 서원에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9호로 지정된 익재선생의 영정과 문집목판이 보관되어 있음
- 익재 선생은 벼슬이 문하시중까지 올랐으며 말년에는 실록을 편찬한 인물이며, 충숙왕 원년에 원나라에 갔었고, 원나라에서 충선왕이 모함을 받아 그 부당함을 밝혀 충선왕이 유배에서 풀려나도록 한 인물임
- 선생의 제자인 목은 이색 선생이 “道德之首 文章之宗”이라고 하여 선생의 학문과 인품을 기린 바 있음



☞ 옥산세심마을

- 옥산세심마을은 회재 이언적 선생이 어릴 적 학문하던 곳이며, 1531년 낙향한 후 조용히 학문하며 지내던 곳임
- 어릴 적 지내던 역락재를 고쳐 독락당이라 하고, 계정에서 산수를 벗삼아 학문함. 임거십오영을 짓고 지비음을 이곳에서 지음

11詠 溪亭(개울가 정자)

喜聞幽鳥傍林啼 숲 속 그윽히 앉아 지저기는 새소리 듣기만 해도 즐거워
 新構茅簷壓小溪 새로이 모옥을 지어 작은 개울 내려보네.
 獨酌只邀明月伴 홀로 술잔 기울이며 다만 밝은 달 맞아 짝하니
 一間聊共白雲棲 한 칸의 작은 공간으로 백운이 내려와 깃드네.
 (임거십오영 중 11영)

- 세심마을엔 독락당을 비롯해 옥산서원, 정혜사지 등이 있음

※ 옥산구곡(玉山九曲) : 제1곡 송단(松壇), 제2곡 용추(龍湫), 제3곡 세심대(洗心臺), 제4곡 공간(孔澗), 제5곡 관어대(觀魚臺) 제6곡 폭포암(瀑布巖) 제7곡 징심대(澄心臺) 제8곡 탁영대(濯纓臺) 제9곡 사암(獅巖)

제1곡 송단

一曲登壇宛坐船 첫구비 핫터 위로 배에 앉듯 어름치네
 下臨滾滾北來川 굽어보니 넘실넘실 위로 오(복)는 깊은 내가
 慾從入處探奇絕 좇아들어 찾은 길목 깎아지름 기이한데
 畝峯山腰帶夕煙 맞추어 산허리쪽엔 저녁노을 띄웠고나.
 (玉山九曲: 李鼎乘)



● **경관구 선정에 따른 새로운 관광코스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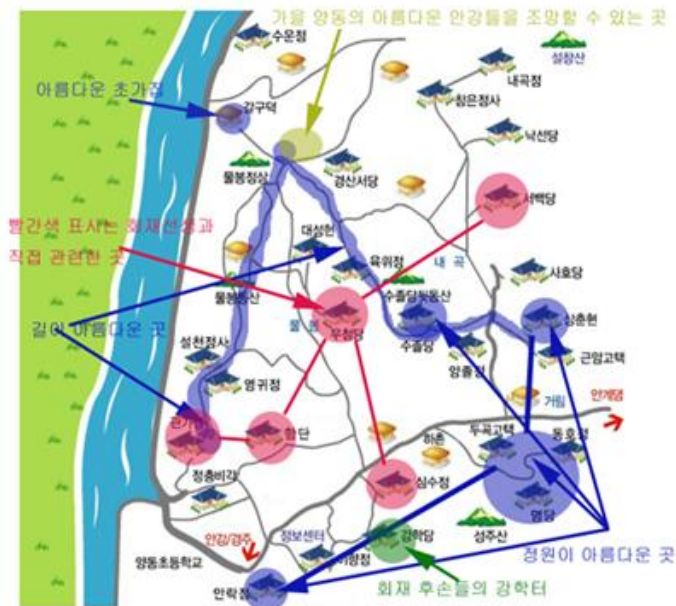
【테마코스 1】 양동마을 탐방코스

- 양동마을은 한국유학의 뿌리에 해당하는 마을로서 이기론의 출발점이기도 함. 이곳은 양민공 손소와 우재 손중돈, 회재 이언적 선생에게서 출발하여 600여 년 동안 선조의 학문을 이어내려오면서 마을을 유지한 후손이 살고 있는 정주형 세계유산마을임. 지금도 이 마을엔 관광객이 많지만, 예전 학문을 하던 선비들에게도 명현의 학문과 삶을 체득하고자 즐겨 방문하던 곳이기도 함
- 양동은 두 가문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을 하면서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으며, 마을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전승되어 온 ‘외손이 마을’이라는 특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알고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스토리로 마을 탐방하기는 도시민들에게 고향의 옛 모습을 줄 수 있는 코스임
- 기존코스는 골짜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 1코스(하촌): 안락정 ⇒ 이향정 ⇒ 강학당 ⇒ 심수정 (20분 소요)
- 2코스(물봉골): 무첨당 ⇒ 대성헌 ⇒ 물봉고개 ⇒ 물봉동산 ⇒ 영귀정 ⇒ 설천정사 (1시간 소요)
- 3코스(수졸당): 경산서당 ⇒ 육위정 ⇒ 내곡동산 ⇒ 수졸당 ⇒ 양졸정 (30분 소요)
- 4코스(내곡): 근암고택 ⇒ 상춘헌 ⇒ 사호당 ⇒ 서백당 ⇒ 낙선당 ⇒ 창은정사 ⇒ 내곡정 (1시간 소요)
- 5코스(두곡): 두곡고택 ⇒ 영당 ⇒ 동호정 (30분 소요)
- 6코스(향단): 정충비각 ⇒ 향단 ⇒ 관가정 ⇒ 수운정 (1시간 소요)

- 양동마을의 탐방코스를 골짜기 중심이 아니라 스토리 및 경관 중심으로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길이 아름다운 곳’, ‘정원이 아름다운 곳’, ‘초가의 원형을 만날 수 있는 곳’ 등 장소별 스토리를 설정하고 양동마을 분위기를 담은 카페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임
- 마을을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성주봉을 올라 양동마을의 전체를 이해 한 후 개별로 좋아 하는 테마를 따라 관람할 수 있도록 함

- 1코스 : 성주봉에서 두곡고택을 지나 설창산으로 가는 코스
- 2코스 : 성주봉에서 내려와 “관가정 ⇒ 물봉동산 ⇒ 물봉정상 ⇒ 경산서당 ⇒ 수졸당 뒷동산 ⇒ 상춘헌”코스 길이 아름다운 코스
- 3코스 : 정원이 아름다운 곳, 상춘헌 ⇒ 두곡고택 등



【테마코스 2】 구곡선비길(양동구곡+옥산구곡)

코스 : [형산강 부조장터(윗부조)], 동강서원 ⇒ 양동마을 ⇒ 흥덕왕릉 ⇒ 구강서원 ⇒ 옥산마을 옥산서원 ⇒ 독락당



- 이 코스는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유교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코스임. 선비의 구곡문화와 고건축의 아름다움, 서원의 강학기능 등을 모두 탐방할 수 있는 코스임
- 양동구곡의 시작점인 형산강 부조장터[동강서원]에서 출발하여 양동마을을 들르고, 이곳에서 기계천을 따라 올라가다가 흥덕왕릉, 구강서원, 그리고 옥산세심마을. 옥산세심마을의 입구는 옥산구곡의 시작점임. 이곳에서 구곡을 따라가며 옥산서원과 독락당, 정혜사지를 따라가는 테마형 관광코스
- 경주의 유교문화 탐방코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극 권유할 수 있는 한가로운 여행코스임
- 양동마을은 과거의 기본을 잃지 않은 채 꾸준히 시간을 중첩시켜온 소중한 전통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 옥산서원은 성리학자인 회재 이언적의 위패를 모시는 사액서원으로, 회재선생이 세상을 버린 후 1572년(선조5)에 경주부윤 이제민과 부근의 유학자들이 뜻을 모아 건립하였고, 1574년에 선조로부터 '옥산'이라는 이름을 내려 받았다.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도 무너뜨리지 않고 남겨둔 47개 서원 중의 하나
- 독락당은 이언적의 옛 집 사랑채. 1530년(중종 25)에 김안로와 대립하다가 관직을 놓고 내려와 자옥산에서 성리학 연구에 몰두한 선생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임 특히, 독락당은 담장에 살창을 내어 집 안에서 바깥쪽 개울을 내려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했던 주인의 의도를 읽을 수 있음
- 정혜사지 13층석탑은 자옥산(562m) 인근에 있는 정혜사터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은 회재 선생과 땀 수 없는 공간임. 이곳의 스님을 교우하여 토론하며 학문하던 청년기의 회재를 회상할 수 있음. 이 석탑은 경주에서는 보기 드문 13층석탑이기도 함

[테마코스 3] 호국순례길(임진왜란+6.25동란 지역)

코스 : 형산강[동강서원] ⇒ 양동마을 ⇒ 옥룡리 ⇒ 단구리 ⇒
기계새마을운동회관 ⇒ 덕동문화마을



-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테마는 임진왜란과 6.25동란과 관련한 테마임
- 임란 때 의병창의의 중심지이며, 6.25 형산강 도하작전의 현장인 형산강과 형산강의 지류인 기계천을 따라 이어졌던 전투의 상흔을 돌아보며 국가의 의미와 국가수호의 정신을 되새기는 코스
- 기계천을 따라 단구리, 다산리와 화봉리, 계전리, 그리고 비학산 등지는 6.25 전쟁 유적지임.
- 기북덕동문화마을은 아름다운 숲과 덕연구곡 및 팔경의 경관이 아름다운 곳임. 특히 용계정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농포 정문부의 별장이므로 호국의 의미와 함께 선비의 멋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곳임. 덕동문화전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5) 5경 金藏淸曠 맑고 탁 트이고 우뚝한 금장대

● 금장대

- 양동마을을 금장대는 경주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 있던 절 혹은 건물의 이름이었던 “금장(金丈)”을 따서 금장대라고 불렀음
- 그 경치가 빼어나 경주의 하늘을 지나가는 기러기들이 쉬었다 간다고 하여 경주의 여덟 가지 기이한 현상(三奇八怪) 가운데 하나인 금장낙안(金丈落雁)이라 불리워지던 곳이기도 함
- 예기청소(藝妓淸沼)가 금장대 아래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김동리의 단편소설인 <무녀도>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도 유명

金臺淸曠冠鷄林 금장대 맑고 탁트이고 계림에서 우뚝하여
 暇日登臨豁素襟 틈나면 올라 답답한 마음을 트이게 하네.
 袞袞長流包綠野 넓고 길게 흘러 푸른 들판 감싸고
 娟娟遠岵列瑤簪 예쁘고 멀리 골짜기는 올비녀처럼 별려있네.
 風歸麥壠蒼波亞 바람은 보리언덕을 돌아 푸른 파도 따르고
 露浥芳樽玉液斟 이슬을 머금은 향기나는 술통의 술을 기울이네.
 却下晴沙終晚景 하인을 물리치고 깨끗한 모래 위를 거닐며 오랫동안 풍경
 만끽하니
 一溪魚鳥揔知心 한 시내의 물고기와 새가 모두 내 마음을 아네.¹⁾
 (<금장대에서(金粧臺)> 정창주(鄭昌胄, 1606~1664))

- 금장대는 빼어난 경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적이 같이 공존하는 곳으로 금장대가 위치하는 구릉 전체는 고분군이며, 그중 도굴흔적이 잘 남아 있는 무덤이 남북 두 개의 봉우리 정상부에 각기 1개씩 있음
- 그리고 이곳엔 선사시대 인류가 남긴 최초의 기록이자 예술작품인 암각화를 비롯하여, 부처님에 대한 동경으로 공덕을 쌓고자 했던 금장사지, 그리고 화랑의 수련터, 조선시대 건물터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유적이 작은 한 공간에 모여 있음. 이러한 사실은 선사시대 때 주거지, 사리공양석상과 거북문석상, 임신서기석, 고인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금장대는 시대적인 패러다임에 따라 그 공간적인 의미가 달리 이해되어 왔는데,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면 이곳은 시인묵객들이 ‘금장낙안’의 풍광 속에서 신라의 흥망을 생각하며,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 삶의 부질없음을 인식하면서 과거를 통해 오늘

1) 『晚洲先生集』, 卷2, 七言四韻, <金粧臺 在月城西>

을 경계하던 공간이었음

- 또한, 이곳은 임진왜란 때에는 경주읍성을 수복하기 위한 정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왜군들이 부산을 통해 동해로 물러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던 곳이었으며,
- 경주의 넓은 평지에 가장 큰 물길과 물가에 자리한 구릉이 조합하여 만들어내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지니고 있는 금장대는 이런 다양한 문화적인 자취가 남아 있는 곳임

● 주변 유적지

☞ 암각화

- 암각화는 금장대의 남쪽 절벽에 있는데, 이 암각화는 선사시대 인류가 남긴 최초의 기록이자 예술작품으로 문자가 없던 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임
- 경주 석장동 암각화는 수직절벽 윗부분에 있는데, 세로 9m, 가로 2m 되는 바위 면에 추상적 상들이 음각되어 있다. 그림이 새겨진 바위면은 남쪽을 향하며 모두 6개 면에 새겨져 있으며, 바위그림을 새기기 위하여 수직면으로 다듬은 것으로 보임
- 새겨진 문양은 방패형, 어린아이 발자국, 동물 발자국, 인물, 배, 산, 동물 등이 새겨져 있으며, 청동기시대의 조각기법대로 그려진 인물상은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여성은 생식기만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탈, 산, 동물, 4사람이 탄 배 같은 문양도 보이는데, 특히 배에 사람이 타고 있는 모습은 청동기시대의 어로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암각화는 1994년 9월 29일 경상북도기념물 제98호로 지정되었음



☞ 절터(금장사지, 석장사지)

- 신라인들은 불교가 유입된 이후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 중 아미타신앙의 유행은 서방극락정토에 계신 아미타부처에게 정토왕생을 염원이었다. 그래서 불교는 신라인들에게 서방정토에 대한 정토왕생에 대한 인식을 심었으며, 금장대 공간이 있는 서천 너머를 정토로 인식하여 많은 절을 지어 공덕을 쌓게 하고 화랑들을 훈련시켜 미륵으로 화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했음
- 금장대 내에는 ‘금장사’로 구전되던 절터와, 금장리 기왓골에 위치한 금장리 절터, 양지스님의 혼이 깃든, 삼천불탑으로 더 잘 알려진 석장사지가 있음
- 석장사지는 옥녀봉 줄기인 해발95m의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이곳은 옛 석장사의 이름을 따라 석장동이라 부르고 있음. 석장사지의 입지는 ‘L’자형의 남형 지형으로 사지의 서편은 폭5m 가량의 계곡이 있고 배후와 동편은 암반층과 구릉지대로 되어있음.
- 석장사지의 석장은 “양지스님이 지팡이(錫杖) 끝에 시주할 포대를 걸어두면 그 지팡이가 저절로 날아다니며 시주를 받아왔다.”고 하여 이름 지어졌으며, 그래서 절 이름을 석장사로 불렀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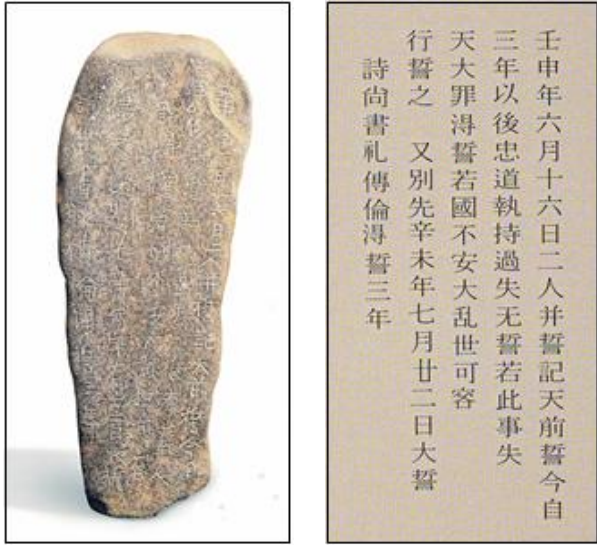


<석장사지 출토 탑상문전>

☞ 임신서기석

- 나라를 위해 충도를 행하겠다는 화랑의 맹세를 담은 임신서기석이 금장대에서 발견됨
- 임신서기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해 기록한다.
 하늘에 맹세한다. 지금부터 3년 이후에 충도를 지니고 과오가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 서약을 어기면 천신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맹세한다.
 만일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크게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모름지기 충도를 행할 것을 맹세한다.
 또한, 따로 앞서 신미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세하였다.
 즉, 시·상서·예기·전을 차례로 익히되 3년 이내에 이루도록 맹세하였다.”



☞ 송화방[금산재]

- 금장대에서 가까운 곳인 松花房[金山齋]은 화랑과 관련이 있으면서 불교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음
- 금산재[송화방]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중인 송화산 반가사유상이 발견된 곳임. 반가사유상은 대부분 미륵보살로 미륵신앙은 화랑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

“김씨댁 재매부인(財買夫人)이 죽으니 청연(靑淵)에 장사지내고, 이로 인하여 재매곡(財買谷)이라 불렀다. 재매부인을 장사지낸 후 해마다 봄철에는 한 종중(宗中)의 남자와 여자들이 그 골짜기의 남쪽 시내에 모여 크게 잔치했는데, 이때엔 온갖 꽃이 피고 송화(松花)가 골안 숲에 가득했다. 골짜기 어귀에 암자를 지어 송화방(松花房)이라 불렀으며 원찰(願刹)로 삼았다. 54대 경명왕(景明王) 때에 이르러 공을 추봉(追封)하여 흥무대왕(興武大王)이라 했다.”

- 송화방은 김유신의 부인으로 알려진 재매부인을 청연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등장하는데, 청연과 송화방, 김유신과 재매부인, 그리고 반가사유상은 ‘현신미륵’이 되고자 수련하는 화랑의 목표와 연결지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김유신장군묘

- 가야국 김수로왕의 12대 손으로 진평왕 때 15세의 나이로 화랑이 되고, 18세에 국선이 됨



- 삼국통일 후 태대각간에 올랐고 문무왕 13년(673)에 세상을 떠났음. 835년(흥덕왕 10)에 흥무대왕이 됨
- 삼국사기에 문무왕이 금산원에 장례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유사에 서산 모지사를 동향한 산에 묘가 있다는 기록이 있음

☞ 화랑마을(2017년 준공예정)

- 화랑마을은 2017년 준공예정으로 전시관, 교육관, 생활관등이 있으며, 어울림마당, 화랑무예체험관, 자연학습관, 생태숲길 등이 조성될 예정
- 화랑마을은 화랑정신과 문화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지녀야 할 도덕적 가치와 문화적 감수성, 모험과 개척정신 등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 경관구 선정에 따른 새로운 관광코스개발

【테마코스 1】 <금대팔영(金臺八詠)> 스토리텔링

- 금장대 공간의 여러 스토리를 활용하여 ‘금장대 팔영’을 선정하여 금장대 공간의 장소성을 강화하고 이곳을 문인들의 문예창작의 공간으로 활용
- <금대팔영>, 곧 금장대 지역에 얽힌 여덟 가지 이야기[노래]를 선정해서 금장대 공간마다에 얽힌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 금장대가 위치하고 있는 서천은 서라벌[경주,월성]의 서편으로 내세, 피안의 세계라

는 인식이 강하였으므로 지치고 서러움 많은 중생들이 공덕을 닦고 심신을 달래고 마음의 평화와 사후의 염원을 빌기 위한 공간



○ 금장대의 역사문화유적을 토대로 ‘금장대 팔영(안)’ 선정.

※ 금대팔영 : 1영 암각화, 2영 임신서기석, 3영 예기청소, 4영 석장사지 5영 금장사지, 6영 금장대전투 7영 금장영춘 8영 흥로영화

○ 화랑마을 조성 후 화랑마을과 연계활용

【테마코스 2】 화랑수련길

화랑수련길 : 금장대 ⇒ 금장대 팔영(암각화 등) ⇒ 동국대 뒷산길[등산로] ⇒ 화랑마을(예정) ⇒ 옥녀봉 ⇒ 김유신장군 묘 ⇒ 흥무공원 ⇒ 송화방[금산재] ⇒ 장군교

○ 금장대를 위시하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있는 공간은 화랑과 직접 관련 있는 곳임



- 금장대의 임신서기석과 김유신장군묘와 그 주변의 송화방, 그리고 흥무공원, 건립 예정인 화랑마을 등은 모두 화랑과 직접 관련이 있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뒷산으로 조성된 등산로는 예전 구미산으로 넘어가던 등산로였으므로 금장대에서 구미산까지 등산로를 만들고 금장대와 구미산을 산길로 연결하여 용담정을 대중 속으로 끌어 낼 필요가 있음

“선조 29년 2월 29일에는 김응택 의병군이 왜적을 격퇴하였다. 김응택은 금장대에 진치고 있던 왜적을 밤에 급습하여 3급을 참하고 사살한 적은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투 중 측근인 奴 千竹이 조총을 맞고 말았다. 千竹은 金應澤이 고향 九史 栢岩에서 金得秋, 金自平, 李元春, 金應瑞, 柳榮元 등과 창의할 때부터 김응택을 수행한 측근이었다. 김응택은 전투 중 급박한 상황에서도 천죽을 등에 업고 바로 뒤에 있는 구미산 속으로 가 그가 숨길 줄 알고 낙엽으로 몸을 숨겨 놓았다. 그러나 그가 숨을 쉬자 천죽을 다시 업고 산을 넘으면 바로 고향이기 때문에 그 밤에 산중 70여리를 달려 집으로 갔다. 그래서 일단 목숨은 건졌지만 끝내 천죽은 불구의 몸이 되어 다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동경통지 권12, 충의조)

[테마코스 3] 인내천길[동학발상지 용담정 26영길]

인내천길 : 금장대 ⇒ 금장대 팔영(암각화 등) ⇒ 동국대 뒷산길[등산로] ⇒ 화랑마을(예정) ⇒ 옥녀봉 ⇒ 김유신장군 묘 ⇒ 흥무공원 ⇒ 송화방[금산재] ⇒ 장군교

- ‘용담정은 형산강 지류인 소현천과 연결되어 있음



- 용담정은 동학사상의 발상지이며, 수운 최제우 선생이 태어난 곳이며, 그의 아버지 인 근암 최옥 선생이 학문하던 곳임
- 구미산(龜尾山)은 정상에서부터 龍潭亭이 있는 臥龍潭을 지나 하류인 驪虎까지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져 있으며, 이곳에서 <용담이십육영>이 창작됨

구미산 용담정 계곡 각 지역 명칭 : 龜尾山 頂上[雨師壇] ⇒ 騎獅嶺 ⇒ 飛虹峴 ⇒ 鹿柴豹林 ⇒ 蘭谷 ⇒ 仙遊臺 ⇒ 活源潭 ⇒ 練丹巖 ⇒ 雲影潭 ⇒ 不老巖 ⇒ 飛流瀑布 ⇒ 白石瀨 ⇒ 朗吟峰 ⇒ 蒼然臺 ⇒ 石瀨 ⇒ 雷巖 ⇒ 鼓樓 ⇒ 臥龍潭 ⇒ 類碧壇 ⇒ 蓮龜臺 ⇒ 弄波磴 ⇒ 獨釣臺 ⇒ 寒雪潭 ⇒ 吟風臺 ⇒ 澄心淵 ⇒ 花柳川 ⇒ 尋眞橋 ⇒ 五休石 ⇒ 百花潭 ⇒ 驪虎

- <용담이십육영>은 아래와 같음

1詠 龜岑喜雨	8詠 仙臺活水	15詠 吟峰月夕	22詠 前川花柳
2詠 獅嶺晴藍	9詠 丹巖白雲	16詠 蒼臺花朝	23詠 蘆峰牧笛
3詠 虹峴朝暎	10詠 老巖飛流	17詠 風臺爽籟	24詠 休臺清陰
4詠 鹿柴返照	11詠 古巖蒼苔	18詠 月灘波聲	25詠 花潭紅流
5詠 豹林宿霧	12詠 石瀨清淺	19詠 眞橋渡頭	26詠 驪湖漁歌
6詠 蘭谷幽香	13詠 龍潭水石	20詠 心淵靜波	
7詠 桃園紅霞	14詠 釣臺寒雪	21詠 西原農談	

○ 용담정이 있는 구미산 골짜기의 모습에 대해서 근암 최옥은 이렇게 적고 있음

“무릇 와룡담 일대는 산들이 매우 험하고 높지만 물은 좀 약하고, 숲은 깊은 데 골짜기는 좁다. 그래서 산으로 말하면 나물을 뜯고 캐 수 있고, 물로 말하면 마실 수 있고 낚시할 수 있어 덕 높은 사람이 세속 떠나 산수를 즐기는 곳이 될 수 있다.”(『근암집』 권1, <龍潭二十六詠 并序>)

6) 6경 普門虹橋 푸른 하늘에 맞닿을 듯한 무지개다리[너울교]

● 너울교

○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보문의 의미처럼 호수의 푸른 물결과 언덕 너머 펼쳐진 산, 그리고 푸른 하늘을 이고 있는 하늘에 맞닿을 듯한 무지개 다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



雲水洞中別有天 구름과 물이 있는 마을 중에 특별한 하늘이 있는데
 天翁慳秘待君緣 하늘님 아끼고 숨기며 그대와의 인연을 기다렸네.
 岩厓點綴疑孤寺 바위 언덕에 얽혀있어 외로운 절인가 의심하고
 烟海迷茫似泛船 자욱한 연기긴 바다에 아득하니 뜬 배 같구나.
 不是生涯泉石裏 이내 삶 자연 속이 아니어도
 也能康濟性靈邊 능히 성품의 신령함 지닐 수 있으나
 願言勿負藏修志 원컨대, 길이 간직한 뜻을 저버리지 말아서
 留與兒孫世世然 자손이 대대로 머물러 그렇게 하라 말하리
 (雲圃 李中麟 小有亭)

○ 너울교는 보문호반의 아름다움과 동천, 북천을 따라 펼쳐진 경주시가지의 모습을 한 눈에 담기에 충분할 만한 곳에 있음

- 보문호는 모두 8km의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고, 둘레길을 따라 수상공연장, 호반광장, 징검다리, 물너울교, 수상공연장 등이 있음
- 보문호 주변은 신라인들이 불국토를 염원하며 왜군으로부터 신라를 수호하기 위한 군주둔지이며 훈련지였으니, 그야말로 서라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음. 또 이곳엔 선덕여왕을 사모했다던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던 명활산성이 있는 곳으로 임.
- 이곳은 불국토에 대한 염원을 안고 국토를 수호하려는 마음, 여왕이 아닌 한 여인을 사모했던 비담의 애뜻함이 담겨 있어, 호반길 주변의 버들과 벚나무의 꽃들이 호수를 아름답게 하는 길 위에 오롯이 남아있음

● 주변유적지

☞ 명활산성

- 보문호를 중심으로 보문단지를 형성한 이곳은 천군동, 신평동지역임. 천군동은 《삼국사기》에 알천거랑 언덕 아래에서 임금이 직접 군대를 사열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오는 것으로 보아 군대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천군(千軍)마을의 북쪽은 ‘북군(北軍)’마을이고, 서쪽산은 명활산임
- 명활산은 신라 때 서라벌의 동쪽을 방어하던 명활산성이 있음. 명활산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서 “신라의 6촌 가운데 하나인 금산가리촌(金山加利村)의 촌장이며 배씨(裴氏)의 시조인 지타공이 하늘에서 내려온 곳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 명활산성은 동해에서 오는 왜병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성이었으며, 자비왕 18년(A.D 475) “평지에서 산성인 명활성으로 왕성을 옮겨 소지왕 10년(A.D 488) 춘정월 14년 동안 머물렀다”는 기록으로 때로는 궁성을 대신 할 정도로 중요한 산성이었음
- 더불어 이곳은 선덕여왕 16년 봄 정월에 비담(毗曇)과 염종(廉宗)이 난을 일으킨 곳이기도 하다. 비담이 명활산성을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켜 김유신과 격전을 벌였으나 승부가 나지 않다가 어느 날 월성에 큰 별이 떨어지자 비담이 이를 보고 여왕이 패망할 것이라 기뻐하자 김유신이 다음날 불붙인 연을 하늘로 올려 ‘어제 떨어진 별이 도로 올라갔다’고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비담과 그 일당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전함
- 한편 실성왕 4년(A.D 405)에 왜병이 명활성을 공격했다는 기록과, 눌지왕(A.D 431년) 15년 왜적이 성을 포위.점령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명활산성은 동해의 길목에서 서라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보문호 주변으로 예전부터 숲이 우거졌다고 하며, 특히 쉼나무와 버드나무가 숲을 이루었기 때문에 쉼나무숲이 있던 마을을 쉼들[섭들, 쉼덜], 버드나무가 우거졌던 냇가마을을 버던[유천, 유등천]이라고 하였다 하며 지금은 호수를 에워싸고 벚나무가 예전의 버드나무, 쉼나무 숲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호숫가 숲길을 형성하고 있음

☞ 덕동호 고선사터와 원효

- 보불로 삼거리에서 동으로 1km 정도 가면 장중한 느낌을 자아낼 정도로 고요하고 도도히 흐르는 덕동호에는 원효선사가 주지스님으로 있었던 고선사터가 입을 굳게 다물고 호수 밑에 잠겨 있으며, 고선사터에서 북쪽으로 덕동호가 끝나는 암곡동 깊숙한 골짜기에는 문무왕이 삼국통일의 위업을 마치고 ‘이제 전쟁은 그만’이라는 뜻으로 투구와 병기를 묻었다는 무장사터가 남아 있다. 이곳에서 운제산을 향해서 산길을 넘어 가면 혜공스님과 원효가 서로 자신의 물고기라고 우겼던 오어사가 있음
- 또한 보불로 삼거리에서 남쪽은 불국사로 가는 길이고, 이곳에서 토함산이 시작됨. 토함산은 경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경주의 동악에 해당하며, 토함산의 이름은 ‘토해’라는 탈해왕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산은 그 옛날 석탈해왕이 신라로 들어오기 위해 넘었던 산이며, 또 죽어서 산신령이 된 산이기도 함

☞ 무장사지

- 경주시 암곡동 산골짜기에 위치한 절터. 무장사는 원성왕의 아버지 인 김효양이 지은 절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태종무열왕이 투구와 병기를 묻은 곳에 지은 절이라서 무장사라 하였음
- 무장사지가 있는 무장산은 가을 역새로 유명하며, 이곳을 따라 원효대사가 오어사를 다녔음

● 경관구 선정에 따른 새로운 관광코스개발

【테마코스 1】 명활산성길

- 보문호 둘레길이 명활산성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문을 관광하는 사람들이 경주에서 보문이 지닌 지리적인, 역사적인 가치를 잘 알고 있지 못함
- 비담과 김유신, 원효와 사복의 이야기를 토대로 명활산성으로 가는 산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테마코스 2】 보문호 둘레길과 덕동호 둘레길을 연결

- 보문호 둘레길의 아름다움만큼 덕동호 둘레길도 매우 아름다운 길임
- 덕동호 둘레길을 활성화하여 무장산과 오어사로 넘어가는 산악길과 연계한다면 형산강 물길과 운제산-무장산 산악길을 통하여 두 도시가 물길과 산길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임

7) 7경 蚊川樓橋 문천[남천]에 세워진 누각다리

● 월정교

- 월정교는 월성의 서남쪽 문천에 세워진 다리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루 양식의 다리임
- 월성, 계림, 안압지, 흥륜사, 재매정, 천관사, 등 수 많은 유적지와 연결되어 있음
- 원효와 요석공주, 김춘추와 김유신, 선덕여왕과 지귀, 경덕왕과 충담사 등의 인물과도 연결되는 가장 많은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함. 삼릉가는 길의 출발점이기도 함



半月城南兔嶺邊 반월성 남쪽 토령 옆에
 虹橋倒影照蚊川 무지개 모양의 다리 그림자가 거꾸로 문천에 비치네.
 蜿蜒騰漢尾垂地 용이 꿈틀거리며 은하수에 오르니 꼬리가 땅에 드리워지고,
 蟬螻飲河腰跨天 무지개가 하수를 마시매 허리가 하늘에 걸쳤네.
 手斬蒼蛟周處勇 손으로 푸른 이무기를 베었으니, 주처의 용맹이요.
 身成百鶴令威仙 몸이 흰 학으로 되었으니 정령위의 신선이네.
 昔賢逸跡皆驚俗 옛날 현인들의 숨은 자취 모두 세속을 놀라게 하는데,
 慚愧區區數往還 구구하게 자주 왕래하는 내 자신 부끄럽구나.
 (김극기, <월정교>)

- “월정교는 옛날에 본부 서남쪽 문천 가에 있었다. 두 다리의 옛터가 아직도 남아 있다. 김극기의 시에 (...) 하였다. 오늘날에는 폐허로 남아 있다.”는 『경상도읍지』 「경주읍지, 고적」편의 글처럼 월성을 끼고 흐르는 남천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 유일의 누각 다리.
- 발굴조사에 의하면 월정교는 “누각 길이 60.57m이고, 교각윗면이 누각과 지붕으로 구성된 누교(樓橋)였으며, 센 물살에 견디도록 하기 위해 교각을 배모양으로 하였을 것으로 추정”, 현재 복원공사를 하고 있음

- 월정교가 지어진 시기는 “2월 궁안에 큰 못을 팠고, 또 궁 남쪽의 문천 위에 월정교(月淨橋)와 춘양교(春陽) 두 다리를 놓았다. (『三國史記』권제9 신라본기 제9 경덕왕 19년)”고 적고 있어, 경덕왕 때(760년) 지은 것으로 여겨짐
- 월정교는 경덕왕이 충담사를 만나 〈안민가〉를 노래한 곳이며,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주리요?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만들겠노라(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라는 노래를 부르던 원효가 이곳에서 요석궁으로 들어가 요석공주를 만나고 설총을 낳았음

〈안민가(安民歌)〉

君隱父也	군은 어비여
臣隱愛賜尸母史也	신은 득속살 어시여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민은 얼흔아히고 ㅎ살디
民是愛尸知古如	민이 득솔 알고다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	구물스다히 살손物生
此盼喰惡支治良羅	이흘 너기 다스라
此地盼捨遺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이짜흘 브리곡 어갈더흘디
國惡支持以支知古如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아으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ㅎ늘든
國惡太平恨音叱如	나라악 태평ㅎ니잇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로다! 하신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꾸물거리며 사는 중생이
 이를 먹어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시렵니까? 한다면
 나라가 유지될 줄 알리라.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늘 태평할 것입니다.
 (삼국유사, 충담사)

● 주변유적지

☞ 문천

- 문천은 월성의 서남으로 흐르는 내[川]임. 서거정의 〈경주12영〉 중 하나가 문천빙망임

- 서거정은 문천을 노래한 시(〈문천빙망〉)에서 “가다가 문천을 건너 댄 마을 지나가니, 옛 도읍 그리운 생각 이길 수 없구나. 피꼬리 깊은 나무에 우니 황금 갑옷 상상되고, 개구리가 찬 못에 우니 옥문지 생각나네. 흰 젖이 솟았다는 말 황당한데 불교를 숭상하였고, 황창동자는 강개히 임금 원수 갚았다네. 물이 흘러도 전조의 한을 씻지 못하니 모름지기 북해의 술항아리로 시원히 씻어야겠네.”라고 노래함
- 그리고 어세겸도 “게으른 종과 파리한 말로 외로운 마을에 다달으니, 들과 수풀 꽃은 제각기 스스로 번성하네. 적막 다 지난 일 물어볼 때 없으니, 황향한 어느 곳이 궁궐이던고, 금오산 달이 밝으니 새로운 한을 더하고, 문천에 비가 지나니 옛 원통함을 씻는구나. 눈에 가득한 강산 고금의 뜻은 말세 풍속을 누가 다시 태고로 돌릴꼬.”라고 노래함

☞ 계림

- 계림은 경주김씨의 시조인 금갑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온 알지를 발견한 곳임. 이곳도 서거정의 〈경주12영〉 중 하나임
- 계림령이 : 서거정의 시에 시에, “금계는 울고 나무는 푸르더니 9백년래 잎이 모두 누렸네. 박씨가 나라 열어 석씨에게 전했더니, 김씨 왕이 국토 바치니, 전왕과 같았네. 삼성이 다 쓰러진 일 마음에 언짢구나. 눈 앞에 여러 왕릉 이미 황폐하였네. 천고 영웅의 끝 없는 한은, 옅은 연기, 쇠잔한 풀에 다시 사양이네.”하였고,
- 어세겸은 “지나간 일 일찍이 늙은이에게 들었더니 웃으며 붓을 들고 술을 나누네. 닭이 울던 나무 아래 새 임금 나타났고, 까치가 짓던 강가에 옛 임금 바뀌었네.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자 개짓는 소리 서로 들렸고, 산천은 겨우 낡음을 기록하네. 한번 곡령에 술이 푸르른 뒤부터 머리 돌리니 전조에 또 석양이네.”하였음

☞ 안압지

- 안압지는 월성 북쪽에 있는데, 신라 문무왕 10년(670)에 궁궐 안에 못을 파고 돌을 쌓아 무산십이봉을 본떠 만들었고, 애장왕 5년 갑신(804)에 중수하였음

☞ 흥륜사

- 흥륜사는 삼국유사의 기이조에 나오는 〈도화녀 비형랑〉이라는 귀신이야기와 관련한 곳이며, 〈김현감호〉 설화의 현장임

☞ 재매정

- 재매정은 김춘추와 문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임

☞ 천관사

- 천관사는 오릉 동쪽에 있음. 김유신과 천관녀의 사랑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함
- 고려 이공승의 시에, "절 이름 천관은 옛 사연이 있는데, 홀연히 그 유래를 들으니 처연하다. 정 많은 공자가 꽃 아래에 놀았더니, 원망을 품은 가인이 말 앞에 울었네, 말은 유정하여 도리어 옛길을 알았는데, 하인은 무슨 죄로 부질없이 채찍을 더했단고. 다만 남은 한 곡조의 가사가 묘하여 섬토가 함께 잔다는 말 만고에 전하네." 라는 노래가 있음

☞ 서남산가는길[삼릉가는길]



서남산가는길 : 월정교 → 천관사지 → 김호장군고택 → 남간사지 → 창림사지 → 포석정 → 지마왕릉 → 배리삼존석불입상 → 삼릉

- 서남산가는길은 반월성[월정교]에서 출발하여 삼릉을 가는 길임. 최근 경주시에서 삼릉가는 길이라 하여 포석정을 거쳐 삼릉까지 길로 연결해 놓았음
- 이 길에서 김유신과 천관녀의 슬픈 사랑의 현장인 천관사지와 임란 때 공을 세운 김호장군고택을 지나고, 또 신라의 영화와 멸망의 현장인 포석정을 지나고, 성스러운 두 아이 곧 혁거세와 알영부인을 기른 창림사지도 지나기도 함
- 이 길은 신라사람의 불국토의 이상을 실현하려 하였던 경주 남산을 가는 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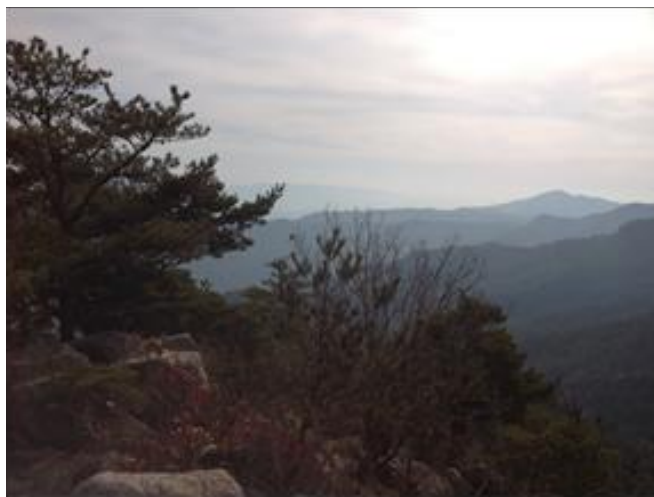
● **경관구 선정에 따른 새로운 관광코스개발**

[테마코스 1] 서거정의 12영길

1영 계림영이(鷄林靈異), 2영 오산기승(鰲山奇勝), 3영 포정감회(鮑亭感懷),
 4영 문천빙망(蚊川聘望), 5영 반월고성(半月古城), 6영 첨성노대(瞻星老臺),
 7영 분황폐사(芬皇廢寺), 8영 영묘구찰(靈妙舊刹), 9영 오릉비조(五陵悲弔),
 10영 남정청상(南亭淸賞), 11영 문옥적성(聞玉笛聲), 12영 과유신묘(過庾信墓)

- 서거정의 12영은 계림과 남산, 포석정, 문천[남천], 반월성과 첨성대, 분황사와 영묘사, 그리고 오릉과 나정, 옥적과 김유신묘임
- 이중 옥적성 곧 피리소리는 장소가 아니므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을 이어서 관광코스를 개발 가능
- 특히 서거정과 어세겸이 노래한 11곳은 월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12영 노랫말을 듣고 다니며 서거정과 어세겸이 경주에서 느낀 흥취를 만끽하게 할 수 있음

[테마코스 2] 원효 삼화령길



원효 삼화령길 : 월정교 ⇒ 옥룡암 ⇒ 일천바위 ⇒ 금오정 ⇒ 상사바위 ⇒ 팔각정터 ⇒ 금오산정상 ⇒ 용장사지 ⇒ 삼화령 ⇒ 이영재 ⇒ 통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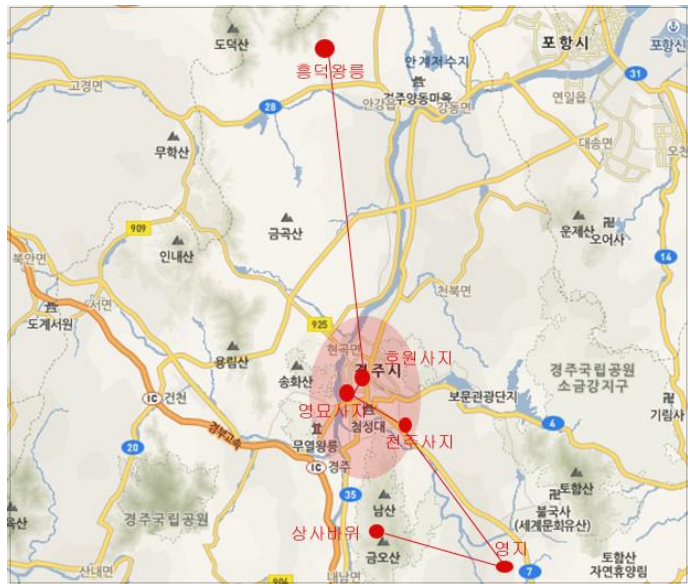
- 이 코스는 원효를 비롯한 신라의 성인들이 매년 3월3일(삼진날)과 9월9일(중구일)에

이 길을 따라 올라가 삼화령에서 미륵세존께 차를 공양하며 나라와 백성의 평안과 행복을 빌고 내려오던 길임

- 3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로 이 길에 남아전하는 삼국유사의 이야기는 여러 편이 됨. 그 중 원효대사가 요석공주를 만나 설총을 낳았다는 이야기와 경덕왕이 총담사를 만나 국가를 잘 경영할 수 있는 해답을 얻었던 이야기는 아주 소중하며 의미로운 이야기임
- 이 두 설화 모두 삼진날 삼화령에서 기도하고 이 길을 걸어와 월성의 귀정문[월정교]에 이른다는 여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 두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대개 두 가지임. 하나는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을 위해 개별적인 욕심은 내려놓으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답게’ 살아가라는 것임.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선생은 선생답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것임
- 이 길을 걸으며 원효와 총담사와 같은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생각하고, 더불어 리더의 자질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테마코스 3] 사랑길[신라인의 사랑과 향기]

영지 ⇒ 영묘사지 ⇒ 천관사지 ⇒ 두두리들 ⇒ 천주사지 ⇒ 황룡사지 ⇒
 호원사지 ⇒ 흥덕왕릉 ⇒ 남산 상사바위



- 경주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영지), 김유신과 천관녀의 사랑(천관사지), 흥덕왕

과 장화부인의 사랑(흥덕왕릉), 진흥왕의 도화녀에 대한 사랑(두두리들), 호랑이 처녀의 사랑(호원사지), 미실과 사다함의 사랑(천주사지), 선덕여왕에 대한 지귀의 사랑(영묘사지) 등과 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전함

-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이 전하는 ‘영지’에서는 사랑하는 남자를 그리는 애뜻한 사랑을, 김유신과 천관녀의 이야기가 전하는 천관사지에서는, 자신의 꿈을 위해 매진하는 남자와 상대를 이해하고 그가 성공하기 위해 기도해주는 여인의 사랑을, 김현과 호랑이처녀의 이야기에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랑을, 미실과 사다함의 이야기에서는 연인에 대한 믿음을, 선덕왕과 지귀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사랑에 대한 집착이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것이라는 교훈을 줌
-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곳을 다니면서 남산의 상사바위에서 그 사랑의 성취를 빌도록 한다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여 사랑이 성취되는 곳으로, 연인의 기도처로써 활용을 할 수 있음
- [Point] 신라인들의 사랑과 관련한 길을 설정하고 이 길을 제시해주면서, 이곳을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곳을 걸으면 이별한다는 코스를 만들어주면 재미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임. 사랑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평생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님. 절절한 마음을 가슴에 묻어두어야 할 사랑[천관녀와 김유신]이 있고, 상대를 이끌어주어야 할 사랑[호랑이처녀와 김현]도 있고, 애뜻하게 기다리는 사랑[아사녀]도 있음
- 이 코스는 이러한 사랑의 의미를 알아가는 길이었으면 함

[테마코스 4] 매월당 김시습의 경주유람길

- 매월당 김시습이 경주에 머물면서 다녔던 곳에서 지은 시들을 중심으로 매월당 유람길을 조성
- 매월당은 그의 나이 28세 때, 세조(조선)의 왕위찬탈 후, 전국 유랑하다 1462년 경주로 발걸음을 옮겨 그해 선방사(禪房寺) 등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어서는 영묘사(靈妙寺)에 들렀다가, 월성과 포석정, 오릉, 경순왕 사당을 찾았음
- 다음해 용장사에서 29세의 봄과 여름을 지냄. 그리고 이곳에 금오산실을 지어놓고 머무르다 이곳에서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지었고, 산거백영(山居百詠)을 썼음
- 김시습이 경주에 머무는 동안 다니며 쓴 시는 유금오록(155수)에 고스란히 담겨있음

※ 김시습을 따라가는 길은 크게 세 개의 코스로 나눌 수 있음

- 1) 월성에서 백률사까지의 길과,
- 2) 영묘사에서 포석정까지의 길,
- 3) 그리고 김시습의 금오산실인 용장사터를 오르는 길

8) 8경 三陵枉松 삼릉의 도래솔숲

● 삼릉솔숲

- 김시습이 경주에 머무는 동안 다니며 쓴 시는 유금오록(155수)에 고스란히 담겨있음
- 삼릉솔숲은 도래솔이 아름다운 곳임. 전국의 내노라하는 사진 작가들이 찾는 곳. 이곳은 매월당 김시습이 설잠이 되어 찾아들어온 곳이기도 함. 설잠의 자취가 골짜기마다 서려있음



용장사에서 생각있어(葺長寺有懷) -김시습

葺長山洞幽 용장산 골짜기 깊고 깊어서
不見有人來 사람이 오는 것도 보이지 않네
細雨移溪竹 가랑비는 시냇가 대나무를 찾아가고
斜風護野梅 스쳐가는 바람은 들의 매화를 감싸주네.
小窓眠共鹿 작은 창에서 잠드니 꿈은 사슴을 따라 나서고
枋椅坐同灰 낡은 의자에 앉으니 몸과 마음 식은 재로다
不覺茅簷畔 초가집에 딸린 발두둑이 알지 못하는 사이
庭花落又開 뜰앞 꽃밭에는 꽃이 지고 또 피네.

- 삼릉은 아름답리 소나무가 군무를 이루는 곳으로 사진을 찍는 작가들에게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함
- 삼릉은 월성에서 출발한 '남산가는 길'의 마지막 코스이며, 삼릉계곡을 가는 입구가 됨. 삼릉은 아달라와, 신덕왕, 경명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이곳에서 남산을 오르면 매월당 김시습이 머물렀던 용장사지로 갈 수 있음
- '남산을 모르고서 경주를 안다고 할 수 없고, 삼릉을 모르고서 남산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말과, 하루 동안 남산을 걸으며 남산의 많은 유적과 유물을 보고 싶다면 "삼릉골로 올라가서 금오산정상에서 용장골을 거쳐 칠불암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말처럼 남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 할 수 있음
- 용장사지에 머무르던 매월당이 다니던 길임

● 남산의 지정문화재

보물	사적
남산동 삼층석탑, 보물 124호	포석정터, 사적 제1호
미륵골 석불좌상, 보물 136호	남산 산성터, 사적 제22호
용장사터 삼층석탑, 보물 제 186호	서출지, 사적 제138호
용장사터 석불좌상, 보물 187호	오릉, 사적 제172호
부처골 석불좌상, 보물 198호	일성왕릉, 사적 제173호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보물 199호	정강왕릉, 사적 제186호
칠불암 마애석불, 보물 200호	헌강왕릉, 사적 제187호
탑골 마애조상군(부처바위), 보물 201호	삼릉, 사적 제219호
삼릉골 석불좌상, 보물 666호	지마왕릉, 사적 제221호
용장사터 마애여래좌상, 보물 913호	경애왕릉, 사적 제222호

베동삼존것불입상, 보물 63호 남간사터 당간지주, 보물 109호	나정, 사적 제245호 남산일원, 사적 제311호
지방유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삼릉골 마애관음보살상, 제19호 삼릉골 마애선각육존불상, 제21호 입골석불, 제94호 상선암 마애석가여래좌상, 제158호 삼릉골 선각여래좌상, 제159호 침식골(심수골)석불좌상, 제112호 열암골(새갓골) 석불좌상, 제113호 약수골 마애입상, 제114호 백운대 마애불입상, 제206호	탑동김헌용고가옥 제34호

● **경관구 선정에 따른 새로운 관광코스개발**

[테마코스 1] 남산 부처님길

삼릉 ⇒ 경애왕릉 ⇒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
 상사암 ⇒ 금오산 정상 ⇒ 약수골 마애여래대불입상 ⇒ 용장사지 ⇒ 신선암
 마애보살상 ⇒ 칠불암 ⇒ 남산동삼층석탑 ⇒ 서출지

- ‘남산을 모르고서 경주를 안다고 할 수 없고, 삼릉을 모르고서 남산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말과, 하루 동안 남산을 걸으며 남산의 많은 유적과 유물을 보고 싶다면 “삼릉골로 올라가서 금오산정상에서 용장골을 거쳐 칠불암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말을 따라 가장 아름다운 길을 따라 남산을 등반할 수 있는 길
- 더불어 이 길에서 매월당의 금오신화의 산실을 만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임. 매월당은 그의 나이 28세 때, 세조(조선)의 왕위찬탈 후, 전국을 유랑하다 1462년 경주로 발걸음을 옮겨 그해 선방사(禪房寺) 등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어서는 영묘사(靈妙寺)에 들렀다가, 월성과 포석정, 오릉, 경순왕 사당을 찾았음. 그리고 다음해 용장사에서 29세의 봄과 여름을 지냄. 그리고 이곳에 금오산실을 지어놓고 머무르다 이곳에서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지었고, 산거백영(山居百詠)을 썼음. 김시습이 경주에 머무는 동안 다니며 쓴 시는 유금오록(155수)에 고스란히 담겨있음
- 이 길은 김시습이 경주에 머물며 다녔던 흔적인 <유금오록>을 따라가는 코스이기도 함.

[시놉시스]

- 김시습은 그의 시 <산길을 가다가>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아이는 잠자리 잡고 늙은이는 울치고/ 개울 봄물에는 가마우지 먹을 감는다./ 푸른 산도 다 한곳 갈 길도 멀어/ 검붉은 등나무 지팡이 메고 걸어가 노라.” 매월당의 시처럼 삼릉을 출발하여 용장사를 거쳐 칠불암으로 걸어가 보자.
- 삼릉은 신라 8대 아달라왕과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무덤이다. 구불구불한 소나무들 사이로 내리는 햇빛은 가이 환상적이며, 봄에 소나무 사이로 피는 진달래도 진풍경 중의 하나이다.
- 경애왕릉은 왕의 무덤이랄 수 없을 만큼 자그마한 무덤이다. 포석정에서 후백제의 견훤에게 자결을 강요당한 임금이어서 그런지 더욱 작아 보인다.
- 입곡석불두를 시작으로 삼릉계곡의 부처를 만나게 된다. 마애관음보살상, 선각육존불, 선각여래좌상, 석불좌상, 석가여래좌상을 차례로 만나며 계곡을 오를 수 있다.
- 금오산정상 아래에 상사바위가 있다. 상사바위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부가 이곳에 빌면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영험한 바위이다.
- 용장사지는 산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다. 사지는 없어지고 다만 삼층석탑이 남아있다. 용장사는 매월당이 머문 절로 더욱 유명하다. 이곳에서 매월당은 금오신화를 쓰고, 많은 시편을 남겼다. <용장사에 머물며>라는 시는 “풀잎 우거진 산골짜기 깊숙도 하여/ 사람이 오는 것을 볼 수도 없구나./ 시냇가의 대나무는 가랑비에 자라고/ 비긴 바람은 들판의 매화를 지켜주네./ 작은 창가에서 사슴과 함께 잠 자고/ 마른 의자에 앉으니 이 내 몸이 재와 같구나./ 초가집 처마에서 트락의 꽃이 떨어지니/ 또 다시 피어남을 깨닫지 못하겠구나.”라는 자신의 처지와 자연과 함께 하는 매월당의 일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선암 마애보살상이 있는 곳은 토함산과 낭산을 비롯하여 신라의 중심지가 다 보이는 곳이다. 이곳에서 아래쪽이 칠불암이다. 마애보살상은 감실의 높이가 2.3m, 폭은 1.3m이며, 그 안에 모셔져 있는 보살상은 높이 1.4m이다. 눈 아래로 소나무 숲을 내려다보며 있는 마애보살상은 아득히 하늘에 떠 있는 부처님과 같은 모습이다.
- 칠불암으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르다. 칠불암은 높은 절벽을 등진 뒤쪽에 삼존불이 있고, 그 앞 쪽에 사면에 불상이 있다. 풍만한 얼굴, 양감이 풍부한 사실적인 신체표현, 협시보살들의 유연한 자세의 이 불상들은 보물 200호로 지정되어 있다.

【테마코스2】 신라의 흥망성쇠에 따른 남산기행

- ① 오릉 ⇒ ② 나정 ⇒ ③ 양산재 ⇒ ④ 남간사지 ⇒ ⑤ 창림사지 ⇒ ⑥ 포석정지 ⇒
⑦ 경애왕릉 ⇒ ⑧ 샛갯곡석불좌상

【테마코스3】 경주 남산 달빛기행

- 삼릉 ⇒ 마애관음보살입상 ⇒ 석조여래좌상 ⇒ 선각육존불 ⇒ 상선암 ⇒ 바둑바위

6-2. 형산강팔경과 기존 자원과의 연계 필요성

- 현재 선정한 형산강 팔경은 전체적으로 20여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두고 분포해 있고, 해당 경관구를 관통하는 특별한 교통망이 정비되어 있지 않음
-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발하는 경관구는 기존 시가지와 거리를 두고 있고 다른 관광지와의 연계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형산강팔경’ 조성 이후에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우선적으로는 각 경관구를 주변의 명소, 관광지, 시가지와 연계하고 코스화하여 개별 경관구만으로도 의미 있는 체험이 가능하게 하는 계획이 필요하며,
- 경관구의 주변여건상 연계가능한 자원의 위치와 이에 구현가능한 과거와 현재의 스토리텔링 소재를 파악하여 경관구와 기존 자원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함

6-3. 경관구 선정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

1) 경관구[경, 구곡] 선정에 따른 관광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전략

가. 기본방향

- 스토리스케이프(storyscape)를 통한 형산강의 새로운 풍경만들기
 - 팔경(八景)과 구곡(九曲)은 공간이 지나는 장소성과 공간의 이미지, 그리고 조망의 방향과 경관의 의미의 재해석이라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음
 - 팔경과 구곡 모두 역사문화적 의미와 지역성이 가미된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의 가치가 상징적 코드로 드러난 것이므로, 장소와 경물에 따른 VIEW POINT를 설정하고 경물과 풍경 사이에 사유와 스토리를 더하여 공간에 의미를 부여
- 풍경만들기를 장소마케팅의 소재로 활용
 - 장소성이란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여 장소를 만들고 특정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도록 주관적으로 인지된 장소의 총체적 특성임
 - 팔경을 활용하여 장소성 콘텐츠로 기획하고, 이미지화하여 풍광과 이야기를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활용하여 경관구의 장소를 마케팅하는 소재로 활용
- 공간의 연결고리를 통해 연쇄적 관광화 구현

-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관광이 아니라 물리적인 강의 연속성을 활용하여 지역을 이어주는 연쇄적 관광화 구현

○ 대상물에 대한 명칭부여를 통해 공간이 가치를 지니도록 **공간가치의 재창조**

- 공간을 바라보는 사유방식, 대상에 대한 인식태도, 경험에 대한 소통방식 등을 고려하여 경관을 체험하면서 즐거움[樂]을 느끼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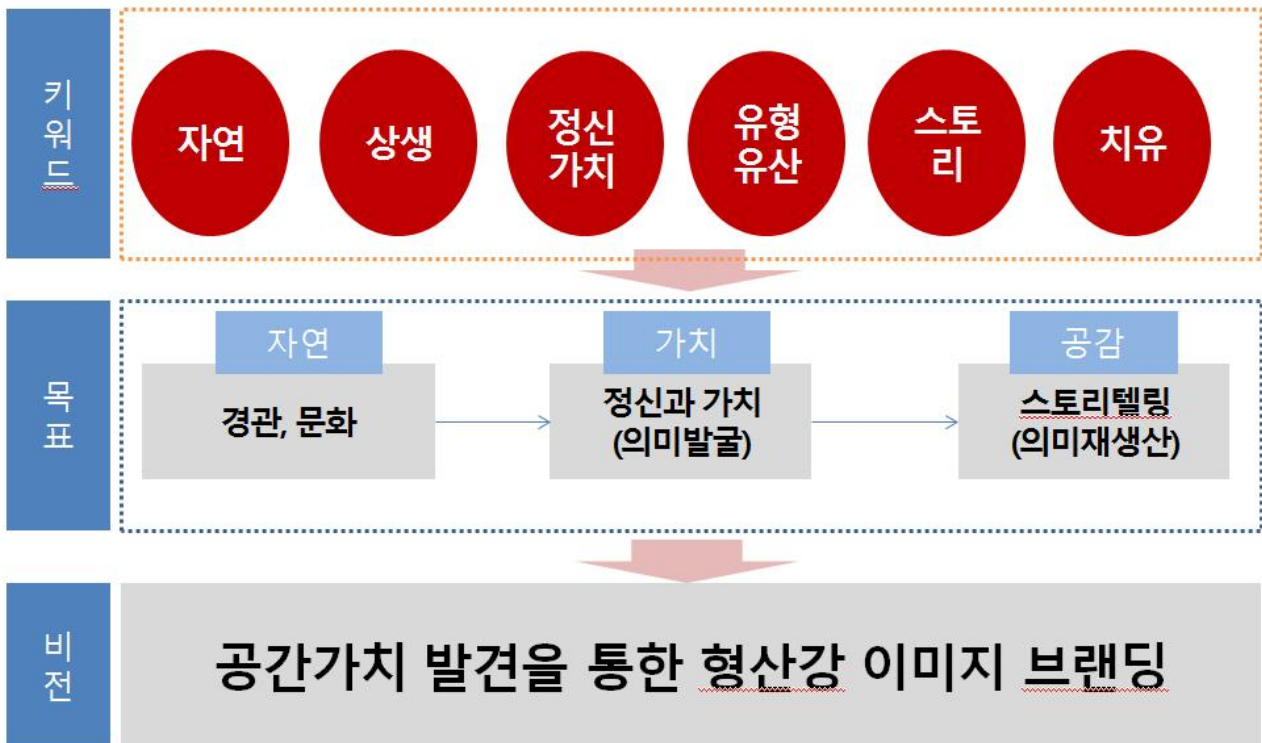
나. 전략

● 목표

○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근간으로 하여 두 도시가 형산강을 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형산강이라는 물리적인 강 위에 문화와 스토리라는 옷을 입혀서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

● 키워드 및 비전



- 전략

- 〈형산강팔경〉의 각각의 장소를 정비하고, 다양한 자원에 기반한 스토리 설정
- 자연경관, 형산강의 가치와 의미 발견[발굴], 의미재생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
-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형산강 이미지 브랜딩

- 계획

- 각각의 경관구 정비 및 스토리 발굴
- 스토리텔러 양성 및 리플렛 작성
- 권역별 및 경관구별 세부적 관광 프로그램 수립

7. 경관구 주변여건 관리 및 정비 방안

7-1 경관구 유형별 구분

- 경관구는 그 자체의 특성 및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며, 그 유형별로 관리 및 정비 방향이 구분될 필요 있음
- 경관구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 후 그에 적절한 정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 경관구는 해당 경관, 전망, 경치, 장면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방식에 따라 전망형, 코스형, 체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특징과 그에 따른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음

1) 경관구 유형구분 1: 이용방식에 따른 구분

유형	특성	대상	관리방안
전망형	정해진 전망점이 있고 그곳에서 특정한 경치, 전망, 광경을 관찰하기에 적절한 경관구	영일대 금장대 너울교 월정교 부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망 지점으로 인도하고 접근가능하게 주변지역과 연결 필요 - 전망지점에 전망을 위한 설비와 전망에 대한 해설관련 시설 설치 - 관람객 집중에 따른 안전시설이나 질서유지 위한 설비 필요
전망형+코스형			
코스형	선형으로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경관을 체험하는 것이 적절한 경관구	포항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의 코스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출입 지점을 인식하게 하는 장치 필요 - 코스의 중심적인 지점에 휴게시설, 전망시설 등 추가 가능 - 형산강과 연결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연결로를 명확히 할 필요
코스형+체험형			
체험형	정해진 지점이나 이동로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머물면서 주변환경을 총체적으로 체험하는 방식의 경관구	양동마을 삼릉솔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으로 구분되는 경관구이므로 출입지점에 경관구 정체성을 알리는 정보게시 필요 - 체험 가능한 여러 모습들을 전달하는 안내시설 필요

<유형구분 1 : 전망형, 코스형, 체험형>

- 전망형은 특정한 경관 관찰 포인트가 주어진 경관구로서, 해당 지점에서 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과 접근성,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 구체적인 경관을 예시하고 그에 전망대, 전망탑 등 전망시설과 전망에 대한 해설 사인보드, 사진포인트 등을 설치하여 정비할 필요 있음
- 코스형은 선형으로 이루어져 이동하면서 관람하는 경관구의 성격이므로 보행, 자전거도로,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함
- 코스가 형산강과 순환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로, 안내체계 정비 필요
- 체험형은 특정한 영역 내에서 머무르며 일상적으로 관찰하는 방식의 경관구이므로 특히 출입지점에 경관구임을 알리고 전달하는 시설 조성 필요
- 안내소 등의 정보전달 시설들을 설치하여 전체 경관구 체험의 거점으로 삼고 휴식할 수 있도록 고려

2) 경관구 유형구분 2: 활성화 정도에 따른 구분

- 경관구 중에는 이미 관광지로서 정비되고 접근로와 안내체계 등이 조성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이번 경관구 지정을 통해 새롭게 재발견하고 명소로 홍보해야 하는 시설도 분포하고 있음
- 이처럼 경관구 각 사례의 기활성화 정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접근을 통해 전체 경관구 간의 조화있고 균형적인 정비 및 관리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활성화 정도에 따라 보존형, 신규발굴형, 기존시설형으로 구분하고자 하며, 각 유형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시함

유형	특성	대상	관리방안
보존형	기존의 경관구 여건 자체가 양호하거나 보존 위주의 대상이어서 별도의 개발이나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양동마을 삼릉솔숲	- 추가적 시설이나 정비, 개발 부적합 - 접근로 개선, 경관구 지정 표지 체계 등 부가적인 정비만 적용
보존형+신규발굴형			
신규 발굴형	경관구로서 지정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인 이용과 체험을 위한 시설조성 및 관리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조정 너울교 월정교	- 근래에 개발, 정비가 예정된 경관구로서, 계획에 경관구 지정을 미리 고려 - 전망형 경관구는 경관점 입지와 그에 따른 시설 설치를 계획안에 추가 - 코스형 경관구는 출입 지점에 식별가능한 시설 계획 등을 통해 경관구 지정 인식 장치 추가 - 형산강과 분리된 경관구의 경우 수변공간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필요
기존시설형+신규발굴형			
기존 시설형	지역에서 설치, 조성, 관리하는 시설과 관련되어 있어 경관구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비관리가 필요한 경우	영일대 포항운하 금장대	- 추가적인 시설, 정비, 개발 적용 가능 - 경관점 지정, 전망시설 설치 등 관광객 유치방안 모색 - 경관구 답사의 거점이 되는 시설 설치 가능 (안내소, 기념품점, 스탬프)

<유형구분 2 : 보존형, 기존시설형, 신규발굴형>

- 기활성화되고 보존되어 있는 경관구들의 경우 특별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으나 전체 경관구에 포함됨을 인식시킬 수 있는 표지체계, 홍보시설 등의 부가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 신규발굴형 경관구는 근래에 개발과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계획된 사례로서, 해당 시설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전체 경관구들간의 연계관계를 분명히 하는 접근로 조성, 전망점 지정, 표지체계 및 홍보시설 등의 조성이 포함될 수 있게 할 필요 있음
- 기존 시설형의 경우 최근에 조성이 완료되어 활성화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사례들로서, 경관구 답사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안내소, 기념품점, 스탬프 설비 등 설치가 고려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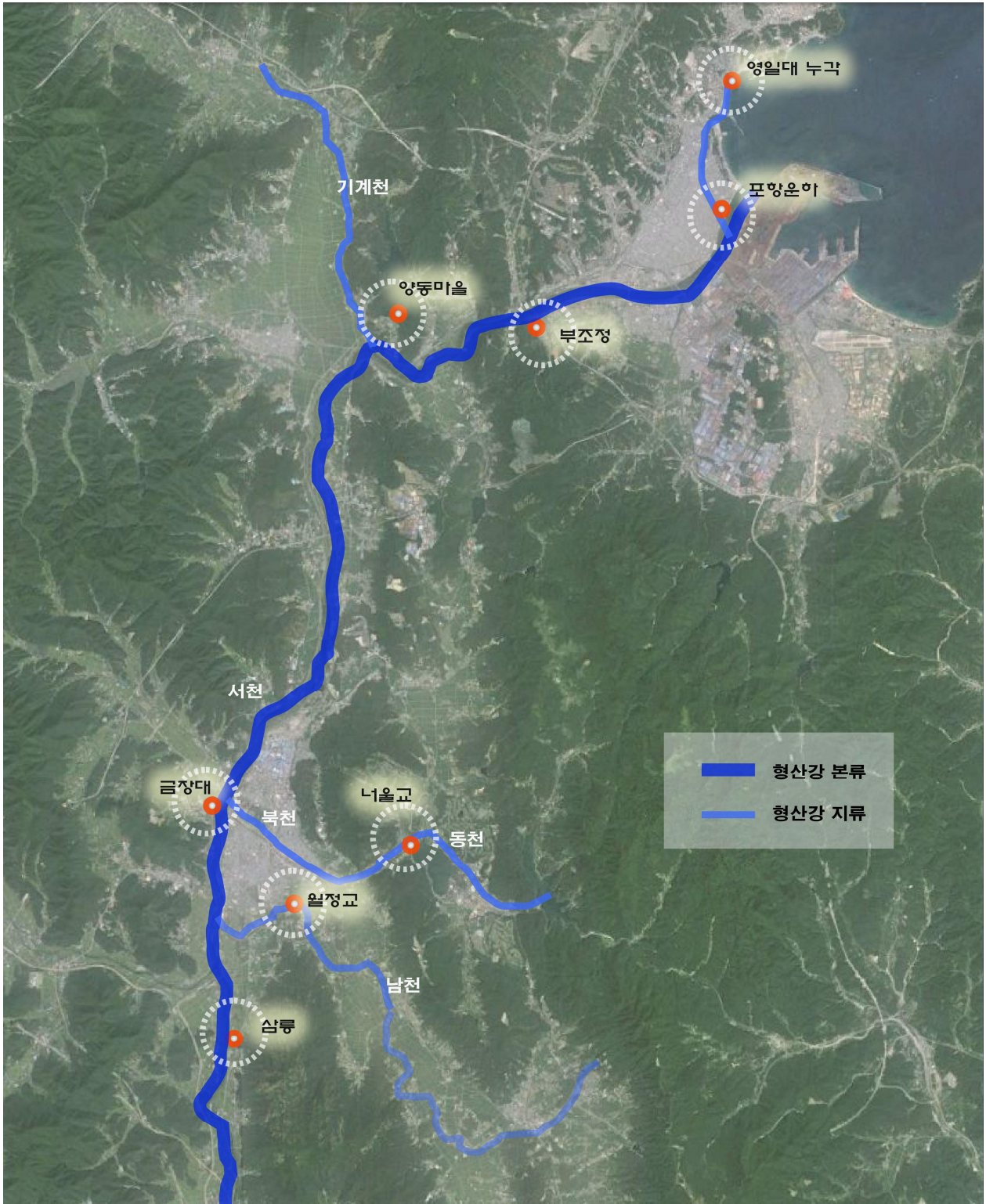
7-2 경관구 주변부 관리 및 정비 방안

1) 정비 및 관리 방향성 모색

- 경관구의 조성은 전체 형산강과의 연계, 경주-포항 시가지로부터의 접근성, 전체 경관구의 코스화 등 전체적인 경관구 조성계획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 있음
- 개별적이고 고립된 관광시설로서 끝내는 인상을 주기 보다는 전체 8대 경관구의 하나로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또 다른 경관구를 방문하고 싶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 시설배치, 안내표지체계, 홍보방식 등이 필요함
- 특히 형산강 수변공간과의 연결, 접근이 부족한 경관구의 경우 이를 보완하여 형산강 에코트레일 코스로부터 상호 접근이 가능한 시설로 정비해 가야할 필요 있음

2) 8대 경관구 전체 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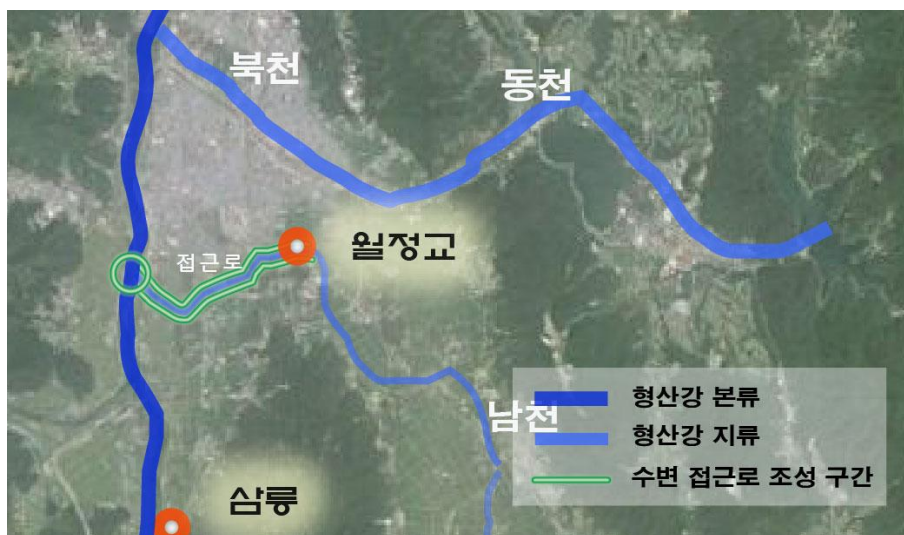
- 8대 경관, 10대 경관 등의 개념은 타 지역에도 있어왔으나 하나의 하천을 따라 가는 장소를 묶어서 경관구로 제시하는 경우는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특성과 고유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형산강 본류와의 연결성, 형산강 에코트레일 등 장차 조성될 강변 수변공간과의 조화 등을 살리면서 정비,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전체 경관구의 분포를 형산강과의 거리 관계에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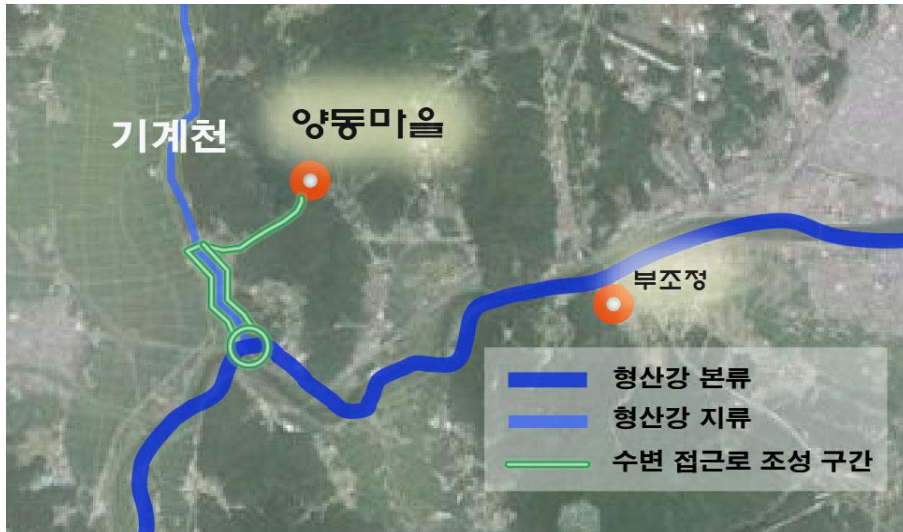
<형산팔경과 형산강 본류, 지류의 위치관계>

- 형산강 본류 인접 경관구 : 삼릉, 금장대, 포항운하
- 형산강 본류에서 이격(지류 근접) 경관구 : 월정교, 양동마을, 너울교
- 형산강 본류에서 별도 경로로 연결된 경관구 : 부조정, 영일대 누각

- 형산강 수변공간이나 본류이 인접해있는 삼릉, 금장대, 포항운하, 동빈나루의 경우 별도의 접근성 향상이나 형산강과의 연계성을 위한 부가적 정비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기존의 접근경로를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관리 가능
- 형산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접근하는 월정교(남천변)와 양동마을(기계천)의 경우 현재 하천에 수량이 부족하고 수변공간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편임
- 해당 지류를 따라가는 접근로 역시 차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강을 따라가는 산책로 등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형산강으로부터 보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 자전거길, 수변데크가 조성될 필요 있음
- 장차 확충될 형산강 둘레길 사업과 연계하여 지류를 따라가는 트레일도 조성될 필요 있음
- 트레일과 형산강의 교차점에는 형산 8경의 한 지점을 목적으로 하는 트레일임을 밝히는 표지판, 인식체계가 설치될 필요 있음



<월정교 수변 접근로 조성 구간 예시>



<양동마을 진입부 수변 접근로 조성 구간 예시>

- 부조정과 영일대 누각은 형산강변에서 시작하여 각각 산악길과 해변길을 따라 연결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음
- 현재 부조정의 경우 증명자연생태공원의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어 별도 진입로는 필요하지 않으나 해당 진입로와 형산강 본류 사이에 차로와 마을이 분포하고 있어 연결성이 약한 실정임
- 경관구 선정대상이었던 유강대교변의 생태탐방로와 부조정으로 향하는 진입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향후 접근로 조성 및 정비 사업 필요



<부조정 진입부 수변 접근로 조성 구간 예시 >

- 영일대 누각의 경우 형산강-포항운하-동빈내항과 직접 연결되는 수변 트레일에 포

함될 수 있으므로 포항시의 바닷길인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의해 자연스럽게 연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포항운하-동빈나루-영일대가 하나의 연속적인 경관구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안내시설 등의 조성만으로 연결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포항 시가지 경관구를 연결하는 블루웨이 정비 구간>

3) 개별 경관구 관리방안 예시

- 경관구가 개별적인 특징 외에도 전체 형산8경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한 정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정된 경관구 중 대표적인 유형에 속하는 4개의 사례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되 특히 형산강과의 연계, 8경으로서의 정체성, 상호 연계 등에 중점을 두어 제시하고자 함

● 부조정(전망형, 신규발굴형)

- 부조정은 형산강에서 중명생태공원 접근로를 따라 정상으로 올라가는 산악코스를 통해 연결되고 있음
- 향후 유강대교변에 조성될 생태탐방로와 접근로가 연결되고 있어 향후 형산강-생태탐방로-중명생태공원-부조정 으로 이어지는 생태환경 체험 코스가 조성될 수 있는 잠재력 있음

- 이러한 잠재력을 살려 부조정의 경우 형산강의 조류도래지, 수변습지, 생태탐방로 등을 전망하는 생태자연형 전망대로서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안 고려
- 아울러 강변을 따라가는 생태탐방로 제1코스에 이어 부조정까지 이르는 제2코스를 설정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방안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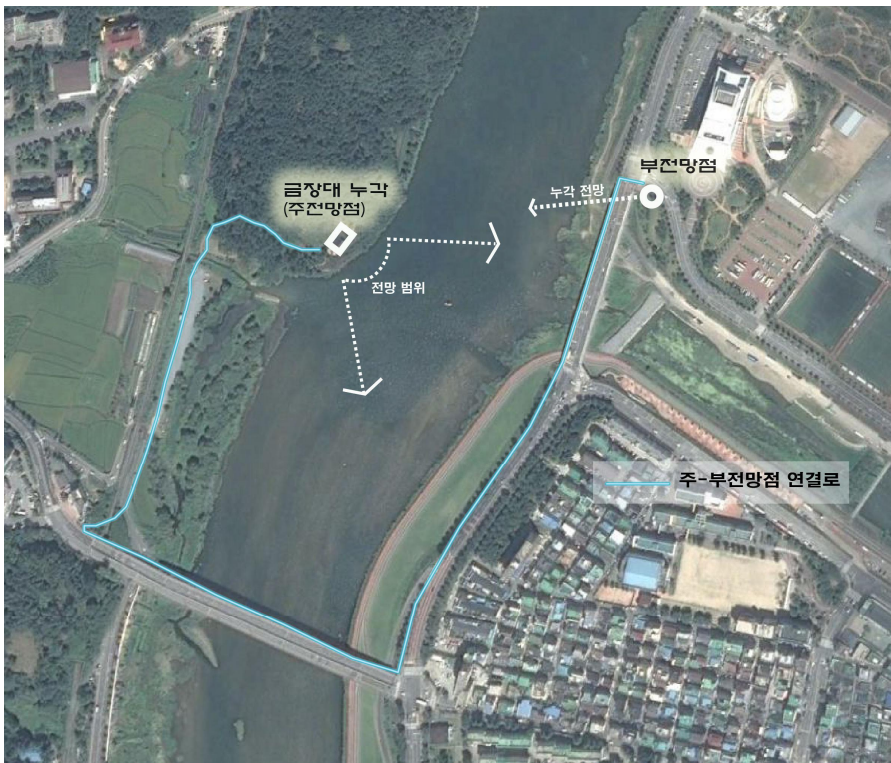
<부조정-중명생태공원-형산강 생태탐방로의 연계>



<부조정 전망: 향후 조성될 수변 생태탐방로가 보임>

● **금장대(전망형/기존시설형)**

- 금장대는 형산강 경주 시가지 부분을 내려다 보고 조망하는 전망점의 역할 이외에도 경주 시가지 진입부의 언덕에 위치하여 도로에서부터 올려다 보이는 랜드마크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 이를 고려하여 금장대는 누각 자체의 주 전망점과 도로변의 부 전망점을 선정하고 이를 하나의 코스로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 이 경우 주 전망점은 금장대 누각 자체인 한편 부 전망점은 형산강 건너편 교차로에 설치된 정자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임
- 주전망점의 경우 현재 형산강 및 경주 시가지를 내려다보이는 개방적인 경관이 인상적이나 강변 부지에 특별한 조경적 요소가 없고 남측에 근접한 교량도 특징적인 전망요소가 없어 무미건조한 느낌을 주고 있음
- 전체적인 경관의 흥미를 높이고 관광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 금장대의 전망 범위의 수변공간 및 교량에 조경적 요소 및 디자인 요소를 더하여 정비하는 방안 고려
- 주전망점인 금장대 누각과 부전망점인 정자를 연결하는 연결로를 시설 주변 안내판에 도시하여 이를 통해 전체 전망을 코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



<금장대 위치 및 주-부 전망점, 연결로>



<금장대 주전망점에서의 전망 (왼쪽: 북측, 오른쪽: 남측)>

● 포항운하(코스형, 기존시설형)

- 포항운하의 경우 형산강과 접하는 곳에 이미 조성된 포항운하관이 주전망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곳의 전망을 주전망으로 지정
- 현재 보행교가 총 2개소 개설된 가운데 운하 중간지점에 조성된 보행교가 다시 남쪽을 향해 운하와 운하관, 형산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부전망점으로 지정
- 운하 양안을 따라가는 주-부전망점 연결코스를 포항운하 조망을 위한 최적 코스로 지정하여 홍보



<포항운하 코스 구성 및 주-부 전망점>

● 월정교(전망형/신규발굴형)

- 월정교의 경우 터널형으로 구성되어 지붕이 있는 교각의 형식을 하고 있고 그 표고가 높지 않아 하천을 내려다 보는 전망은 형성되지 않음
- 따라서 교각에서 내다보는 전망 보다는 외곽에서 교각을 관찰하고 기념촬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정하여 조성하는 것이 경관구 형성을 위해 더 바람직해 보임
- 현재 월정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며 북측에는 일부 식당가가 조성되어 있으나 해당 장소에서 월정교를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각이 형성되지 않고 있음
- 가장 바람직한 전망은 월정교 서남측에서 월정교와 배경이 되는 숲을 향하는 방향이므로, 해당 부지에 조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 지점에 휴게시설, 포토존 등 공공적 조성물을 설치하는 외에도 월정교를 오랫동안 조망할 수 있는 카페, 전통찻집 등 야외 조망을 가지는 상업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월정교 주변 상황 및 주요 전망지점 위치>

☞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한국의 불상」, 『황수영전집』1, 황수영, 혜안, 1998.

「한국팔경의 형식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강여조·김영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9권 2호, 1991. 12.

「팔경구조분석을 통해 본 전통문화경관 조망권역에 대한 실증적 연구-임실군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권 1호, 2007.3.

『경북의 구곡문화』, 김문기, 강정서,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서거정의 경주십이영의 의미와 폐허미학적 소통방식」, 노재현, 『한국조경학회지』 37(2), 2009.6.

『자연에서 찾은 이상향 구곡문화』, 울산대곡박물관, 2010.

『경북의 구곡문화Ⅱ』, 김문기, 강정서,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2.

『향토와문화』, 「구곡을 노래하다」, 대구은행, 2013.

「구곡문화의 형성과 전개」, 『경상북도 구곡문화와 콘텐츠산업의 연계』, 김문기, 경북문화콘텐츠정책포럼 산수문화분과 발표자료, 2014.11.7.

「구곡문화의 문화콘텐츠산업화 연구」, 『경상북도 구곡문화와 콘텐츠산업의 연계』, 황대욱, 경북문화콘텐츠정책포럼 산수문화분과 발표자료, 2014.11.7.

[과제보고서]

『형산강에코트레일-기본구상 및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경상북도, 2009. 08.

『탄소제로, 녹색탐방의 아름다운 유적길 최종보고서』, 경주시, 2010.07.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경주관광활성화 방안』, 한국관광공사, 2010.

『금장대 콘텐츠 개발 연구-금장대 스토리텔링』, 경주시, 2012.02.

『포항·경주 공동상생 역사문화생태자원 사업 방안』, 경상북도, 2015.07.